

10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10호

(루계 제792호)

차례

| | |
|--------------------------|--------|
| 광이여 내 그대를 노래하노라(시) | 서진명(3) |
| 어머니강알에(시) | 홍성두(4) |
| 어머니와 아기(시) | 문동식(4) |

| | |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5) |
|----------------------------|-----|

| | |
|-------------------|--------|
| 창글의 작은 집(시) | 한원희(5) |
|-------------------|--------|

| | |
|-----------------------------|--------|
| 단편설 기차는 정시로 간다 | 정기종(6) |
|-----------------------------|--------|

| | |
|----------|---------|
| 감사 | 윤경찬(21) |
|----------|---------|

| | |
|---------------------|---------|
| 우리 땅은 강하다(가사) | 문기창(16) |
|---------------------|---------|

| | |
|--------------------------|--------|
| 사랑의 샘은 마를줄 모른다(평론) | 김학(17) |
|--------------------------|--------|

| | |
|-----------------------|------|
| 주체문학의 대강 | (19) |
|-----------------------|------|

| | | |
|---|--------------------|---------|
| 시 | 아기와 해님 | 리연희(20) |
| | 잊혀지지 않는 사람 | 유련희(20) |
| | 전쟁과 미채 | 김기성(29) |
| | 그 길로 간다 | 함영주(30) |
| | 당과 나의 운명(시초) | 안준보(31) |
| | 나는 그쳐본다 | 주경(33) |

| | |
|-----------------------|------|
| 《ㄷ.ㄷ》의 지위(혁명일화) | (30) |
|-----------------------|------|

◇ 평론 ◇

| | |
|-----------------------------------|---------|
| 영원한 별로 빛나는 값높은 삶에 대한 불멸의 화폭 | 손성철(37) |
| 푸른 숲의 정서와 숭고한 조국애 | 리근세(49) |

《인민경제 선행 부문과 기초공업 부문을 추켜
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
강국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김 정 은

뒤돌아본 어제 (실화문학) 홍 남 수(41)

단편

나는 탄부의 안해이다 김 성 희(58)

소설

수 술 리 경 명(70)

수

필

당기발과 우리 가정 강 혜 옥(34)

◇ 시 ◇

콩가을날에 리 찬 호(40)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다 류 명 호(56)

위대한 사랑의 언덕우에서 차 명 철(56)

우리 사는 집 최 주 원(57)

통남산의 불빛 정 두 국(75)

어머니조국앞에 뗏뗏하라 한 동 선(69)

마식령시간 리 경 체(75)

마식령바람(시 묶음) 심 복 실(76)

졸업시험장에서 최 련(74)

쓰팔린그라드방위자들의 열렬한 쏘베트애국주의를

보여준 중편소설 《낮과 밤》 (소개) 김 혜 원(79)

표지2면: 《그 품이 제일 좋아》 (노래)

3면: 《어머니》 (노래)

당이어 내 그대를 노래하노라

서진명

남다른 행운이었어라
해방의 기쁨으로 설레이던 강산
1945년 10월의 하늘가에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퍼지던
바로 그해에
이 땅에 내가 태어난것은

빈터우에 새 조국을 세우고
설음닿던 인민들을 잘살게 해주시려고
그대 걸어온 기적과 창조의 행군길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예순여덟해는
보람넘치는 내 인생의 자욱자욱이
이 땅에 새겨진 예순여덟해

철없던 그 시절엔 미처 몰랐어라
알찬 이삭들이 조용히 설레이던
분여지 밭머리에 나란히 앉아
내 머리 쓰다듬어주시던 나의 어머니
당마크에 새겨진 낫은 그대로
우리 농민들의 모습이라시던
그 목소리가 왜 그리도 공지에 넘치었던지

소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기쁜 날
내 옷차림 살펴주시던 어머니
서튼이 넘도록 까막눈이던 너의 아버지는
해방이 되어서야 마치를 든 공장의 주인으로
되었다고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눈가에 왜 뜨거운것이 맺히었던지

진정 다는 몰랐어라
그저 소박하기만 하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마음속에
자기 운명의 주인이란 진리를 심어준 그대에게
그들의 평범한 자식인 나의 맑은 눈동자에

창창한 미래를 준 그대에게

한해 또 한해
우리 당의 거룩한 년대기와 함께
가슴속 소원을 꽃피우며 한자욱
동일로 짧은 청춘의 붉은 피를
조국의 강성번영에 바치며 또 한자욱
내 삶의 년륜을 아로새기며
나는 심장으로 절감했노라
당이어 그대는 나의 운명과 미래의 전부

하늘과 땅 바다를 다 합친것 같은
한량없는 그대의 품 있기에
모범농민으로 대의원으로 성장한
나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내 또한 그대의 어엿한 전사로 자랐거니

노래하노라 당이어
그대는 이 땅에 태어나 태를 묻은 천만자식들
그들의 후손들과 먼먼 미래까지도
다 말아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스승
가장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자

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자랑높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이어
그대 기폭에 새겨져있는 그 붓대를 들고
내 그대를 노래하노라

오늘도 그대만을 따르고 그대만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의 그 진정을 합쳐
살아 한생 그대 사랑에 끌리고
그대 위대성에 매혹된
마냥 뿜어오르는 이 심장을 터쳐!



어머니당앞에

홍 성 두

사람들은 말하더라
당앞에 설 때
전사의 마음 티없이 깨끗하고 솔직하고
순결해야 한다고

당원들의 엄숙한 눈길앞에서
자신을 총화하는 때
또는 큰 일감을 앞에 놓고
당기앞에서 충정을 맹세하는 때

그래야 하리 진정 그래야 하리
어머니앞에 거짓을 모르는 자식처럼
당을 따르고 받드는 마음
그렇듯 순결해야 하리 진실해야 하리

혁명의 앞길을 밝히며
천만의 운명을 보살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숨쉬는 당
당을 떠난 우리 삶 순간도 생각할수 없거니

잊지 말아야 하리

대원수님들 슬하에서 자란 전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이끄시는 당의 전사는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당앞에 자식으로 서있음을

그러면
삶의 순간순간
백옥처럼 깨끗한 마음
하는 일에 허식과 가식을 모르게 되리

그러면
넓지 않은 마음속에 자래운 신념
설사 절해고도에 놓인다 해도
단 한치의 동요도 모르려니

그런 삶이 아니라
한생을 변함없이
당앞에 깨끗하고 솔직한
진정 아름답고 고결한 삶

아, 내 한생을 그렇게 살리라!

어머니와 아기

문 동 식

10월의
해빛 눈부신 대동강반에서
아장아장 첫걸음마 떼는 아기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웃네

아기의 얼굴에도 곱게 피어나네
방실방실 웃음꽃이
앞에서 손벽치는 어머니얼굴
쳐다보며

무엇이 다르랴
내가 당앞에 전사의 의리 지켜
한가지 일이라도 보탬을 주면
당은 나를 내세워주고
그 믿음에 나도 기뻐서 웃고...

이 나라 사람들의 밝은 웃음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을 따르는
행복속에 피워가는 웃음꽃 아니던가
천만군민은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 결고
정으로 활짝 피는 꽃송이 아니던가

이렇게 한생
백옥같이 깨끗한 아기의 마음
그런 인민을 한품에 다 안고
광풍이 불고 불구름 밀려와도
오직 태양의 빛만을 뿌려주는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원수님과 천만군민
하나의 숨결로 백승을 떨쳐가는
세상에 오직 하나 어머니 우리 당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이어라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육성된 우수한 전위투사들로 당의 기층조직들을 확대강화해나가는 자주적인 당건설방침을 관철하도록 하였다.

항일혁명의 주력을 담당했던 조선인민혁명군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책임진 당건설의 주도적력량으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이 높아지는 가운데 활발히 조직전개된 당건설사업은 무장투쟁을 정치적으로 강력히 뒤받침하는 한편 그에 대한 당적령도와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창골의 작은 집

한 원 희

산넘어 구름넘어
우리 원수님 오시였네
창성에서도 깊은 산골 창골
전화의 나날
어버이수령님 며칠 묵으셨던 농가

깊은 감회 안으시고
원수님 들어서시는 작은 트랙
한없이 뜨거운 시선으로 더듬어보시는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 밥상 하나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도 걸수 없었던
작은 방 작은 바람벽

방금 원썬격멸의 새 명령을 받아안고
전선으로 떠나는 지휘관들을 배워주시려
수령님 잠시 트랙을 나서신듯
조용히 열려져있는 방문

숨엄히도 흐르는 고요속에
옛 싸움의 총포성 실려오는듯
오래도록 발걸음 못 떼시는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그이께선 그려보시였네
이처럼 이름없는 작은 집에서
조국이란 크나큰 집을 지켜주신

수령님의 그 모습

얼마나 많은 사단장들과 군단장들이
수령님을 찾아뵈고
이 작은 집을 떠나갔던가
산악같은 신심 백배천배 받아안고
전선에서 전선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미제침략자들을 쓸어버렸던가

가렬처절한 천리전선을 휘어잡으시고
백전백승을 떨치신 강철의 령장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
못 잊어하시는 **김정은**원수님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홀려홀려 60여년세월
옛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집
창골혁명사적지는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라고
은 세상에 빛내주신 고마운 그 심정

아, 수령님 전승위업으로 찬란한 집이어
또 한분 위대한 천출명장 거룩한 뜻으로
너는 후손만대에 길이 솟아 빛나리라
집이어 창골의 작은 집이어!



정 기 종

1

한손에 철도제모를 벗어든 차일문은 검둥개와 같이 철길을 따라 걷고있었다. 사냥개처럼 앞다리가 쪽 뻗고 털이 부엌부엌한 검둥개는 철길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갔다하며 줄곧 무엇인가 쿵쿵 냄새를 맡으며 갔고 뒤에서는 차일문이 늙은이답게 약간 머리를 짓수그린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썩쓰레한 썩냄새를 머금은 산바람이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날리었다. 철길 양옆에 키높이 자란 코스모스들이 흐느적이며 흰 꽃, 빨간 꽃 그리고 보라색꽃송이들을 열심히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번도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 자신이 정성 들여 심고 가꾼것이건만 지금은 그 향기조차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골똘히 한가지만을 생각하고있었다. 인제는 자기가 늙고 쓸모없이 되어버렸다는 가슴을 ऐ이는듯 한 생각이었다. 오늘 아침 철길대대장이 그를 불러 인제는 철길원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 쉬라고 한것이다.

《이제사 쉴 때도 지났지요. 아직까지 아با이를 그대로 일시킨다고 상부에서 되게 추궁하더구만요. 예예, 벌써 그렇게 했어야 하는건데... 참! 비행사로 복무하는 맏아들이 몇번 모셔가겠다고 왔었다면서요?!...》

철길대대장은 차일문이 입을 열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대며 전화통을 끄당겨 로동지도원(당시)을 찾았다. 해당한 수속을 하게 하려는것이였다.

그 일을 상기하자 다시금 피줄이 툭툭 뛰는듯 했다. 그는 손을 들어 허연 판자노리쪽을 힘주어 문

질렀다. 그러니 다 끝났단 말이지. 40년이나 이 철길에서 일해왔는데 인젠 쓸모가 없단 말이지... 비행사로 복무하는 맏아들한테 가라구? 거기 군용비행장가까이 집을 싸들구 가서 로친네랑 같이 매일 하날만 올려다보며 살라구?!...

가슴은 텅 빈듯 허전해지고 자꾸만 입술이 말라들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있는 철도제모를 주무럭거렸다.

어떻게 되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것은 아니다. 가까운 운봉역장의 말에 의하면 며칠전 관리국 부국장이 정기적인 아래단위 실태료해를 위해 기차로 이곳 철길구간을 지난일이 있다고 한다. 그날 부국장은 여기 운봉-룡대역사이를 지나다가 철길 가까운 골어귀에서 시커먼 연기가 타래쳐오르는것을 발견하였다. 차안의 다른 손님들도 벽작 떠들었다고 한다. 산불이 났는가 해서 창유리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대고 내다보면서...

부국장은 어느 한 간이역에 내리자마자 거기 운봉산기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전화로 알아보았다. 운봉역장이 전화를 받았다. 운봉역장은 그에게 산불이 아니라 이곳 철길대의 철길원 차일문이 자체로 만든 침목을 기름에 찌내기 위해 불을 피운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관리국 부국장은 한 철길원이 자체로 침목을 만든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듯 했다.

침목을 만들려면 술한 통나무와 기름이 필요한데 그런건 어디서 나는가고 하더니 차일문이란 어떤 사람인가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한다. 운봉역장이 그에 대하여 아는것 말해주자 그는 나라에 보

램을 주려는 그 마음은 기특하나 하필이면 판리국적으로 제일 나이많은 철길원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가, 그러다가 산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40년세월을 철길에 바쳐온 그의 한생이 그을음투성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럴바엔 제때에 집에 들어보내는것이 좋겠다, 동무넌 왜 자기 사람들을 아꼈을 모르는가 하면서 애꿎은 운봉역장을 한바탕 체조시켰다는것이다.

중년나이에 말이 좀 다사한편인 운봉역장은 차일문에게 그 일을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부국장동지도 팬찮습디다. 나이든분을 아직까지 일시킨다고 소리는 치더라만... 그 속마음이야 정말 고맙지요.》

그러자 차일문은 쓰겁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도 고맙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적당히 반주를 했겠으니 말일세.》

일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것이다. 자체로 침묵을 만들어 적으나마 나라의 부담을 덜려고 했었는데 그만 일손을 놓는 빌미가 될줄이야... 사실 그 하나하나의 침묵감을 얻기 위해 걸음인들 얼마나 많이 걸었던가. 산림감독원과 토론하고 화목림지를 살살이 뒤지기를 그 몇번... 먼 체벌장에 가서 벌목공들과 같이 나무를 베고 끌어내리다가 허리를 상하기도 했다. 판리국 부국장이 산불이 났나 해서 크게 놀랐다는 그 오봉산기슭에는 벌써 술한 침묵감들을 쌓아 말리고있고...

한쪽엔 기름가마까지 걸어놓았다. 한때 군대에서 쓰던 야전취사용가마였다. 귀가 좀 떨어진것을 농장축산반에서 물려쓰다가 약간 금이 갔다고 해서 파철로 수매했다. 차일문이 그것을 술한 파철을 주고 바꿔왔다. 그다음 오봉산기슭에 부뚜막을 쌓고 군데군데 세멘트땀질을 한 그 쇠가마를 걸었다. 골개물이 소리쳐내리는 너럭바위밑엔 오두막까지 하나 지어놓았다.

철길소대에 갓 배치되어온 경호라는 녀석은 그것을 그저 오두막이라 하지 않고 영어로 《블루하우스》(푸른 집)라고 불렀다. 으시대기 좋아하는 녀석이었다.

차일문은 갑자기 그 경호가 보고싶어졌다. 처음 배치되어왔을 때엔 종일 우거지상을 하고있더니... 여기서 무슨 보람과 영예를 찾겠는가 하면서 《어쨌든 여긴 내가 있을데가 아니예요. 난 다른 기차를 타어야 했던 말이에요!》라고 했었다. 불평불만의 소리도 꼭 먹을 부리며 지절여대는 녀석, 그녀석이 이제 차일문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간다는것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가?...

별안간 그는 흠칫했다. 저 멀리 강파로운 벼랑

굽이에서 기적소리가 울려온것이다. 그는 급히 검등개를 소리쳐불렀다. 어느새 손에 들고있던 철도모자도 썼다.

기차가 달려오고있었다. 두줄기 레루가 움썰거리고 무엇인가 똑—똑— 하는 소리가 앞질러온다. 이어 레루에 쓸리는 마찰음과 쾅!— 하는 바람소리와 더불어 무쇠준마의 거센 진동이 땅을 뒤흔들고 있다. 그는 허리를 꼴끗이 펴고 섰다. 가슴이 뻥뻥해졌다. 이 철길을 따라 제대배낭을 메고오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인생은 멀리도 왔구나!— 하는 느낌이 별로 새삼스러웠다.

그때 그는 갓 스물을 넘긴 젊은이였었다. 키가 흰칠하고 어깨가 딱 바라진것이 어떤 일감이나 책임도 수월히 결머질상싶었다. 물날은 군복앞가슴에서는 여러개의 훈장과 메달이 걸그럭소리를 내었다. 그 모든것이 그가 세운 공적과 위훈을 무게있게 강조해주었다.

그러나 그의 문건을 간깐히 훑어본 로동과장은 돋보기너머로 그를 지시지시 훑쳐보더니 철길감시원을 하지 않겠느냐고 점잖게 권고했다. 어느 한 철도교차점에서 기차가 가고올 때마다 차단봉을 들었다내렸다 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차일문은 커다란 주먹을 불끈 그러쥐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자기의 격한 심정을 그대로 기관포처럼 막 내쏘려고 했다. 그러나 질겁한 로동과장이 먼저 손에 들고있던 종이장을 훌 밀어던졌다.

《여기 뭐라고 썼는지... 동무, 알기나 하오? 알기나 하구 그러나 말이요?》

그것은 병원도장이 찍힌 의학적감정서였다. 많은 의사들이 급히 제멋대로 막 수표를 해갈긴 종이장... 차일문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읽어보았다. 읽어갈수록 두볼이 푸들거렸고 숨소리조차 거칠어졌다. 물론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있었지만 현실은 너무도 비참한것이였다. 비로소 그는 현대의학이 자기의 로동능력을 아니, 차일문 자기의 몸값을 얼마나 험값으로 매겨놓았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는 불구자나 다름없는 인간이였다.

그는 맥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군복앞가슴에 달았던 훈장과 메달부터 천천히 뜯어내었다. 인제는 그것도 그를 도울수 없다. 그는 그것들을 안주머니에 넣어놓고 낮게 속삭이였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데서건... 그저 남보기 부끄럽지 않게만 일할수 있게...》

그때부터 그는 철길원으로 일하였다. 실은 그 일도 험치 않았다. 그는 자기 말은 구간을 돌아볼 때마다 자주 걸음을 멈추고 식은땀을 훑치거나 오른쪽허벅지를 힘껏 오래도록 주무르지 않으면 안되

었다.

전후복구건설로 온 나라가 들끓던 때였다. 신문과 방송들에서는 자주 옛 전우들의 이름이 소개되곤 했다. 천리마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그의 전우들이 온 나라가 다 아는 로력혁신자, 영웅으로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공장, 기업소를 책임진 일군이 되었다. 그러나 차일문만은 여전히 허름한 병사용배낭을 메고 변함없이 이 철길을 걸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걸었다. 그에게는 바빠 서둘러야 할 일이 별로 없었다. 급히 마중가야 할 아름다운 기쁨도 별로 없었다. 의무와 양심이 떠미는 철길만이 그의 눈앞에 곧추 뻗어있었을뿐...

그러다가 별안간 모든것이 달라졌다. 20년전 어느 이른 봄날의 일이었다. 날이 저문지 퍼그나 지났을 때였다. 그날도 차일문은 전혀 서둘지 않고 천천히 상호등을 들고 철길로반을 살피가며 운봉역 구내에까지 들어섰다. 한순간 무심결에 몇개의 레루못대가리가 솟아오른것을 발견하자 걸음을 멈추었다. 오래전에 고였던 깔판이 삭아없어진것 같았다. 그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상호등을 내려놓고 배낭에서 손때묻은 망치와 깔판으로 쓰려고 준비해둔 다이아조각들을 꺼내었다. 너무도 손에 익은 일이었다. 잠시후 깔판을 새로 끼운 그는 대망치로 레루못을 힘껏 때려박기 시작했다.

땡-땡-땡!- 레루장을 울리는 망치질소리가 싸늘한 밤의 고요를 깨치며 역구내를 흔들었다. 그러자 저쪽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달려오며 억눌린 소리로 부르짖었다.

《게 누구요?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소?》

차일문은 언짢았다. 어떤 정신빠진 녀석이람, 제길!...

또 때렸다. 땡- 땡!- 갑자기 허리를 펴지 않을수 없었다. 어떤 낯모를 사람이 그의 팔목을 붙잡았던것이다.

《여보! 그만하라는 소리 못 들었소?》

《?...》

차일문은 어리둥절했다. 철길원이 제 할 일을 하고있는데 무슨 참견인가? 내가 무슨 폭탄뢰관이라든가 때렸단 말인가?... 다음순간 그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와 마주선 사람도 철도제복차림이었는데 첫눈에도 간부라는것이 알렸다.

《동무!》 그 사람이 씨근거렸다. 《동문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구 이 소동이요?》

《저... 난 레루못대가리가 솟아올랐기에...》

《철길원이요?》

《예.》

《참, 한심들 하군! 어서 돌아가오, 어서...》

그는 권가성을 가진 관리국의 처장이었다.

차일문은 영문을 알수 없었다.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도의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다가 방금전에야 여기 오셨다는것, 도의 일군들이 숙소를 마련해드리려 했으나 그이께서는 종시 그것을 마다하고 불편한 열차에서 쉬고계신다는것을 더욱 알수가 없었다.

그는 허둥거리며 벌려놓은것들을 손으로 주어담기 시작했다. 권처장도 그를 도왔다.

바로 그때였다. 등뒤에서 울리는 저력있는 음성에 그들은 일시에 굳어졌다.

《수고합니다. 헌데 이 밤중에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가슴을 찢른 예감과 타는듯 한 기대로 하여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아니, 먼저 심장이 후두두! 했다.

먼저 관리국처장이 허리를 꼳꼳이 펴며 벌어진 일에 대해 말씀드렸다. 뒤늦게야 차일문은 그분이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심을 알고 급히 머리숙여 인사를 올렸다.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께서 웃으며 손을 내미시었다.

《아, 철길원동무입니까? 그런데 왜 하던 일을 마저 하지 않습니까?》

《인젠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다?》 그이께서 다시 웃으시었다. 《나도 다 들었습니다, 처장동무가 야단치던걸 말입니다. 아마 내가 휴식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런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괜한 생각입니다. 나는 원래 정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쥐죽은듯 조용해야 사색이 잘된다는 말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들끓는 생활을 떠나서는 그 어떤 새로운것도 훌륭 한것도 창조할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땅바닥에 놓여있는 상호등을 들어 방금 차일문이 때려박던 레루못들을 살펴보시었다.

《철길원동무는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 차일문입니다.》

《철길원을 하는지 몇해나 됩니까?》

《예, 한 20년 돼옵니다.》

《20년이라... 그러니 전쟁이 끝난 이듬해부터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철길원을 하게 됐습니까?》

《예, 제대되어 배치받은 곳이...》

《전쟁때 부상당한 일때문은 아닙니까?》

《예?!...》

차일문은 놀랐다. 적기의 12.7밀리기총탄에 중상을 당하고 병원에서 오랜 치료끝에 감정제대되던일이 떠올랐다. 감정서에 마구 휘갈긴 의사선생들의 수표... 그런데 어떻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 일까지 다 아시는것일가?...

차일문이 머뭇거리자 그이께서 다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벌써 첫눈에 한쪽다리를 심하게 끄는것이 알렸 습니다. 총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하게 다친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좀… 하지만 인젠 다 나았습 니다.》

《음—》

그이께서는 잠시 차일문을 눈여겨보시더니 그의 한팔을 다정히 잡으시였다.

《마침 잘 만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래된 철 길의 로반상대며 철길보수와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 려 했었는데… 자, 나랑 같이 갑시다.》

《예?》

《갑시다, 저기 내 방으로. 처장동무도 같 이…》

그이께서 상호등을 들고 차일문을 이끄시였다. 차일문이 허둥거리자 좀더 힘주어 잡으시였다. 상 호등의 크고 둥근 불빛이 그의 앞길을 밝히며 어둠 을 밀어내었다.

차일문은 마치 구름속을 떠가는듯 했다. 자기의 발이 땅에 닿는지, 떠가는지 미처 의식하지 못한채 꿈결에서처럼 열차에까지 올랐다.

열차칸은 조용했다. 탁상등의 은은한 담황색불 빛이 그이께서 보시던 책들과 서류들 그리고 연두 색돋을문양이 새겨진 소파주위를 포근히 감싸고있 었다.

그이께서는 차일문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 시고 수송통과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의 논하시였다. 관리국 처장보다도 한 철길원래 불과 한 차일문에게 더 많이 묻곤 하시였다. 나중엔 그 의 가정형편이며 전쟁때 어느 부대에서 어떤 전투 들에 참가했는가 하는것까지 알아보시였다.

차일문이 전쟁때 공병으로서 락동강에까지 갔다 온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러니 전쟁때엔 전선길을 열며 싸웠구 오늘 은 또 나라의 동맥을 지켜가고있단 말이지요. 좋 은 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최전선에서 공병전사 의 자세로 변함없이 꾸준히 일하고있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차일문은 무엇인가 자기의 가슴을 불같이 지저대 는것을 느꼈다. 눈곱이 저려나고 숨이 차올랐다. 그는 흥분으로 검붉어진 볼을 후들후들 떨고있었 다. 무슨 말씀인들 울려야겠으나 북받치는 격정에 입을 열수가 없었다.

그이께서 또 말씀을 이으시였다.

《사실 철길원이란 별로 남의 눈에 띄지도 않고

소리치며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말없이, 사시 장철 변함없이 실농군이 논밭을 다루듯 꾸준히 일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우리의 열차들이 정 시무사고로 기적소리높이 달리는것을 볼 때마다 거 기에 바쳐진 철길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생각하 군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 정말…》

그는 더 말씀드릴수 없었다. 목이 꼭 메였다. 눈 곱이 저리다못해 아프게 죄어들었다. 그러는 그에 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배낭을 메워주 시였다.

《언제든 나라의 동맥을 지켜서있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시도 멎지 않고 또 멎을수도 없는 나 라의 대동맥입니다. 이 중요한 대동맥의 한 구간을 초소로 정하고있으니 공지를 가지고 사십시오. 여 기서 한생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차일문은 이 철길의 참된 주인이 되 고 초병이 되였다. 어제도 해왔고 오늘도 계속하는 일이건만 전혀 새로운 눈으로 철길을 살피고 돌을 굴리고 물도랑을 파냈다. 비바람 세차던 어느날엔 가는 철길옆의 아름드리 황철나무가 기울어지는것 을 발견하고 한달음에 달려가 어깨를 들이밀었다. 북형열차가 달려오고있었던것이다. 창살같은 비줄 기속에서 아름드리거목이 그의 어깨죽지를 사정없이 짓누르고 뼈마디들이 우직우직하며 신음소리를 토했다. 그러나 기차가 귀전을 스치며 지나갈 때까 지 그는 버텼었다. 그리고는 그만 그 나무에 깔 려 쓰러지고말았다. 사람들이 실신한 그를 발견하 고 병원에 실어간것은 다음날 아침때였다.

그는 자기의 한생은 물론 먼 래일까지 이 철길과 떼여놓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침묵을 자체로 만 들것을 결심하고 경호녀석을 구슬려 어느 한 채벌 장에 갔을 때였다. 벌목공들을 도와 나무를 끌어내 리다가 몇해전에 심은 분비나무가 상한것을 발견하 고 물기있는 흙으로 뽕뽕 싸매주었다. 그것을 본 경호녀석이 입을 비쭉거렸다.

《그 나무에다 차일문이라는 패쪽까지 달아놓지 요?》

《그건 왜?》

《그래야 한 50년후에 가서 그 나무를 찾아내여 또 침묵을 만들게 아닙니까.》

그가 하는 수작인즉 명백했다. 신세도 지지 못할 일을 무엇때문에 그리 극성이나는 편잔이었다. 차 일문은 아무말없이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서야 허 리를 폈다.

《경호는 진짜 다른 기차를 탔어야 할 사람이였 나보군.》

《예?!》

《기차를 잡아타려면 제때에 뛰어내릴줄도 알아야 해. 내리지는 않구 아부재기만 치는건 못난이들이나 할짓이야.》

이렇게 걸어난 한생이었다.

이 철길을 따라 맨 먼저 맏아들이 군대에 나가더니 이어 둘째, 셋째 역시 군복을 입고 떠나갔고 얼마전엔 막내딸이 철차차장이 되었다. 다들 떠나가고 다시 오지 않는줄만 알았는데... 어이하랴. 이제 는 그자신이 이 철길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는 자기를 향해 질풍같이 달려오던 기차가 언제 그를 지나 멀리로 가버렸는지 알지 못했다. 어느덧 레루를 타고 쿵쿵 울려오던 차바퀴소리도 멀리 아득히 사라져가고 사위는 다시 조용해졌다.

2

앞서가던 검둥개가 달려오더니 무엇때문인지 그의 바지가랭이를 물어당기며 끽끽거렸다. 차일문이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자 검둥개는 꼬리를 젓더니 갑자기 저 앞쪽으로 휩 달려갔다.

비로소 차일문은 그 까닭을 알았다. 멀지 않은 산자드락의 철다리목에 후줄근해 서있는 경호를 발견한것이다. 검둥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치며 땀을 흘린 건 너석은 성가신듯 발로 밀어던질뿐이었다. 차일문은 마음이 언짢았다. 너석이 또 무슨 재물을 훔쳤는가? 아니면 오늘도 철길대에 가서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떼질을 하다가 통을 맞고 온것일까?... 아니, 아니다. 지금 경호가 여기 나와있는 까닭을 아는것이 차일문뿐이다. 이제 얼마후 복으로 들어가는 기차에 그가 반한 처녀차장이 타고있는것이다.

경호가 처음 철길소대에 배치되어 일하던 어느날이었다. 그때 저 철다리목에서 로반작업을 하는데 그 처녀차장이 타고있는 기차가 지나갔었다. 웃동을 벗어붙이고 다들 한바탕 땀을 흘리고있었다. 경호는 무심히 철길옆에 비켜서서 수건으로 목을 훔치던 참이었다. 그런데 맨 나중의 차장차승강대에 나와 서있는 처녀와 눈길이 마주쳤다. 보통키에 살결이 희고 목이 상큼한 처녀였다. 그 처녀가 손을 약간 쳐들며 상긋 웃어주었다. 분명 그를 향해, 바로 경호를 향해 웃음을 보낸듯 했다.

경호는 놀랐다.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보기까지 했다. 그는 얼마후에야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기우뚱거렸다. 정말 나를 향해 웃어준걸까? 그런데 손을 쳐들어준건 또 뭐고?... 참다못해 그는 물었다.

《아바이, 이자 그 처녀가 왜 우리한테 웃어보였을까요?》

차일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해주었다.

《같은 철도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더러 수고한다구 인사하는거겠지.》

《그래요? 헌데 아바이한테 손까지 쳐들어주는데...》

《뭐 나한테 그랬잖나.》 차일문은 웃었다. 《경호한테 인사했겠지. 남자야 미남자가 아닌가.》

경호는 웃지 않았다. 여전히 뜨아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은연중 그 차시간을 기다리곤 했다. 그 시간이 오면 우정이라도 일감을 만들어 철길에 나와 서있곤 했다. 인제는 경호쪽에서 먼저 손을 쳐들었고 목이 상큼한 처녀차장은 고개를 까딱이며 맞받아 손을 저으며 반갑게 웃어주는것이례사로운 일로 되었다.

경호는 달라져갔다. 매일같이 철도제복을 깨끗이 손질해입었고 걸어치웠던 영어공부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번은 무언의 이 상봉을 어긴 일이 있었다. 얼마전 경호는 차일문을 도와 기름에 찌낸 침목을 나르고있었다. 그러다보니 온통 시꺼멓게 기름때막질을 하게 되었다. 그때 차일문은 뒤늦게야 경호가 기다리는 기차시간이 되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너무 늦었었다. 기름얼룩은 쉬이 지워지지도 않는다. 경호는 철길로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나가볼걸 그랬어.》 하고 차일문이 말했다. 《그게 뭐 어드레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그런 모양을 하고 손을 쳐들어주면 얼마나 재미나서 웃어대겠나!》

《뭐 비웃진 않구요?》

《비웃다니, 일 잘하는 총각을 비웃어? 오히려 넥타이를 매고 때없이 구두코를 반짝거리는것보단 그런걸 더 좋아해!》

《흥! 아바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지, 알아두 잘 알아!》

차일문은 더이상 말하지 않았다. 일을 끝내고 돌아갈 때에조차 그들은 묵묵히 철길량옆을 따라 걷기만 했다. 늙은이는 사색하고 젊은이는 꿈을 꾸며...

그런데 오늘 어깨가 축 처진 경호의 저 꼴은 심상치 않다. 차일문은 그쪽으로 스적스적 걸어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서도록 경호는 말 한마디 없이 입귀만 바르르 떨고있었다. 입언저리에 다문다문 널린 주근깨들도 막 살아움직이는듯 했다.

《경호, 왜 그래? 어째 별레집은 상이 됐어?》

《아바이! 인젠 일을 그만둔다면서요?》

차일문은 흠칫했다. 잠시 눈시울만 실룩거렸다.

《그러니 사실이었군요. 그런걸 난!...》 경호는

피가 날 지경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아바이, 그렇게 쉽사리 버릴걸 일판은 왜 벌려놔댔어요? 폐유를 얻어온다, 송탄유를 만든다 하면서 그리두 애쓰더니... 산판에서 침목감을 끌어내릴 때 아바인 말했지요? 우리 철길원들은 비록 소리치며 보란듯이 일하진 않아두 나라의 대동맥을 지키는 초병들이라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구... 그러던 아바이가 오늘은 왜 일을 그만둔다는겁니까, 예? 힘에 부치면 우리가 있지 않나요.》

차일문은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가슴속으로 흘러드는것을 느꼈다. 고마웠다, 젊은 녀석이... 하름송 아지마냥 그저 뽀뽀기나 하고 골반기질이나 하는줄 알았더니... 그는 잠자코 기다렸다. 어떤 험한 소리든 다 고맙게 들을것 같았다.

《섭섭해요, 아바이! 그렇게 힘들게 구해놓은 침목감들까지 다 넘겨주구... 어쩔 그럴수 있어요?》

가늘게 꼬프러지던 차일문의 두눈에서 대뜸 반디 불같은것이 편뜩이었다.

《넘겨주다니?》

《그럼 모르구있었어요?... 그 침목감들을 다 실어갔어요. 운봉역장이 우에 제기해서 허락을 받았으면서.》

《우에? 누구한테?》

《관리국 부국장한테래요.》

《?!...》

별안간 명치끝이 쿵 쭈시고 목에 경련이 이는듯했다. 침목감을 실어가다니, 그럴수 있는가. 나이든 사람은 집에 들여보낸다치구 그 일이야 왜 못하게 한단 말인가?... 언제부터 목재를 탐내던 운봉역장이다. 자기네 화물창고중축에 좀 돌려쓰자고 몇번이나 찾아왔었다. 그러던 그가 때를 만났다고 사정도 잘 모르는 관리국 부국장에게 앞질러 말해둔 모양이다.

별안간 두주먹을 부르쥐고 그는 달려갔다. 검둥개가 신바람이 나서 그를 앞질러갔다. 경호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저 구배진 길만 돌면 끌어귀의 너럭바위기슭에 더미더미 쌓아놓은 침목감들을 볼수 있다. 그리도 힘들게 구해온 것들을 아무러면 다 실어갔을가? 여라문대만 달라구 했었는데?...

침목감들은 없었다. 한대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실어갔다. 골개물소리만 무슨 푸념처럼 주절거릴뿐... 품들여 지은 오두막도 별스레 쓸쓸해보였다. 경호의 《블루하우스》!... 그새 끌어귀의 시적인 그 푸른 집마저 누렇게 변해버린줄도 모르고 있었다.

차일문은 야전가마를 걸어놓은 부뚜막아궁이앞에

쭈그리고앉았다.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썬레기를 딸아물고 아궁이안에서 식어가는 채무지를 헤집었다. 바람이 불면서 채속의 불티들이 팍- 팍- 모지름쓰며 빛을 발하고는 스러져갔다.

경호가 다가왔다.

《아바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좀더 뽕통을 부렸어야 하는건데... 하지만 아바이, 보라고. 이게 다 우리 하는 일을 허술히 보는게 아니구 뭐예요, 예?》 세찬 흥분에 그의 목소리는 갈린듯 했다.

《그래도 아바인 밤낮 나만 욕을 했지요, 비닐봉선같이 들뜬 녀석이라면서!》

경호는 두손을 맞잡고 손가락마디들을 우드득 꺾더니 뺨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어델 가?》 차일문이 소리쳤다.

《관리국에요! 가서 부국장동질 만나겠어요.》

《가만, 가만 좀 있어!》

차일문의 어둡던 두눈에 희미한 광채가 얼른거렸다. 그는 버릇처럼 허연 관자노리쪽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래, 그 말이 옳다. 찾아가 들이대야지. 침목 만드는 일이야 왜 그만둔단 말인가. 그 사람들도 사정을 알면야 그러겠는가?...

기적소리가 울렸다. 집을 만재한 화물렬차가 북으로 달리고있다. 매일같이 경호가 기다리던 기차, 헌데 오늘 저녀석은 두번째로 마중나가지 못했다. (그 애가 섭섭해하겠군. ...)

그는 절반도 채 타지 않은 마라초를 신발뒤축에 비벼끄고 시계를 보았다. 가까운 운봉역에 멎는 유일한 남행렬차는 이제 30분후에 있다. 서둘러야 했다. 그 차를 놓치면 장밤 애꿎은 담배와 씨름하며 속절없이 속을 태우는 수밖에 없다.

《경호, 관리국엔 내가 가지. 그제 더 나을거야. 그대신 자넌 소대장에게 내가 여사여사해서 국에 갔다구 말해주게.》

경호는 머리만 끄덕이었다.

차일문은 다시 철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검둥개가 또 신이 났다. 차일문은 오직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발을 힘겹게 놀리며 걸음마다 혈색혈색 토막숨을 내뿜군 했다.

마침내 그가 렬차에 올랐을 때 그의 몸은 온통 땀에 젖어있었다. 오래전부터 잘 아는 렬객전무가 그를 보고 입을 딱 벌렸다.

《아니, 아바이, 어델 가실려구 그렇게 급히?...》

《관리국에.》

《그러니 아바이두 회의에?》

《회의는 무슨...》

렬객전무는 그가 후들거리는 손으로 담배를 딸아 물자 제껴 라이타를 켜주었다.

《참, 장림철길공사에 나가있던 관리국간부들도 급히 불리워가는데… 국에서 무슨 비상회의가 있는가부지요?》

차일문은 아무 의미없이 머리를 저었다. 땀금땀금 마라초를 빨면서 줄곧 한가지 생각만을 거듭했다. 이제 가서 무슨 말로 어떻게 해야 그들을 리해 시키겠는가 하는 생각뿐… 그는 지금 자기가 가는 그곳에서 얼마나 벅찬 사변이 그를 기다리고있는지 알지 못했고 또 알수도 없었다.

3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도안의 교통운수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가 끝난것은 저녁무렵이었다. 아침부터 도안의 당 및 여러 경제부문 사업을 지도하신 그이이시였다. 일정에 없던 두차례의 협의회까지 필한 뒤여서 일군들은 한시바삐 그이를 숙소로 모시려고 서둘렀다. 이제 두시간후에는 또 기차로 멀고먼 수도에까지 가야 한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어느 한 나라의 당대표단을 만나주시기로 일정이 짜져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 현관문을 나서시었을 때는 벌써 먼 산봉우리너머로 해가 기울고있었다. 불타는 석양이 창유리에서 불길처럼 번져가며 어룡거렸다. 그 시뻔건 반사광을 배경으로 계단을 내리시던 그이께서 한순간 걸음을 멈추시였다. 철도제복을 입은 한사람이 청사정문으로 들어서려다가 주춤거리는것을 띄어보신때문이였다.

그이께서는 뒤따르는 일군들에게 그가 누구인가고 물으시였다. 한쪽다리를 무겁게 끄는 그의 류다른 걸음씨는 물론 주름깊은 그 얼굴모습이 눈에 익다는 느낌이었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서로 얼굴만 마주볼뿐이었다. 그이께서는 기억의 갈피를 재빨리 더듬다가 가볍게 미소를 그리시였다.

《그를 불러주시오,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이께서는 이곳 북방의 한 산간역에서 잠시 만났던 한 철길원의 이름까지 끝내 상기해내시였다.

(그래, 차일문이라고 했었지. 전쟁때 상한 다리를 무겁게 끌던 사람…)

그이의 부르심을 받은 차일문은 모자를 벗어든채 황황히 달려오더니 계단아래에서 못박힌듯 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감격의 눈물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마디굵은 손가락들은 속절없이 철도제모만 주무럭거리고있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이의 말씀에 그는 눈곱이 쿡 쭈시는듯 했다. 그처럼 많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격동되었던것이다. 그는 그이께서 따듯이 손잡아주실 때에조차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 검붉어진 두볼만 푸들거렸다.

《자, 저기 가서 좀 앉읍시다.》 그이께서는 그를 정원못가의 장의자쪽으로 이끄시였다. 《인젠 환갑도 썩 지났겠는데 아직 철길원을 합니까?》

《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고 그는 또 한번 목구멍에 그득 차오르는것을 삼켰다. 《다들 자꾸 쉬라고 하는걸 우기고 일해왔는데 인젠 더이상 버틸것 같지 못…》

그 끝맺지 못한 말의 여운에는 무엇인가 아프도록 가슴을 치는 울림이 있었다. 그이께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였다. 하여 차일문이 일을 그만두게 된 사정을 끝까지 세세히 들어주시였다.

《그러니 여기 관리국에 수속하러 왔습니까?》

차일문은 두손을 모아잡고 말을 더듬거렸다.

《실은… 다른 일때문에 왔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 비록 철도제복은 벗는다 해도 아직 오룩이 성성한데 왜 그냥 놀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침묵만드는 일만이라도 계속하게 해달라고 제기할 생각으루…》

《침묵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사실 그 일을 제가 시작한건 몇해전 이맘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도를 다녀가신 후였습니다. 그날 철길을 순회하던 저는 제가 맡은 운봉선철길에서 수명이 다된 침목 몇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만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습니다. 글썽 어버이수령님께서 오가시는 철길에 그런 불비한 침목을 그대로 깔고있었으니 제가 무슨 당원이며 철길원이겠습니까. 그날 얼마나 가슴이 조여들던지… 하지만 정작 몇정의 침목을 보내달라고 우에 제기하자니 마음에 걸렸습니다. 산을 끼고사는 제가 몇정의 침목때문에 나라에 손을 내밀다니… 정말 못할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체로 만들어볼 생각을 했는데… 정작 시작하구보니 정 힘든것도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일판을 크게 벌렸는데 그만에야 일을 그만두라는 지시가 내리구 모아둔 침목감까지 다 실어갔길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침목감까지 다 실어갔다?!…》

그이께서 저으기 놀라신 어조로 이렇게 뇌이시자 차일문은 몹시 당황해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사람들은 아마 절 위 해주느라구 그랬을것입니다, 관리국적으로 제일 나이 많은 철길원에게 그런 험한 일까지 시킬수 없어서... 그 마음은 고마우나 제가 그 일까지 놓는다면 제게 뭐가 남겠습니까.》

그이께서는 먼길을 걸어온 그의 얼굴에 올라있는 재빛의 먼지며 커다란 주먹우의 채 지우지 못한 송탄유자국을 이윽도록 지켜보시었다.

늙은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것은 늙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이 철길원에게서 가장 중요한것은 침묵이다. 철길을 받드는 침묵, 거기에 그의 보람이 있고 행복도 희망도 있다.

그이께서는 차일문의 험한 손우에 자신의 손을 얹으시었다.

늙기는 했어도 여전히 크고 탄탄한 손! 무엇이든 틀어쥐면 놓지 않을 손이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한사코 이 손에서 일을 놓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생 그가 거머쥐고온 보람과 긍지를, 기쁨과 희망마저 놓게 하려고 한다. 왜? 무슨 리유로? 진실로 늙은 철길원을 위해주려는 생각에서?...

《그런즉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청을 드리러 왔다 그 말입니까?》

그이께서 또 물으시었다.

《하지만 나라에선 일할수 있는 나이를 법으로 정해놓고있지 않습니까?》

《웁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지만 전 이 고마운 제도를 마련해준 그 은덕에 보답하구싶어서, 육신을 놀리는 한 다문 얼마라두 보탬을 하구싶어 그럽니다.》

《음—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해당 일군들에게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니, 그 말은 제가 하려던것이였습니다. 나는 오늘 철길원아바이한테서 큰 고무를 받았습시다. 한생 변함없이 당을 받들어온 그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고맙습시다.》

《아니, 무슨 말씀올. 저같은게 다 뭐라구...》 차일문은 숫구쳐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어깨를 떨더니 마침내 그이앞에 넘적 엎드리려고 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 인사를 받아주...》

《아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그이께서 급히 그를 일으키시었다. 다정한 손길로 그의 거울진 두손을 뜨겁게 그리고 힘껏 오래도록 잡아주시었다.

...땅거미가 졌다. 먼 산봉우리를 불태우던 석양도 스러진지 오랜듯 하늘에서는 술한 별들이 파랑

게 눈뜨기 시작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히 정원의 못가를 거닐고 계시었다. 규칙적인 발걸음소리, 잠시 멎다가는 또 무겁게 이어지는 발걸음소리... 이윽고 그이께서는 장의자걸로 오시어 철도부문 일군들을 둘러보시었다. 그들가운데엔 중년나이에 벌써 대머리지기 시작한 어제날의 처장, 오늘의 관리국 부국장도 있었다. 그자신이 차일문을 철길대에서 내보내게 하고 산불을 구실로 침묵만드는 일까지 못하게 했었지만 정작 본인이 나타났을 때엔 누군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마침내 그이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저 철길원동문 전쟁때 공병이였습니다. 늘 지뢰를 해제하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으며 락동강까지 갔다왔습니다. 전후엔 전쟁때 상한 다리때문에 감정제대되자 이 철길에 와서 40여년동안이나 철길원으로 일했습니다. 그야말로 철길우의 한 침묵과 같이 한생을 다 바쳐 당을 받들었지만...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은 그와 한번 마주앉아보지도 않고 나이를 구실로 그를 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한생의 공로 같은건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어는 그가 애써 모아놓은 침묵감까지 다 실어가면서 인젠 나이도 많은데 집에 들어가 편히 쉬시오! 라는 말로 그의 진정을 모독하고 상처를 입혔습시다.》

그이의 음성엔 참을길 없는 분노의 울림이 있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이 세상 재부를 다 안겨주어도 아깝지 않을 저 훌륭한 당원의 마음에 상처를 내다니!... 누가 그렇게 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어데선가 우릉 우르릉!— 하는 먼 우뢰소리가 구울러왔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백양나무우듬지들에서 마른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져내렸다.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심각한 교훈을!》

권가 성을 가진 관리국 부국장이 한발 앞으로 나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이제 침묵감들을 싣고가서 그한테 잘못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힘껏 돕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이윽고 음성을 낮추어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그렇게 해주시오. 그러되 언제 어느때나 잊지 마시오, 우리 일군들은 우리 가까이에서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묵묵히 일하며 한생 변함없이 당을 받드는 저 로병들을 존경하고 아꼈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중요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차시간이 다되었다. 끝내 그이께서는 숙소에 들려보시지 못하고 역홀에 나가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분망하신 그이의 하루였다. 그러나 이 하루동안 그이의 인상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것은 이곳 철길대의 수수한 로병이었다. 열차가 역구내에 들어오고 다시 기적소리도 높이 차바퀴들이 굴러가기 시작할 때까지 그이께서는 우리 로병들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할수 있을가 하는 하나의 생각만을 계속하시였다. 그 깊고도 뜨거운 사색이 이제 우리 당과 조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로병대회에로 이어지리라것을 아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4

격동적인 사변들로 충만된 날과 달들이 흘러갔다. 실패와 좌절, 위협과 공갈, 민족간, 종족간의 류혈적분쟁... 조선에서는 가증되는 미제의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여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다.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싸우는 조선을 지켜보고있었다.

이른 봄날... 한밤을 꼬박기 새우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이상한 느낌에 시계를 보시였다. 어느새 벌써?... 6시 25분이다. 새날, 새아침이 시작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시였다. 불그레한 해빛의 홍수가 쓸어들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분주히 재잘거렸다. 일시에 짹-악 날아오르고 흩어지기도 했다. 즐거운 분주랑, 무심한 희열...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고도의 동원상태에 있다. 전군이 진지를 차지하고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비행기들은 활주로에, 어뢰정들은 돌격침로에 들어섰다. 로동자들은 불꽃튀는 생산전투에 들어갔고 150만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멀리 대동로쪽으로 달리는 대열차들을 바라보시였다. 맨앞의 지휘차에는 붉은기와 기관총을 걸어놓고 칼끝같은 시선을 날리는 인민군지휘관이 조각상처럼 서있고 그뒤로는 병사들이 철갑모를 눌러쓰고 차에 앉아 준전시상태에 들어선 수도의 거리를 질주해가고있다. 해빛에 번쩍이는 군용차의 차창들...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이 길 좌우에서 병사들에게 손저어주고있다.

그때 책임서기가 소리없이 들어와 갖가지 서류들을 탁자에 놓아드렸다.

《무슨 새 소식이 있소?》

《예, 우리의 준전시상태선포에 대한 세계각국의 반향자료들이 대부분이고...》

《그건 다 아는 자료들이구...》

《그다음 운봉선철길대의 한 전제로병이 올린 편지와...》

책임서기는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이께서 무척 반가와하시며 탁앞으로 오셨던것이다.

《차일문이란 사람이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이께서는 편지부터 받아들고 재빨리 읽어내려가시였다. 책임서기가 언제 나갔는지도 아시지 못했다. 정성들여 박아쓴 편지의 구절구절들이 그대로 차일문의 석성한 목소리가 되어 귀전에 울려오는듯 느껴지시였다.

차일문은 편지에서 지금 온 나라가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고있는 때에 자신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고자 올해에 들어와 벌써 200정의 침목을 자체로 만들어 낚은것과 교체했다고 썼다.

침목 200정!... 그이께서는 그 수자밑에 진하게 밑줄을 그으시였다. 환갑을 훨씬 넘긴 한 로병이 침목 200정을 자체로 만들어 철길에 깔아놓았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는 앞으로 몇해어간에 제가 맡은 구간의 침목을 모두 자체로 만든 새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제심장이 뛰고있는 한 어느 한 침목도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철길소대전원이 이 일에 달라붙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허리치는 눈속을 헤쳐가며 통나무를 메어나르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불타는 락동강에서 배떼다리를 놓아 부대의 공격로를 열어가던 옛 전우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

가슴이 후더우시였다. 자신뿐만아니라 함께 일하는 젊은이들까지 화선의 영웅전사들처럼 살며 싸우도록 이끌어주는 로병, 이런 마음들이 침목처럼 깔려있어 우리 혁명의 기관차는 단 한치의 드립도 없이 오직 곧바로, 정시로 내달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세계의 동란에도, 이전 쏘련과 동유럽을 뒤흔든 정치지진에도 끄떡없다. 이런 뜨거운 심장들이 받들어주는 한 우리 혁명의 로반은 영원히 드림이 없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자우의 맨끝 연록색전화기를 끄당겨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부부장동무입니까? 로병대회와 관련된 문건들을 가지고 곧 와주시오.》

이윽고 얼굴이 길쭉하고 키가 큰 일군이 방에 들어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가져온 문건을 한장한장

번져보시었다. 특히 그이께서 주목하신것은 로병대회대표선발과 관련된 문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문건을 가져온 일군이 조용히 말씀드렸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로가 많은 대상들을 로해해보니 아무래도 대표수를 6천명 이상은 선발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예견하고있습니까?》

《한 1만명 정도로서… 잘 짜고들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저으시었다. 문건을 마지막페이지까지 읽으신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시었다.

《전국적으로 장악된 로병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전국적으로는 수십만명에 달합니다.》

《그럼 그 인원을 다 참가시킬수는 없겠습니까?》

《예? 수십만명모두를 말입니까?》

《왜 놀랍니까?》

《저… 그건 너무…》

《너무 아름답단 말이지요?》

《…》

그는 더 말씀을 올리지 못했다.

다년간 그이를 모시고 일해온 일군,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이께서 지니신 크나큰 심장과 뜨거운 박동을 미처 따르지 못하는것을, 사색과 분석, 통찰과 결단에서도 힘과 열정과 빛과 색채가 부족하다는것을 절감하는 일군이였다.

그이께서 말씀하시었다.

《자, 이 편지를 보시오. 철길원을 하는 한 로병이 나에게 보내온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받아들자 눈길보다 조금한 마음을 더 앞세우며 재빨리 읽어내려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지금 적들이 핵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우리를 놀래워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우리는 배심 든든합니다. 만약 놈들이 기어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제 비록 늙은 몸이긴 하지만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한 우리 철길소대 젊은이들의 뒤통까지 다해 이 철길을 지키겠습니다. 이 몸 그대로 한정의 침묵이 되어 우리 혁명의 로반을 끝까지 받들겠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가 편지를 다 읽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보시오! 얼마나 훌륭합니다. 진정 이들이야말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떠받들려 살아야 할 제일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쓴 그 철길원뿐아

니라 수많은 로병들이 지금도 땅을 받들어 전화의 그날처럼 살며 일하고있습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으로 소개된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로병분조, 로병세포, 로병지원대, 로병예술소조… 정말이지 한생을 다 바쳐 땅을 받들어오는 그 마음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중에서 누구는 대표로 참가시키고 누구는 빼놓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들모두를 다 참가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국의 수십만 로병들이 다 참가하는 로병대회를 열어야 하겠습니까!》

《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일군의 얼굴은 흥분으로 하여 화끈 달아올랐다. 그가 활개치듯 방에서 나가자 책임서기가 들어와 총참모장과 작전국책임일군이 기다리고있다고 보고드렸다.

《알겠소.》

그이께서는 시계를 보시었다. 살같이 달리는 시간, 아낄수록 더 빨리 달리는 시간이였다.

5

봄!… 산골사람들은 골개물소리에서 먼저 봄의 목소리를 듣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개울이 풀리기 시작하면 내가의 물황칠나무들에도 밤색씩이 봉긋봉긋 부풀어오른다.

차일문은 철길을 따라 바삐 걷고있었다. 이마우엔 송골송골 땀방울이 내뿜고있었다. 그래도 걸음을 늦추지 않는다. 벅찬 흥분에 눈앞이 뿌예지고 눈이 바로서지 않는다. 방금 온 나라 주요도시들에서 거의 동시에 열린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특별감사까지 받아안은 그였다.

특별감사를 받아안고 하염없이 흘러던 그 눈물이 지금도 그칠새없이 솟아오르고있다.

굽인돌이를 돌아서자 경호의 《블루하우스》가 먼저 눈에 띄였다. 운봉선철길대의 전체 철길원들이 거기에 모여있는것 같다.

그가 나타나자 모두가 와!— 하고 달려왔다. 검등개도 뒤질세라 강충거리며 뛰어온다.

먼저 경호가 그에게 커다란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버들개지들이 망울져있는 산촌의 목걸이, 대자연의 봄을 엮은 축하의 목걸이였다.

《아바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엔 모두 달려들어 목마를 태웠다. 하늘이 돌

고 땅이 돌았다. 검둥개까지 미친듯 그들 주위를 돌아쳤다.

때마침 기적소리가 울렸다. 기차가 달려오고있었다. 차일문은 아뿔싸! 하고 아쉬워했다. 경호가 기다리는 기차... 승강대에 나와 선 처녀차장이 그들을 향해 무어라 소리치고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어느새 기차는 멀어져가고... 그 순간 그쪽에서 학모양으로 접은 쪽지가 하늘에 떴다. 처녀가 던진 쪽지, 바람에 실려 날아오고있다.

경호가 먼저 달려갔다. 아니, 그보다 먼저 쓴살같이 달려간 검둥개가 그것을 물고 되돌아왔다. 경호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사뭇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더니 마치 눈으로 삼킬듯이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읽고나서는... 놀랜 눈길로 차일문이며 다른 사람들을 휘둘러보았다.

《아니, 이건?... 아바이한테 쓴 쪽지가 아닌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차일문은 그가 내민 쪽지를 받아들었다. 조금도 서둘지 않고 안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여 귀에 걸고는 느슨한 미소를 그리며 그것을 읽었다.

《아버지, 나도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해요, 축

하해요, 축하해요!... 오늘 저녁 집에 들리겠어요. 딸 차영미.》

차일문은 소리없이 웃었다.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에 심장은 부풀다못해 너무 커져서 가슴에 짹 들어차는듯 했다.

《이건 경호도 집에 데리구 오라는 소리야.》

《예?!》

《내 이미 말하지 않았나, 이런건 내가 다 잘 안다구.》

차일문은 눈이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환히 웃으며 손에 쥔 쪽지를 머리로 높이 쳐들었다.

《자 동무들, 보라구. 우리 딸이 초청장을 보내왔네. 우리 철길소대전부를 집에 초청했네!》

철길소대원들이 모두 일시에 환성을 질렀다. 그러자 멀리 굽인돌이로 사라져간 기차가 그에 화답하듯 길게 기적소리를 울리었다.

《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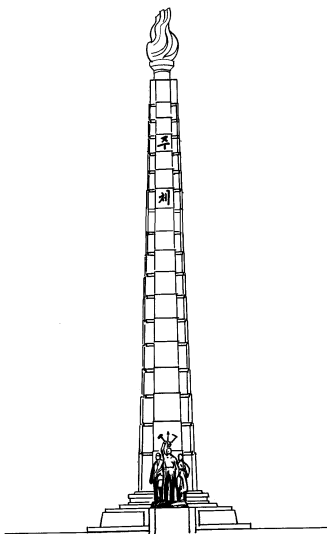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높고 제일 벅찬 웨침소리가 울려오고있었다.

주체83(1994).

가 사

우리 당은 강하다

문 기 창



인민을 한품에 안고 하늘처럼 떠받드는
그 사랑은 산악도 떠옮기는 그대의 힘이다
당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은 강하다

천만의 심장들이 일심으로 뭉치여진
그 단결은 대적도 두렵없는 그대의 힘이다
당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은 강하다

정의의 선군위업 온 세상에 빛내가는
그 총대는 백승을 떨쳐가는 그대의 힘이다
당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은 강하다

사랑의 샘은 마를줄 모른다

— 단편소설 《사랑의 샘》을 읽고 —

김 학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영원히 잊을수 없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해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다. 하기에 우리 작가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상에 다시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랑의 역사를 감동깊은 예술적화폭으로 창조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단편소설 《사랑의 샘》(최종하 작, 《조선문학》 주체102년, 6호)은 바로 그러한 작가적사명감으로부터 태어난 귀중한 형상의 열매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식생활에 그토록 마음써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인민군대 어느 한 구분대의 공생산과 급식을 두고 친어버이사랑으로 마음을 쓰시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매우 감동적으로 심오히 보여준 작품이다. 여기에는 일련의 경험적인 비결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도 형상수단과 수법을 여러모로 리용하여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보장은 문학일반에 대한 요구이지만 위대한 진리를 풍부한 생활로 밝혀내야 할 력사문헌적성격의 수령형상작품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위인의 걸출한 사상과 령도풍모, 숭고한 인덕의 심원한 세계는 오직 력사의 본질에 대한 진실한 형상적일반화와 우리가 늘 몸가짜이에서 목격할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생활속에서만 더욱 뚜렷이 드러나기때문이다.

소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끝없고 변함없는 숭고한 사랑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설정한 기본사건선은 어느 한 인민군구분대의 공생산과 급식정형이다. 소설은 이것을 작품의 줄거리로 튼튼히 틀어쥐고 형상과제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어느 가을날 최정광소속구분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에도 이 구분대의 공생산

량이 시원치 않다는것을 료해하시고 실망을 금치 못해하신다. 인민군적으로 공농사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이 려단에 이렇게 뒤떨어진 단위가 있단 말인가.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것이 병사들에 대한 지휘관들의 사랑이 부족하고 정성과 열의가 모자라는데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구체적인 개선방도와 뜨거운 믿음을 주신다.

마침내 그 이듬해 대대는 풍풍년을 안아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또다시 대대에 모시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전사들에게 200그람이상의 콩을 급식시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즐거운 통도 건넌시며 여러가지 콩음식을 해먹일데 대해서와 자신께서 손수 시험해보신 콩밥 짓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신다.

그런데 콩창고 한켠에 나지막하게 따로 쌓여있는 마대무지가 콩이 출고되는만큼씩 절약한 량곡이라는것을 아시고는 대번에 안색을 흐리시며 지휘관들을 준절하게 비판하신다. 이윽고 병사들의 식당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푸짐한 비지와 콩음식을 마음껏 먹도록 해주신 장군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쓴 식당근무병사 어머니의 편지소식을 들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최고사령관과 함께 선군의 길을 끝까지 갈 지휘관들의 자제문제에 대하여 심각히 깨우쳐주신다.

소설은 공농사의 본보기려단에 있는 뒤떨어진 단위의 발견과 형상적계기의 명백성으로 시작부터 극적인 탄력이 조성되었다. 또한 병사들에 대한 지휘관들의 관점문제가 뚜렷이 제시되면서 최고사령관과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지휘관들이 지녀야 할 자세가 심각히 강조되고있다. 콩이 출고되는만큼씩 절약한 량곡에 대한 설정...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 나아가서 주체적인 전쟁관점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명이 깊이 주어지고있다.

소설다운 굴곡도 있고 극성도 있으며 명백한 형상적주장도 있다. 그러나 소설은 이 줄거리를 가지고 서둘러 이야기를 펼치지 않았다.

보다는 립체감이 나는 풍만한 생활정적서속에 이

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면서 주제를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여 소설은 어머니의 더없이 다심하고 세심한 사랑이라는 세부와 변함없고 마를줄 모르는 샘에 대한 세부를 탐구선택하고 그것을 기본사건선에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참으로 기름진 이야기줄거리를 얻어내고있다.

소설에서 모성애와 샘세부는 사실 하나의 형상세부라기보다 부피 큰 소설의 지선과도 같은 발전과정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세부선이라고 말할수 있다. 실지 이 두 세부는 소설의 시작부터 기본선에 유기적으로 밀착되어 주제해명 전과정을 의미정서적으로 적극 지배하고있다.

소설에서 모성애의 세부선이 노는 기능은 대단히 크다. 비록 개성화되어있지는 않지만 결코 추상화되어있지도 않다. 일반화되어있다고 보는것이 정확할것이다.

모성애선의 중심에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서계신다.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사랑을 부각하기 위해 러단장 김철경의 어머니와 식당근무병사의 어머니가 설정되어 하나의 모성애세부선을 이룬다. 바로 이 세부선이 진정한 어머니사랑의 참다운 의미를 심오히 밝히면서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성애를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한껏 부각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해방직후 우리 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러발만은 제 손으로 직접 가꾸시였소. 밭을 가꾸시느라 치마와 신발에 묻은 흙을 내가 씻어드리려 하면 어머님께서는 〈그만두어라. 흙칠을 하지 않구서야 어떻게 밭을 다루겠니. 땅은 사람의 땀을 먹은것만큼 열매를 맺는단다.〉 라고 하시며 걸싸게 일하군 하시였소. 나도 어머님을 도와 거름도 주고 김도 매면서 함께 일하군 하였소. 정성들여 가꾼 밭에서 갖가지 푸른 남새와 실한 열매들을 수확할 때면 어린 마음에도 기쁨을 금할수 없었소.》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 깊이 새겨진 어머님의 헌신적인 사랑의 숭엄한 모습이었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제가 아직도 발강등이로 강가에서 뛰어놀던 때의 철부지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왜 음식을 남기느냐. 만들어준 보약은 왜 끼 때마다 안하느냐. 잠을 왜 깊이 못 자느냐?〉 이렇게 안해도 될 지청구를 자꾸 하니, 참…》(김철경러단장의 말)

《…콩살이 오른 기념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써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회답편지에 〈이 어머니도 네가 좋아하는 콩음식을 마음껏 먹이지

못했는데 장군님께서 실컷 먹이도록 해주셨구나. 장군님의 은덕을 순간도 잊지 말구 군사복무를 잘 하거라.〉 라고 절절한 당부를 보내왔습니다.》(식당근무병사의 말)

《아니, 결승선이라니?! 병사들을 위하는 지휘관들의 마음에 출발선은 있어도 결승선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생토록 자식을 위하는 사랑과 헌신의 마라손을 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결승선이 없는것은 그들이 누구보다 힘이 세거나 강한 기질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자기자신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샘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쉬임없이 용솟음치고있기때문입니다. 조건에 따라 마르기도 하고 얼어붙기도 하는 웅덩이를 안고서는 지휘관구실을 바로할수 없으며 최고사령관과 함께 선군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선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인간애, 뜨거운 사랑의 심원한 세계를 숭고한 높이에서 후련히 펼쳐보이는데로 힘있게 지향되고있다.

…더운 계절에는 얼음박은 팥수처럼 시원하고 추운 계절에는 덥혀낸 물처럼 따스함을 더해주는 이 샘물의 속성이 어찌면 일생토록 자식들을 위해 진심과 진정을 깡그리 바치는 어머니들의 마음과 꼭 같을까?...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선과 병행하여 세월이 흘러도 사시장철 변함없고 마를줄 모르는 샘세부가 또 결들여져 어머니사랑의 순결함과 다심함, 세심함과 영원함을 정서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참으로 매혹적인 형상수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이 비록 부피는 상대적으로 작은편이나 정서가 풍부하고 립체감이 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소설은 시내물이 대하를 이루고 마침내는 넓고넓은 바다로 흘러들듯이 샘물—어머니 사랑—최고사령관의 병사관점으로 이어지는 형상선이 모두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 특히는 그이의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에서 맺혀지도록 하였다. 이것 또한 소설의 형상적매력이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일수록 수령의 심리세계에 대한 직접적묘사가 더욱 자유분방하게 펼쳐져야 하며 수령의 위대한 영상이 여러 각도에서 묘사되어야 한다는것이 수령형상문학의 요구이다.

소설은 수령형상문학의 이 생리적요구에 충실하였다.

소설에는 물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대화의 형식이나 작가의 분석적인 설명으로 펼쳐보인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자기 교유의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이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서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할 때 진실로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들이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작가들이 당의 신임과 기대에 참답게 보답하는 길이 있다.》

기능적특성을 가진 직접적인 심리묘사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특출한 사랑의 세계를 감동깊이 드러내고있다.

(군인들에게 충분히 먹일수 없는데야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기적이겠소. 자식들을 여기에 내보낸 어머니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지대가 좋은 곳에 보낸 자식이나 험한 곳에 보낸 자식이나 할것없이 다 잘 먹고 잘 지낼것을 바라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인데 지휘관들의 기준점이 달라져서야 되겠는가?!...)

콩농사가 잘 안되는 구분대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대해 말씀올리는 지휘관들의 그릇된 자세를 두고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이다. 질책을 서두를수 없는 복잡하고 안타까운 우리 장군님의 심리가 잘 표현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심정을 너무도 몰라주는 지휘관들의 처사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리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도 형상적효과가 비상히 크다.

...우리의 모든 지휘관들이 이런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병사들을 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고향집 친어머니를 대신하여 병사들의 생활을 돌봐주어야 한데 대해서는 누구나 뼈에 새기고있는 문제일텐데 어찌하여 그것이 아직도 보고서나 토론문에 오르는 미사려구의 범주, 개념이나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것일까.

그래서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도 어머니구실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생겨났는가...

정가로운 샘물을 보시느라니 문득 김정숙어머니의 영상이 떠오르시였다.

남을 위해서만 태어나신듯 마를줄 모르는 사랑의

샘을 안으시고 항일전의 나날에나 해방후의 나날에나 동지들을 위해, 군인들을 위해,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길지 않은 생을 깡그리 불태워오신 어머니,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성이 아직 모자라신듯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시던 어머니.

수령님께서서는 어머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군인들을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길 바라시여 뜻깊은 어머님의 탄생일에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맡겨주시었는데...

아, 어머니, 그리운 나의 어머니...

《식찬이 좀 풍성해졌다고 해서 자식의 밥그릇을 몽청 덜어내》려는 지휘관들의 처사가 못내 섭섭하고 안타까우시면서도 오히려 어머니의 무한한 인간애, 동지애를 잘 따르지 못하신듯,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최고사령관의 본분을 다하길 바라신 수령님의 뜻을 정히 받들지 못하신듯 자책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심중의 세계가 직접적인 심리묘사로 독자들을 울린다.

특히 려단장 김철경과 전화하시다가 문득 김정숙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에 북받쳐 오르시여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시면서 전화중이라는데도 잊으시고 《어머님!》하고 불러보시는 장군님의 절절하고 뜨거운 심중에 대한 묘사는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친다.

소설은 이야기도 크지 않고 구성도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형상이 단조롭지 않고 생경하지 않다. 오히려 진실하고 생동하며 립체감이 나는것으로 하여 말그대로 잘 여문 풍알이다.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둔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샘이 영원하듯이 수령형상문학의 빛나는 력사를 수놓아가는 우리 작가들의 탐구의 샘도 마를줄 모를 것이다.

아기와 해님

리 연 희

태어난지 아홉달
아직은 엄마의 젖몸밖에 모르는 아기
포근한 요람속에 깊은 잠 들고

그 아기 보시려 공장에 찾아오신듯
아기의 깊은 잠 깨울세라
아기의 요람가에 걸음 멈추신 원수님

자거라 아가야 무럭무럭 크거라
너의 꿈 너의 행복 너의 미래를 위해
너의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나도 있단다
땀흘리며 달리는 조국이 있단다

어이 알았던가 들었던가
원수님의 마음속 음성
새별눈 반짝이며 방긋 웃는 아기
온 누리가 밝아지는 그이의 미소

아기는 알았네
그 어떤 말과 글 아닌 온몸으로
따스히 흘러드는 열과 정으로
자기에게 첫 넋을 부어주시는
그이는 이 세상 크나큰 해님이었네

—평양기초식품공장탁아소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

유 련 희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네
로동생활의 첫날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잊혀지지 않네
간석지개간돌격대로 탄원하던 날
그날도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그 손길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흔들어주던 정겨운 손길

잊을수 없네
떠나온 집과 공장은 먼데
일이 힘들어 나약해질 때
내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본듯
나를 찾아 천리길 달려왔던 사람

어머니도 못 와본 그 먼길에
한달음으로 찾아와
나를 향해 두팔벌려 웃음지을 때
몰라라 내 어떻게 달려가
감탕투성이채로 와락 안기었던지

울며 웃으며
웃으며 울며

목메여 터친 목소리
—세포비서동지!

오, 진정
낳아준 어머니품은 떠난적 있었어도
당의 품을 떠난적은 순간도 없었음을
이 작은 가슴에 소중히 새기며
꼭 틀어진채 놓지 못하던 그 손은
어머니 우리 당의 손길이었나니

내 지금도
그 손길 꼭 잡고 걸으라
땀배인 이 손으로 쓴 시를
자랑넘쳐 보아주던 나의 첫 당세포비서
아, 못 잊을 그 사람처럼

직무와 나이는 서로 달라도
어머니당의 손길이 되어
변함없이 이끄는 당세포비서들
언제나 내곁에 함께 있기에

당의 숨결 가장 가까이에 느끼며
순간도 놓칠세라 떨어질세라
따뜻한 그 손길 꼭 잡고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은 아름다워라



윤 경 찬

1

승용차는 도로로 살같이 달리고있었다. 길가의 가로수들이 비스듬히 누우며 뒤로 휙휙 날아지나가고 이따금 마주오던 차들은 생전을 찢는듯 날카로운 휘파람소리를 내며 사라져버리곤 했다. 겨우내 잠자던 들판에서는 프락프락들이 봄갈이를 하느라 통탕거리고 땡상모판을 관리하는 농장원들의 모습도 자주 나타나곤 했다.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틀동안 동해안의 해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오고계시었다. 빠끔히 내리운 차창으로는 전야의 청신한 공기가 흘러들며 차안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시간이 허락되면 동해안부대들을 더 돌아보고싶으시였지만 지금 평양에서는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앞두고 여러가지 중요행사들이 그이를 기다리고있었다.

차창밖을 내다보시던 그이께서는 부지중 차안의 라디오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음량을 높이시었다. 라디오에서는 희천발전소준공식이 진행된 소식이 격조높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이번에 희천발전소건설에서 군인건설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는 희천발전소건설을 통하여 군민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세상에 시위한셈입니다. 하긴 희천뿐이 아니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좌석에 앉은 총정치국 부국장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인들이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크게 한몫 하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부국장의 말을 긍정해주시며 대건설장들에 나가있는 인민군부대들을 하나하나 마음속

으로 훑아보시다가 다시 말씀하시었다.

《참, 북성기계공장에 동원된 최한성동무네도 태양절을 계기로 건설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총정치국에서 그 동무들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어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국장은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씀드리려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이께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시였으나 부국장은 자기가 방금 말씀드리려던 문제가 너무도 작은 일이어서 주저주저하며 선뜻 말을 잇지 못했다.

자기자신도 별치 않은것으로 보고 감감 잊고있었던 문제를 최고사령관동지께 말씀드린다는건 외람되고 주책머리없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총정치국 부국장은 그이께서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재촉해서야 어쭈게 웃으며 변명조로 말씀드렸다.

《사실은 며칠전에 거기 도당책임비서동무가 전화로 최한성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북성기계공장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편의봉사기지인 강성원을 건설해 주기 위해 동원된 인민군대의 한 중대장이 인민들로부터 원호물자를 받은것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공장노동자들은 그 처벌이 잘못된것이라고 공장당위원회에 매일같이 제기한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지배인과 당비서가 부대지휘관들을 찾아가 사정했지만 최한성부대장은 군률이라고 딱 잘라버렸다. 마침 공장에 내려왔던 도당책임비서에게 말해서 도당책임비서까지 최한성에게 사정했지만 그래도 요지부

동이어서 총정치국에 도움을 청해왔다는 것이었다.
총정치국 부국장은 여담삼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시었다.

《그런데 도당책임비서동무는 그 문제를 왜 총정치국에만 이야기했답니까? 하긴 당중앙에 보고할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최한성동무와는 이야기해보았습니까?》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국장도 이 문제는 크게 신경쓸만한 일이 못된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일을 스쳐보내고 싶지 않으시었다.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그이께서는 이야기의 여운속에 잠겨계시었다.

《북성기계공장… 강성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둠에 덮인 창밖을 내다보시며 석달전 북성기계공장을 찾으시었던 때를 회상하시었다.

2

그날은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던 설명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틀전에 내린 폭설로 대지는 온통 흰눈에 덮여있었다. 눈이 팡팡 다져진 길바닥은 얼음판처럼 미끄러웠다.

차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타고계시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평양에서 수백리 떨어져있는 북성기계공장을 찾아가시는 길이었다.

설명절을 앞두고 평양을 떠나실 형편이 못되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가고싶어하시던 북성땅을 찾아가보지 않고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시었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북성의 로동계급이 새형의 최첨단기계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자신께서 직접 가보시겠다고 몇번이나 말씀하시였었다. 그래서 현지지도일정까지 다 짜놓고있었는데 그만…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대신하여 북성의 로동계급을 축하해주고 그들이 새로 만든 기계도 보아주시기 위해 이 길을 떠나신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개운해지고 장군님을 기다리던 북성사람들의 여한도 다소나마 풀어줄수 있을것 같으시었다.

북성땅에 함께 가보자던 장군님음성이 아직도 귀가에 쟁쟁한데 이 길을 혼자 가시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몇해전 그날처럼 장군님과 함께 이 길을 달린다

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뽕양계 눈가루를 휘말아 올리며 태질하는 서북방의 겨울날씨도 지금처럼 을씨년스럽게만 느껴지지 않을것이다. 오히려 그 어떤 기백과 장쾌함이 느껴지고 심신이 거뜨해질것이다.

사실말이지 그이께서는 요즘 남 다 자는 깊은 밤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가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고 잠 못이루며 새날을 맞는 때가 드문하시었다.

그럴 때마다 장군님 키워주신 이 나라 천만군민이 자신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있다는 확신으로 마음을 가다듬곤 하시었다. 그러시면서도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상실의 아픔은 도저히 가라앉지 않으시었다.

이제 공장사람들에겐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차가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이께서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시었다.

마중나온 공장의 책임일군들은 설명절전야에 사나운 눈보라길을 달려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인사도 변변히 드리지 못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감격에 어쩔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동무들에게 빨리 가보라고 말씀하시는것만 같아 이렇게 왔습니다. 동무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인사도 전해 주고 새로 만든 기계도 보고싶어 왔습니다.》

그이께서는 먼저 공장구내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비부터 찾으시었다. 북성기계공장은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서 선봉적역할을 해온 공장이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심차레나 다 녀가신 공장이었다. 비문을 한자한자 읽으시느라니 대원수님들께서 이 공장에 바치신 로고의 자욱자욱이 가슴저리게 안겨오시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공장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새로 제작한 트기계시제품을 보여주시었다.

《훌륭합니다. 트기계는 공업이 발전한 나라들의 독점물로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큰소리치게 됐습니다.》

나는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인민들을 하루빨리 잘살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그 한가지 생각뿐이었는데 동무들이 나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양에 가면 동무들이 이룩한 성과를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에 너무도 황송하고 감격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시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트기계생산이 인민생활을 향상 시키는데서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 기계의 계열생산체계를 시급히 완성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그래서 지금 온 공장이 그 준비사업에 펼쳐나섰습니다.》

공장지배인이 기운차게 대답올렸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동무들을 도와줄건 없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공장의 로력혁신자들과의 기념촬영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지배인이 거침없이 말씀드리는데 공장당비서도 같은 심정이였다.

《그렇습니다, 다른건 제기할게 없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더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었다.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왜 없으랴. 생산정상화를 위한 자재와 설비도 긴장할것이고 식량사정도 넉넉치 못할것이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원수님들께서 다져놓으신 일심단결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심장으로 체험하시면서 그 위대한 전통을 계승해야 할 성스러운 책임감을 새삼스럽게 느끼시었다. 그리고 이처럼 소박하고 강의한 인민을 위해 하나라도 더 좋은것을 마련해주고싶으시었다. 아니, 자신을 깡그리 바치고싶으시었다.

《내가 평양에서 떠날 때 동무들에게 빈손으로 올수 없어서 물고기를 몇백톤 실어보내도록 했습니다. 철차방통이 인차 도착할테니 설명절에 공급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사진도 찍읍시다.》

《고맙습니다.》

지배인과 당비서가 동시에 인사를 올렸다.

트기계앞에서 이윽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던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밖으로 나오시었다. 흰눈덮인 대지에는 한낮의 해빛이 아깍없이 쏟아져내리며 눈을 시그럽게 했다. 손채양을 하고 사방 둘러보시던 **김정은** 동지께서는 정문밖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건물을 가리키시었다.

《저건 무슨 건물입니까?》

《예, 편의봉사당을 건설하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반가운 표정을 띠우시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가봅시다.》

수행원들은 일순 당황해졌다. 그곳은 현지도도로정에 예견되어있지 않았던것이다. 지배인이 그이를 만류해나섰다.

《거기는 가보실만한 곳이 못됩니다. 게다가 현재는 건설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온 공장이 트기계의 계열생산준비에 달라붙어서 일손이 딸리기때문

에 바쁜 고비나 넘기고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가봅시다.》

김정은 동지께서 앞장서시자 일군들은 따라서지 않을수 없었다.

건물은 아직 지붕도 씌우지 못한 상태여서 별로 한산해보였다. 건설장 여기저기에는 모래무지와 블록무지들이 흰눈을 뒤집어쓰고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있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지배인에게 물으시었다.

《여기엔 어떤 봉사시설이 꾸려집니까?》

《한증탕과 리발실, 미용실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지배인이 자랑삼아 말씀드렸다.

《이름은 지었습니까?》

《예, 강성원으로 달았습니다.》

《강성원이라... 이름이 좋구만. 이왕이면 그 이름에 어울리게 종합적인 봉사기지를 꾸려줍시다. 수영장과 물놀이장도 만들어주고 탁구장 같은 운동시설도 만들어줍시다. 공장로동자들이 여기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면서 장기나 바둑, 콤퓨터오락도 놀게 하고 청량음료도 마실수 있게 식당도 꾸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공장일군들은 여기 서북방 외진 산골에도 수도 평양의 창광원같은 봉사시설을 꾸려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그 방대한 건설을 공장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을까?

자재보장은?... 로력은?...

일군들의 심중을 헤아려보신듯 **김정은** 동지께서는 결단성있게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은 트기계만 팡팡 만들어내시오. 이 건설은 내가 맡아서 해주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지배인과 당비서가 황황히 나섰다. 하찮은 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부담을 끼쳐드린다는게 될 말인가.

그러나 그이께서는 벌써 이곳에 파견할 사람을 마음속으로 점찍어두시었다.

《동무들이 미안해할건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까지 건물을 완공해서 이 공장 로동계급에게 안겨주도록 합시다. 동무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내 인차 인민군건설부대를 보내주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저희들이 뭐라고 이렇게 까지 마음 써주십니까!...》

지배인이 어깨를 떨며 걱정을 터뜨렸다.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한지 불과 한달밖에 되지 않았다. 장군님을 생전에 더 잘 받들지 못한 후회와 죄책감이 인민의 마음속에 웅어리져있는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기에 현대적인 봉사 기지를 꾸려주시겠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데 있으랴.

김정은동지께서는 송구스러움에 몸둘바를 몰라하는 지배인의 어깨를 두드리주시며 정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시면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평양에 돌아오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최한성부대장을 부르시었다.

최한성부대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특별히 아끼고 신임하시는 공병부대였다.

그러기에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북성기계공장에 편의봉사당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시자 《알았습니다.》하고 대답을 해놓고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동무한테 이런 작은 대상건설을 맡기는게 잘 이해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고집한건 전문건설부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해제낄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한성에게 간곡한 어조로 당부하시었다.

《그 공장에서는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총돌격하고있는데 이런 때에 동무네가 그들을 도와주면 장군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데도 좋고 군민단결을 강화하는 데서도 의의가 크리라고 봅니다. 이젠 내 마음이 이해됩니까?》

그제서야 최한성은 엄숙한 표정으로 차렷자세를 취했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건설을 지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련하겠지만 그곳 인민들의 생활이 넉넉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믿음어린 시선으로 최한성을 바라보시었다. 그이께서 더 말씀하시지 않아도 최한성은 알아들었다.

《얼마전에 그 공장에서는 세계적수준의 최첨단 설비를 우리 식대로 개발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

쁨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정말 아까운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을 돌파하자는 구호를 내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있는 때에 그들에게 목욕탕만 덩그랗게 지어줄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젠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대한 관점문제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림집을 한 채 세우고 유원지를 하나 꾸려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자는것입니다.

부대장동무, 인민들의 생활이 높아지면 우리 혁명도 그만큼 전진하고 고생한 보람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동무네 부대를 거기에 파견하는것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절대로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폐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최한성부대가 북성땅으로 떠난 뒤 그이께서는 자주 전화를 거시여 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곤 하시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줄이야. ... 도대체 어떤 원호물자를 받았기에 최한성은 그 중대장에게 처벌까지 주었는가? 도당에서 총정치국에까지 제기해온걸 보면 문제가 심상치 않은것 같았다.

3

김정은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고 최한성부대장을 찾으시었다. 수화기에서 최한성의 기백있는 목소리가 울려왔다.

《최고사령관동지!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강성원건설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기본건설을 끝내고 지금은 주변정리를 하고있습니다. 4월 15일에는 문을 열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겠소. 동무네들이 그곳 애육원까지 새로 지어준다던데?》

《그렇습니다. 마침 건설자재가 좀 남았길래 낡은 애육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최한성은 제 자랑을 하는것 같아서인지 더 전개하지 않았다.

《어쨌든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엔 집만 덩실하게 지어주지 말고 매 방마다 텔레비존이랑 침구류랑 갖추어주는게 좋을것 같구만. 원아들에게 새옷이랑 학용품이랑 일식으로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화기에서 최한성의 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고사령관동지! 알았습니다. 제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주면 고맙겠소.》

그다음에야 그이께서는 처벌받은 중대장에 대해 물으시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어떻게 그런 일까지 다...》

《그래서 최고사령관이지. 그래 처벌받은 중대장이 누구라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처벌받은 중대장은 강철호라고...》

《강철호?!... 아, 전번에 최동무가 자랑하던 그 중대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 동무입니다.》

최한성은 될수록 간단명료하게 전후사연을 보고 드렸다.

강철호네 중대에는 청진내기 신대원이 한명 있었는데 찬비를 맞으며 일하다가 그만 독감에 걸렸다. 신대원은 고열로 입맛을 잃어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강철호중대장은 자기 대원이 앓는게 속상해서 자기 애인(북성땅에 와서 사귀어 처녀였다.)에게 그 친구는 바다가태생이어서 멸치식혜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입맛을 돌릴거라고 말한적이 있었다. 애육원에서 교양원을 하는 처녀는 그날중으로 자전거를 타고 사방 돌아다녔지만 서북방 외진 산골이라 멸치식혜를 구할수 없었다. 할수없이 처녀는 애육원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원장은 하늘끝에 가서라도 구해와야 한다면서 공장지배인에게 차를 빌리러 갔다. 사연을 알게 된 지배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원장을 안심시키고는 자기 승용차에 경리과장을 태워 떠나보내면서 멸치식혜를 구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엄숙히 선포했다. 지금까지 군인들에게 원호물자를 들고갈 때마다 거절당했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말하자면 그 무슨 원호물자라기보다 군대에 나간 자식의 몸보양을 위한 부모들의 심정을 담은것이라고 할가.

경리과장은 멀리 명주시내에까지 나가서야 멸치식혜를 한단지 구할수 있었다.

처음에 강철호중대장은 식혜단지를 들고온 경리과장에게 그것을 받을수 없다고 딱 잡아땀다.

그러자 경리과장은 이젠 중대장 먹으라는게 아니라 앓고있는 대원에게 주라는것이다, 중대장은 자기 대원들에게 그렇게 무정한가 하고 성을 내면서 억지로 떠맡기고 가버렸다.

강철호중대장은 더이상 그들의 성의를 무시할수 없었다.

그런데 최한성부대장은 북성땅에 부대를 전개시

키면서 인민들의 재산에는 설사 소금 한줌도 반아서는 안되며 오직 공기와 물만 마실수 있다고 선포했었다. 그러니 멸치식혜 한단지면 최한성의 시점에서는 사연이 어떻든지간에 분개할만 한것이였다.

그날중으로 강철호는 직무정지처벌을 받았고 변명 한마디 없이 중대장의 직무를 1소대장에게 인계하였다.

다음날부터 지배인이며 당비서, 경리과장은 물론이고 애육원원장이며 로동자들까지 강철호중대장을 처벌하는것은 너무하다고 겨금대기로 찾아왔으나 최한성은 그들을 아예 부대건물안에 들여놓지조차 않았다.

한번은 보초소알을 지키고있던 지배인과 당비서에게 불들려 어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부대장동무, 강철호중대장을 처벌하는거야 이 지배인이나 당비서의 뺨을 때리는거나 같지 않소. 나두 자식을 군대에 내보낸 후방가족이란 말이요. 우리들에겐 전사들이 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까짓 식혜 한단지 들고온게 왜 우리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애매한 중대장을 처벌하는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배인과 당비서가 번갈아 사정했지만 최한성의 얼굴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안됩니다. 강철호중대장은 군물을 어겼기때문에 처벌받은것입니다. 지배인동무나 당비서동무는 우리 군대일에 상관하지 말아주시요.》

《뭇라구? 여보, 부대장동무! 군물을 어기다니, 그래 이런게 군민관계요? 우리때문에 중대장이 처벌받았는데 상관하지 말라구? 군민관계이기때문에 찾아와서 사정하는게 아니요. 로동자들이 이 지배인이나 당비서를 뭇루 보겠소. 그러지 말구 우리 립장을 좀 봐주시우.》

《지배인동무도 군사복무를 했겠지요? 군물이 어떤것인지 잘 아실텐데 왜 이러십니까?》

《에익! 벽창호라구야...》

때로는 큰소리도 쳐보고 어깨를 낮추어보기도 했지만 최한성은 딱 버티고서서 군물이라는 한마디 말로 그들을 물리치군 했다.

최한성의 보고를 들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별스레 마음이 즐거워지시었다. 누구든 옆에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한바탕 호탕하게 웃고싶으시었다.

《그래 처벌받은 강철호중대장은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동무는 자기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다고 진심으로 자기비판을 했

습니다. 인민들은 전사들을 천자식처럼 여기면서 100여리길을 갔다오는데 자기는 작업현장을 뜰수 없다는 구실로 앉아서 걱정만 하고있었으니 정말 중대장자격이 없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두뿔, 세뿔 일을 제깁니다.》

《그럼 처벌을 벗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 당조직에서 총정치국에까지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북성땅을 떠나는 날까지 처벌을 벗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부대장으로서 강철호 중대장의 그 마음을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전화를 끝낸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책상우에 무드기 쌓인 문건중에서 하나 집어드시였으나 도무지 글줄이 안겨오지 않으시였다.

(강철호... 강철호...)

그이께서는 한달전 최한성부대장을 만났을 때 그의 이야기를 통해 강철호중대장을 알게 되시였다. 그의 기억속에서 그때 들은 이야기가 생생히 되살아났다.

총각중대장인 강철호는 부대가 북성땅에 도착한지 며칠후에 썰매를 타다가 얼음구멍에 빠진 애육원 원아를 구해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라진 강철호를 찾아 애육원선생들은 물론 주변마을사람들까지 떨쳐나섰다.

결국은 보름만에야 애육원 원장이 인솔한 《대표단》이 최한성부대장의 방에서 강철호를 만날수 있었다.

면회시간은 짧았다. 저저마다 강철호를 열싸안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 아이를 맡은 교양원처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새도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에 애육원 원장이 교양원처녀를 데리고 최한성을 다시 찾아왔다.

《듣자하니 강철호중대장이 총각이라는데 욕심이 나서 또 왔습니다. 부대장동지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하는수없이 최한성은 난생처음 소개군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강철호가 딱 잡아떼는것이였다.

《싫다는 이유가 뭐요? 군관답게 말해보오.》

《처녀가 경망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우린 며칠전에 부대장동지 방에서 처음 만났고 말 한마디 나누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나와 토론도 없이 찾아오는건 너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아이를 구원해주는거야 웅당한건데 별치 않은 일에 감동돼서 일생을 약속하자고 하는게 좀 경망스럽지 않습니까?》

듣고보니 그럴듯한 론거였다. 이노릇이 부대장사

업보다 결코 험하지 않다는것을 체험하면서 최한성은 골을 싸취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온 부대가 다 알고 주둔지역인민들속에서도 화제거리가 되었으니 잘못 처리하면 군민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하지만 부대장인 자기는 명백히 총각편을 들어야 하는데 본인이 싫다는걸 명령식으로 내려먹일수야 없지 않은가.

다음날 최한성은 다시 부대에 찾아온 처녀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우람한 체통을 날렵하게 움직이며 처녀를 팔걸이의자에 끌어다앉히고 제 손으로 보온병의 물도 따라주면서 부산을 피웠다. 강철호의 립장을 숨김없이 말해주어야겠는데 말꼭지를 어떻게 떼야 할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총각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줄수야 없지 않은가.

《우리 철호, 그녀석 말이요, 성질이 영 개떡이요. 나같으면 그런 녀석에겐 시집가지 않겠소.》

처녀는 입을 가리우며 조용히 웃었다. 최한성도 자기의 비유가 적당치 않음을 느끼고 허허 웃어버렸다.

《저... 중대장동지가 저를 싫다고 한 모양이지요?》

《그걸 어떻게 아오? 아차! ...》

최한성은 자기의 실언이 어이없어 허거프게 웃었지만 처녀는 정색해서 물었다.

《저를 싫다고 한다는데... 혹시 그 중대장동지가 저를 경망스러운 처녀로 보는게 아닙니까?》

최한성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마른침만 삼켰다. 어떻게 귀신같이 딱딱 알아맞출가?

처녀는 한동안 머리를 숙이고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서 말하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작년 겨울 어느날 저는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눈덮인 개울가에서 한개 분대가량의 군인동무들을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군인동무들은 강행군훈련중에 점심밥을 해먹으려고 눈속에서 삭정이들을 주어다 불을 피우던중이었습니다. 전 그들에게 우리 집이 코앞인데 들어가자고 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군물이라면서... 난 그들을 설복하다못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혼자서 집에 뛰어갔습니다. 따끈하게 두부탕도 끓이고 동네에서 호평받는 깍두기김치도 꺼냈습니다. 명란젓단지를 열어보니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였습니다. 전 단지뚜껑을 열고 망설이다가 그냥 뚜껑을 덮었습니다. 한참만에 두부탕남비와 김치통만 가지고 달려가보니 군인동무들은 벌써 떠나간 뒤였습니다. 후회는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김치통과 명란젓만이라도 들고나갔으면 군인동무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는건데...

그날의 후회는 아마도 일생동안 저를 괴롭힐 것입니다. 전 그때 명란젓 한사발이 아까워서 퍼내지 못했는데 그 중대장동무는 목숨을 내대고 얼음구멍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저와 중대장동지사이의 정신적높이가 이렇게 차이난데 그래도 제가 그 동무를 존경하는게 일시적인 충동으로만 보입니까? 그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어린 생명을 위하여 서슴없이 뛰어들고 이를 한마디 알리지 않고 떠나가는 그런 남자라면 얼마든지 일생을 맡길수 있다는 녀성으로서의 저의 판단이 부대장동지 보기에도 경망스럽게 생각되십니까? 저같은 처녀는 그런 남자를 사랑하면 안됩니까? 더구나 그는 인민군대 군관이 아닙니까?》

처녀의 열변에 감동된 최한성은 완전히 그편으로 기울어지고말았다. 그는 책상을 탕- 치며 호기있게 소리쳤다.

《됐소, 가보오. 공사를 끝낸 다음 잔치를 하자구. 강철호는 내가 책임지겠소.》

최한성은 처녀를 돌려보내고 강철호에게 명령했다.

《두말말구 그 처녀를 사랑하오.》

그리고는 어안이 병병해있는 강철호의 어깨를 툭 치며 투박하지만 진심으로 말했다.

《멋있는 처녀야! 참 훌륭해. 잘살라구, 잘살거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때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북성땅에 인츰 가보아야겠다고 생각하시었다.

4

그날은 5.1절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명절날에 북성기계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었다. 아무리 바빠도 이 공장 로동계급과 명절도 함께 쇠고 더우기는 새로 건설한 강성원을 돌아보고싶으시었다. 최한성부대장과 공장책임일군들이 **김정은**동지를 안내해드리었다.

강성원은 한마디로 그이의 마음에 드시었다. 그이께서는 대리석계단이며 천정의 무리등, 복도의 벽화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이만하면 평양의 창광원 부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골사람들이 호강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공장지배인이 **김정은**동지께 다시 한번 인사를 올렸다.

《아닙니다. 난 그저 이 공장 로동계급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동무들에게 전해주고싶었을뿐입니다.》

둘러선 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들으며 승업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정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어 북성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김정은동지께서는 격해지는 마음을 다잡으시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시며 강성원을 차례로 돌아보시었다. 한증칸, 수영장, 미용실...

리발실에 들리시었을 때는 봉사원녀성들이 한꺼번에 그이의 곁으로 달려왔다.

저저마다 날듯이 달려와 와락 안기며 감격에 울고웃는 봉사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즐겁게 웃으시었다.

《이거 넘어지겠소. 북성땅 녀성들은 하나같이 힘장수들이구만. 그래 나도 여기서 리발을 할수 있소? 리발설비가 그췌한걸 보니 그냥 가기가 아쉽구만.》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봉사원들은 그이의 팔에 매달려 서로 자기가 리발을 해드리겠다고 법석 떠들어댔다. 그이께서는 봉사원들에게 사진이라도 찍자고 겨우 달래시고야 리발실에서 나오시었다.

락구장과 컴퓨터오락실, 식당까지 일일이 돌아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최한성부대장을 치하해주시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확실히 동무네 부대는 민음이 간단 말ियो.》

그때를 기다렸다는듯 공장지배인이 뒤를 달았다.

《이번에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해 저희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섭섭한것은 군인동무들이 북성땅에서 공기와 물만 마시겠다면서 저희들의 성의를 받아주지 않는것입니다.》

최한성은 지배인의 팔소매를 얼른 잡아당기며 눈을 깜빡했다. 그러나 지배인은 할 소리는 해야겠다는듯 팔소매를 뿌리치며 안타까웠던 심정을 말쑤드렸다.

《정말 섭섭했습니다. 우리 산골사람들이 인심만

은 후한 사람들인데 글썄 장갑 한켠에 안 받아주니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배인동지, 우린 웅당 할일을 했을뿐입니다.》

최한성은 지배인이 두말 못하게 그루를 박았다.

《한쪽은 섭섭해하고 한쪽은 웅당하다?... 이견 분명 모순인데...》

김정은동지께서는 혼자말씀처럼 뇌이시다가 최한성에게 물으시었다.

《강철호중대장은 아직도 처벌이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던 참인데 벌써 알고계셨습니까? 정말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공장지배인은 이 기회를 놓칠수 없다는듯

김정은동지께 무작정 매달렸다.

《지배인동무 심정은 알만 합니다. 하지만 최고사령관도 군률은 어쩔수 없는데 어쩐다...》

지배인은 일순 락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친자식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는 강철호에 대해 애정을 담아 아뢰었다.

《사실 강철호중대장은 자기 일을 끝내고 밤에는 애육원건설장에 또 나가군 했습니다. 그러다간 몸이 견디지 못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자기는 이름그대로 강철과 같다면서... 우리 로동자들이 강철호중대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소리를 안하는 날이 없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점점 젖어들었다. 곁에 서있던 최한성부대장이 지배인을 편들어주었다.

《강철호동무는 애육원아이들과 어떻게 친숙해졌는지 건설장에 나가면 아이들이 중대장삼촌, 삼촌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최한성에게 강철호를 데려오도록 하시었다.

조금후에 체격이 그췌한 군관이 그이앞에 달려와 차렷자세를 취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상위 강철호 명령대로 왔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어린 시선으로 강철호를 바라보시었다. 억실억실한 눈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충혈되어있었고 짝 다문 입술은 갈라져있었다. 일하다가 상했는지 오른손가락은 두개, 왼손가락은 한개를 봉대로 감고있었다.

《중대장동문 처벌이 억울하지 않소?》

《아닙니다. 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잘 받

들지 못했습니다. 처벌은 웅당한것입니다.》

강철호의 입에서는 웅당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웅당하단 말이지...》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철호의 말을 긍정해주시는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생각에 잠기시었다.

군인들은 인민들을 도와주는것을 웅당한 일로 여기면서 그 어떤 인사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그 때문에 처벌받는것조차 웅당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인민들은 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성의를 받아주지 않는데 대해 섭섭해하고있다. 그리고 강철호중대장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처벌받는데 대해 안타까와하고있다. 참으로 풀기 어려운 《모순》이였다. 아름다운 《모순》이였다. 일반적으로 모순은 대립을 낳지만 이것은 통일속에서 생겨난 모순 아닌 《모순》이다. 이런 《모순》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다와지고 더 굳건해질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철호의 장알박힌 손을 쓸어만지시며 자신의 견해를 터놓으시었다.

《내 보기엔 누구도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왜 강철호중대장이 처벌을 받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군민단결이 그만큼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는 표현입니다. 얼핏 들으면 자그마한 미담같지만 여기에는 우리 시대가 잘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부대장동무, 오늘은 강철호중대장의 처벌을 벗겨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격 결론해주십시오.》

지배인이 안달이 나서 부채질을 했다.

《보시오, 지배인동무가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5.1절인데 우리 로동계급의 부탁을 존중해줍니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강철호중대장의 직무정지처벌을 당장 벗겨주겠습니다.》

최한성부대장이 차렷자세로 보고드렸다.

《그렇게 하시오. 그럼 난 강철호중대장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겠습니다.》

그이의 말씀이 너무도 뜻밖이어서 일군들은 박수를 칠 생각도 못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앞으로 다가가시며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나는 강성원건설과정에 한 중대장의 처벌사건을 두고 군대와 인민들사이에 오고간 혈연의 정을 읽으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일심단결을 천하지대본으로 하여 곧바로 전진하려는 나의 정치리념이 옳았다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ㄷ.ㄷ》의 지위

주체95(2006)년 10월 17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8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었다.

뜻깊은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아버지수령님께서 80년전 그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으로는 조국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시고 그와는 다른 길, 새로운 투쟁의 길을 찾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으며 마침내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새 세대 열혈청년들로 주체15(1926)년 10월 17일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ㄷ.ㄷ》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선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ㄷ.ㄷ》의 결성이 가지는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ㄷ.ㄷ》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이

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며 장군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음미해보았다.

《ㄷ.ㄷ》는 우리 당의 뿌리, 선군의 시원, 단결의 전형, 승리의 기치!

실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ㄷ.ㄷ》의 지위에 관한 완벽한 정식화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동에 젖어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ㄷ.ㄷ》결성 8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고보니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ㄷ.ㄷ》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걸어온 길도 멀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도 멀다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에 부딪친다 하여도 《ㄷ.ㄷ》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로작 《〈ㄷ.ㄷ〉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로 발행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길로 간다

함 영 주

전선에 탄약을 섬기듯
채 식기도 전에 싱고온 강채
얼싸 반길 그 모습 새기였는가
령기슭 갈림길에 세운 표말
—마식령건설장으로 가는 길

뜨거워라
스키장건설은 넘려말고
자재만 팡팡 보내달라던
병사들의 불같은 목소리
쟁쟁히 울려오는 저 글발

세계1류급의 스키장건설을 올해안으로!
오로지 원수님 정해주신 그날 향해
화약에 불이 달린듯 폭풍쳐 내달리는
그 대오속에 이 몸을 세워선가

저 글발앞에선

동해의 장쾌한 해돋이를 바라보며
스키를 타고 날아내릴 그날도
대양과 대륙을 넘어 구름처럼 찾아올
스키애호가들의 모습도
눈앞에 더 가까이 안겨오거니

표말이여
너는 완공된 스키장에
하루빨리 경애하는 원수님 모실
그리움의 길 비약의 지름길로
온 나라를 부르는 진군의 리정표

아, 그 길로 간다
《마식령속도》의 불바람 안고
내 조국 사회주의문명국의 상징
마식령스키장으로 내려쳐간다

시 초

당과 나의 운명

안 준 보

그날과 오늘

날과 달이 흘러
수십번 해가 바뀌어
그날에서 오늘로 왔건만
내 언제나 못 잊어 사는 그날이어

그날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삶 이렇게 벅찰수 있으랴
그날이 내 《인생의 영광》의 첫 노래라면
오늘은 그 첫 노래의 영원한 후렴

어찌하여 인생은
태어나 먹고자란 어머니의 젖맛
그것조차 잊을 때 있어도
잊으면 죽음인 못 잊을 그날에 살던가

그날은
이 세상 만복이
이 가슴에 터질듯 차고넘쳐
세상조차 넓어보이지 않던 날

그날은 그날은
작업공구배낭이 무겁던 어깨에
산을 뒤풀이로 메워준대도
무겁지 않던 날

어찌 그렇지 않으랴
생애 활력을 주는 심장
그 심장속에 높뛰는 영원한 심장
그 영원한 영생의 심장 뛰는 날이었거니

이 세상의 전부인
수령님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원증
그 당원증을 이 가슴에 간직한
당원의 영예를 지닌 날

오, 부모가 준 생으로 하여
귀중한 오늘의 삶이 있어도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영광의 그 하루가
그토록 나에겐 생명보다 귀중하여라

심장의 고백

별들도 잠든
룡수호기슭을 에돌아 밤길 십오리
내 찾아간 곳은
건설현장 초급당위원회

달을 두고 해를 두고 품은 생각
—나도 조선로동당원이 되고싶습니다!...
이 말을 더놓고싶어 찾아간
초급당위원회

허나 나는 선뜻 들어설수 없어
사무실불빛을 밝으며 몇바퀴를 돌았던가
수백번을 마음속에 외워온 말은
내 인생에 배운 첫말인듯 마지막말인듯

한바퀴 돌며 나는 생각했어라
건설장에서 설비를 구원하고 희생된

아들의 작업복을 입고 아들의 일터에 선
50년대당원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맡겨지면
말없이 앞장에 서던 1211고지방위자
그의 허벅지에 아직도 박혀있는 세개의 파편
배낭밑에 간직된 영예군인증과 메달...

또 한바퀴 돌며 나는 생각하였어라
또다시 엄청난 작업량을 받아안을 때면
작업조직뒤에 조용히 울리던 세포비서동지의 말
—당원동무들은 남으시오!...

얼마나 부러웠던가 나도 남고싶은 그 자리
아들의 작업복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
1211고지방위자의 허벅지에 박힌 파편...
내 그 모습 그 신념으로 살아왔던가

생각깊은 밤이여
밤이슬 맞지 말고 어서 들어오라고
나를 불러주는 당위원회창가의 불빛이여
나를 안아주는 당원들의 후더운 마음이여

그래도 사내의 결심을 툭 더놓고싶어
그 불빛에 이끌려 들어섰을 때
이 밤중에 어떻게 왔는가 묻는 그들의 말에
내가 한 엉뚱한 대답

—군도서관에 갔다가 들렀습니다…
그러나 나의 심장과 량심의 고백은
—저도 조선로동당원이 되고싶습니다…
이것이였다

…세월은 흘러 40년
그날의 거짓말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날의 고백을 기쁘게 생각한다
심장과 량심의 고백만을!

입 광 심 의

장마비 철판지붕을 두드리던
건설장의 나지막한 작업반휴게실에서
우리 작업반의 세포당원들
기름묻은 손을 씻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나의 입당청원을 심의하였다

하늘을 땅처럼 밟고사는 연공들은
칼날우에도 올라서는 성격자들
룡담은 또한 얼마나 결죽하던가
허나 그날의 모습은 아지랑이 피는 봄날의 언덕
창공에 치솟은 엄엄한 철탑!

이름대신 나를 막내사위감이라 부르던
작업반의 좌상 연공아바이도
이름대신 면도칼이라 불리우던
작업반 로동안전책임자의 이날의 모습은
내 처음으로 보는 참다운 인간들의 모습인듯

허나 기대에 찬 그들의 눈빛은
나의 어제와 오늘 매일까지 지켜보는 눈빛
무릎우에 조용히 놓인 손들은
쳐들면 산도 따라 일어설듯
내리면 성난 파도도 잠들듯

나의 한생 지켜볼 눈빛은 묻는다
—동무는 왜 조선로동당원이 되려고 하는가
우리 당 기폭에 새겨진 마치를 함께 틀어쥐고

주체의 새 세계를 건설할 손들이 나에게 묻는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도 바칠수
있는가

어떻게 대답하라
아들의 작업복을 입고 아들의 그 자리에 앉은
50년대당원 어머니에게
파편박힌 몸으로 철탑을 오르내리던
1211고지방위자의 그 모습앞에

파연 네가 개척지에선 첫 사람
파연 네가 발파장의 마지막사람
전투라면 마지막탄알 전우에게 넘겨주고
적의 화점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 될수 있는가 라는 물음앞에

그 숭엄한 모습과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 생명과도 같은 말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이 생명은 필요한것입니다!…

당세포당원들은 손을 들어 찬동해주었다
자신들의 친근한 혁명동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맡겨질 때마다
남아있는 그 사람들속 한성원으로
나를 세워주었다 남아있게 해주었다

나의 첫 량세로비서

우리는 모였네
나의 로동시절의 작업반원들
그날의 작업반장은 로력영웅
그날의 용접공은 지배인
그날의 당세포비서동지는

나라의 큰일을 맡은 당당한 일군
그가 영웅이든
그가 지배인이든 국장이든
우리는 그날의 직무대로 불렀네

—세포비서동지
그가 어찌 나라의 큰 일감을 맡은 일군
우리 당세포의 자랑인줄 모르랴

늘 고향떠나 건설장에서 살던 그날
건설장엔 없는것도 많았어도
늘 남아돌아가는것은 사랑과 정
그 사랑과 정이란 참으로 별스러웠지
줄수록 늘어나고 나눌수록 많아져
하나가 열백으로 되고

강바람에 얼굴이 트고 손이 트면
총각의 얼굴과 손은
작업반의 얼굴이자 손이라며
내 주머니에 넣어주던 《평양》크림
일생에 처음 발라본 《평양》크림의 향기는
오늘도 잊을수 없는 세포비서동지의 인정의 향기

작업반 휴게실벽에
주런이 걸려있는 배낭들
그 한가운데 걸려있는 큼직한 배낭
우리 세포비서동지의 그 배낭을
우리 《요술배낭》 《작업반의 창고》라 부르며
무엇인가 그리울 땐 먼저 찾는 그의 배낭

군사복무의 나날 중대사관장을 했다는 그

아직은 돌 지난 딸의 아버지건만
어쩌면 그 모습 궁냥이 큰 아버지같고
어쩌면 그 마음 알뜰한 어머니같아
작업반 온 살림을 걸맨 그를 두고
달리 부를줄 우리 몰랐지

원수님께서 불러주신
큰 대회에 올라온 그를 찾아
그날 작업반성원들 모였을 때
그를 보며 나는 용서를 빌었지
작업반의 막내가 울퉁배의 성미
아직도 고치지 못했노라고

아, 그날의 세포비서앞에 서니
그는 오늘도 나의 당세포비서인듯
내 그날의 첫 분공 잊을수 없어라
—회상기 《필승의 신념》을 독보할것
40년전 독보는 하였어도
투사들의 그 신념으로 살아왔던가

아, 세월은 흘러 사는 곳 직무는 달라도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그날의 당원들과
언제나 함께 있는 그날의 세포비서
우리에게 분공을 주던 그날처럼 말했네
—우리모두 **김정은**원수님을 더 잘 모십시다
우리는 서로 뜨겁게 포옹하였네

나는 그려본다

주 경

햇숨 두툼히
바위를 메어도
아프지 않게
나는 정성껏
어깨받치개를 만든다

초소로 떠나는 아들의 어깨에
배낭을 메워주며
너의 그 어깨우에
조국보위의 무거운 짐 지워져있다고
말없는 당부를 엮어주던
그 아침을 그려보며

정을 담아 누벼가는
어깨받치개에 어려온다
무너지는 웅벽을 맞받아

저저마다 어깨를 들이밀며
결사관철의 성새를 쌓던
일당백병사들의 그 모습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 찾아올
마식령스키장을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완공의 그날도
병사들 어깨에 떠받들려오려니

아, 한뼘한뼘 수를 놓듯
어깨받치개를 누벼가는 밤
나는 그려본다
병사들 어깨에 받들린 마식령스키장
병사들 어깨에 받들린 부흥할 조국의 모습!

당기발과 우리 가정

강혜옥

수도의 곳곳에 높이 게양되어 공화국기발과 함께 펄펄 휘날리는 조선로동당기발의 펄럭임은 우리 인민의 눈에 익은 풍경이다. 태어나 지금까지 눈에 익히고 가슴에 간직해온 우리의 조선로동당기발!

우를수록 숭엄한 감정과 함께 더없이 따뜻하고 친근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채운다.

더불어 우리 가정의 모습과 생활이 나의 눈앞에 화면처럼 떠오른다.

할머니의 모습

나의 할머니는 농민이다.

할머니는 언제나 바쁘게 사셨다.

우리 집이 있는 시내에서 시오리 떨어진 농장에 자리잡고있는 할머니네 집은 노래에도 있듯이 작은 꽃동산 그야말로 무릉도원이었다.

장미넝쿨로 뒤덮인 울타리너머로 바라보이는 추리나무, 살구나무가 가지가 휘도록 열매를 매달고 있는 모양과 집뒤의 푸른 잎 무성한 세그루의 감나무풍경은 한폭의 그림을 펼쳐고있었다.

나는 어려서 할머니네 집을 자주 찾았다.

쉬는 날이나 방학때면 꼭꼭 할머니네 집을 찾곤 하였으나 할머니는 언제한번 나와 함께 있지 못했다. 늘 농장밭에 나가 사셨다. 모내기로부터 시작하여 김매기, 풀베기, 가을걷이...

어느해인가 풀베기때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날은 농장적으로 쉬는 날이라 나는 화판을 메고 할머니네 집으로 떠났다. 내가 그동안에 그린 그림을 할머니에게 보이고싶어서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집에 없었다. 남들이 다 쉬는 날에도 할머니는 또 어데 나가셨을가. 단박에 나는 입이 한발이나 나왔다.

사람들에게 물어서야 나는 우리 할머니가 산동판의 풀베기장에 가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에 거의 올라가느라니 풀베는데 여념이 없는 할머니의 모습이 바라보였다.

《할머니!—》

두손을 오무리고 힘껏 찾는 나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허리를 펴시더니 낫을 든 손을 높이 흔들었

다. 그리고 잠시후 달려오는 나를 두팔을 벌려 담쑥 안아주셨다.

할머니는 설참에 나의 그림들을 보아주며 허를 끝끝 찼다.

《우리 집안에서 이런 재간둥이가 나을줄이야. ... 세상은 정말 좋기도 하구나.》

나의 그림을 가까이에서 보기도 하고 두손으로 멀리 가져다보기도 하시며 할머니는 몹시 기뻐하셨다.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왜 남들이 다 쉬는 날에도 혼자 일하나요?》

흡족해서 그림을 바라보던 할머니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할머니가 이렇게 일하는건 농사군의 본분이란 다. 하고싶어서 하는 일은 힘든줄 모르는 법이지.》

궁지에 넘쳐 즐겁게 웃으며 말하는 할머니에게 나는 또 물었다.

《그럼 그림그리는것만큼 재미나나요?》

할머니는 천진한 나의 물음에 소리내어 웃더니 나를 꼭 껴안고 물으셨다.

《혜옥아, 네가 그림그리는게 제일 재미난것처럼 이 할머니도 일이 막 재미난단다.》

《그—래요?》

나는 머리를 가우뚱하며 할머니의 얼굴을 새삼스레 쳐다보았다.

잠시후 할머니는 땀을 흘리시며 또다시 풀을 베었다. 낫가락을 휘두를 때마다 풀이 썩썩 베여넘어지고 풀단이 점점 높아갔다.

할머니의 얼굴에 흘러내린 땀방울이 턱밑에 맺혀 햇빛에 무지개빛으로 아롱거리다 뚝 떨어지던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흐르는 세월을 따라잡으려 하듯이 우리 할머니는 항상 바쁘게 사셨다.

할머니를 생각할 때면 늘 손에 호미 아니면 낫을 드시고 새벽별을 이고 나가셨다가 떠오르는 달과 함께 들어오곤 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더불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시던 말씀도 귀에 쟁쟁하다.

《애들아, 할머니가 사랑하는 이 낮이 바로 우리 당기밭에 새겨있단다.》

어머니와 아버지

태어나 처음으로 눈에 익힌 어머니의 얼굴은 웃는 모습이였다.

그후 내가 자라면서 느낀것인데 어머니는 참 웃음이 많으셨다. 처녀애들처럼 웃음이 헤프다 할 정도로 잘 웃으셨다.

그러던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을 본것이 아마도 내가 중학교(당시) 3학년때일것이다.

어느 가을날 새벽에 두런두런 울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소리에 눈을 뜨니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태우고있었고 어머니는 흐느끼고있었다.

그때의 내 심정이란... 왜 그러실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러나 차마 부모님에게 물을수는 없었다.

그후부터 아버지는 저녁밥을 싸들고 어머니의 공장을 자주 찾았다. 나도 아버지를 따라 함께 가곤 하였다.

어머니는 기계공장 선반공이였다.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계시던 아버지는 시간이 없었지만 기꺼이 밤길을 걸곤 하였다.

어머니는 언제나 바빠 일하셨다. 우리가 작업장에 들어선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바이트의 불꽃을 날려가며 부속을 깎고있었다. 내가 소리쳐불러서야 어머니는 돌아섰다. 모자를 단정히 쓴 어머니는 손목시계를 가리켜보였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뜻이였다.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그 공장에서 일해온 어머니는 고급기능공이였다. 나는 그때 어머니가 깎는 부속이 어느 대상건설의 중요한 부속이라는것을 알수 없었다.

그로부터 2년후 나는 5학년생이 되었다.

그날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가 전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동자질을 하고있었다.

《어마나!》

나는 아버지의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되려 나를 방안으로 들여보내며 부엌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나는 방안에 들어가며 물었다.

《아버지! 또 아버지의 제자가 학위를 수여받은 모양이지요?》

나의 말에 아버지는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하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아버지는 제자들이 과학

적인 발명으로 특허권을 받았거나 학위학직을 수여받을 때면 손수 음식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축하해주곤 하였던것이다. 그런 일이 드문하였던지라 나는 ऐसा롭게 물었던것이다.

아버지는 찬장에서 술병까지 꺼내들며 기분이 붕떠서 말씀하셨다.

《있지. 기뻐도 아주 기쁜 일이다. 너도 어서 꽃다발을 좀 준비하렴.》

《좋아요.》

그처럼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분은 나에게로 슬그머니 옮겨지는것 같았다.

이윽고 밥상을 다 차려놓은 아버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시고는 창문가로 다가섰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도 마음을 진정하기 힘들어했는지, 왜 그렇게도 뜨거운 걱정을 이기지 못해 나몰래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으시는지 알수 없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이 왔다.

그런데 그는 바로 우리 어머니였다. 단정한 양복차림의...

아버지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꽃묶음을 어머니의 가슴가득 안겨주며 뜨겁게 말하였다.

《여보, 축하하오!》

어머니가 머리를 숙이며 눈굽을 닦았다.

《고마워요.》

어머니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가득 차오르더니 두볼로 흘러내렸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사이의 숨엄한 감정에 그만 굳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서있기만 했다.

드디어 나는 어머니의 팔목을 잡으며 물었다.

《우리 엄마 오늘은 웬일이세요? 아버지가 꽃다발을 다 주고...》

《그래!》

눈굽을 훔치시며 어머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하지만 우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이어 우리 세식구는 아버지가 정성껏 차린 밥상앞에 둘러앉았다.

어머니와 아버지앞에 놓인 술잔에 나는 정성껏 술을 부었다.

아버지는 평생 안하시던 술을 한모금 마시며 나를 다정한 눈길로 이윽히 지켜보시다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몇년전에 어머니는 중요한 대상건설의 기계부속 오작사고를 났다고 한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마음속 고충과 모태김때문에 남모르는 눈물을 많이도 흘리셨다.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품은 어머니는 밤잠을 잊고 시간도 아껴가며 일하고 또 일하였다. 그 나날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닐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기회도 마다하고 변함없이 아글타글 일하시였다.

어머니는 항상 내 한생을 일해도 마음속의 그 빛을 어떻게 다 갚을수 있으랴 하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당에서는 어머니의 이 마음속 사연을 다 헤아려주었고 조선로동당원의 값높은 영예를 안겨주었다. 그날이 바로 어머니가 정치적생명을 받아 안은 뜻깊은 날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어머니가 안고산 마음속 고충, 말없이 속을 태우시며 담배만 피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엇갈려 떠오르고 오늘은 또 인생에 드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웠다.

지금도 그날 저녁일을 떠올리느라면 눈곱이 찢히게진다.

×

나는 조선로동당기발을 우러른다.

정녕 가슴이 뜨겁다.

철없을 때 그림종이우에 올리면서도 그 폭과 깊이, 의미를 다 몰랐던 당기발!

마치와 낫과 붓을 새겨안고 휘날리는 당기발을 바라볼수록 어찌면 우리 가정의 운명이 저 기발에 고이 다 실려있을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격정으로 무뎠해진다.

한생을 농업전선에서 땀을 바친 할머니와 과학탐구와 후대교육에 진정을 바쳐가는 아버지 그리고 바이트의 불꽃을 날리며 로동계급의 량심을 빛내가는 어머니.

펄펄 휘날리는 당기발속에 친근한 모습들이 다 안겨든다.

세월은 흐르고흘러 로력영웅인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10년이 돼오고 이제는 년로한 몸이지만 아버지 역시 아직도 대학의 교단에서 제자들을 위해 열정을 다 바치신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년로보장을 받은 몸이지만 아직도 공장구내를 제집 트랙처럼 밟고나서야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정녕 바치고바쳐도 진함을 모르는 이들의 깨끗한 량심의 분출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문득 나의 뇌리에 함경남도 영광군의 한 귀화한 일본인녀성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렸던 그 구절구절들이 새록새록 되살아오른다.

과오를 범했던 미흡한 아들을 넓은 도량과 아량으로 따뜻이 품어안아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준 우리 당이 너무 고마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삼가 올린 한 평범한 녀성의 진정어린 편지의 사연...

그 편지를 받아보시고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랑의 회답서한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다심하신 사랑이 이 가슴에 그대로 물결친다.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당은 어머니, 다심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다.

자식이 잘되기만을 그토록 바라며 그 자식을 위해선 피와 살도 서슴지 않고 바치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기에 우리 천만군민은 조선로동당기발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기쁨, 한생의 운명까지 다 품어안고 휘날리는 저 기발!

그 품이 바로 조선로동당,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이다.

그 품에 천만군민이 심장을 잇고 그 손길을 꼭 잡고 고난도 시련도 다 이겨내며 끝까지 따라갈 의지를 안고산다.

마치와 낫과 붓을 새겨안고 펄럭이는 우리 당기발.

그것은 그대로 인민을 하늘로 떠올려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겁고 웅심깊은 사랑이며 인민과 혈연적인 정을 잇고 영원한 사랑을 부어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다심한 인정과 영원한 사랑의 품이다.

조선로동당기발!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우리 천만군민의 운명인 붉은 기발은 이 나라의 하늘가에 펄펄 휘날린다.

마치와 낫과 붓을 품어안고...



영원한 별로 빛나는 값높은 삶에 대한 불멸의 화록

—장편소설 《영원한 별》을 두고—

손 성 철

별,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뿌리는 영원한 별.
그 별은 어제든 오늘도 영원히 태양의 궤도를 따르며 밝은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항일의 청년영웅 김철주동지의 빛나는 생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모습으로 깊이 새겨져 천만 군민의 심장을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으로 세차게 고동치게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김철주동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실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가버린 인생이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를 형상한 장편소설 《광야의 별》의 편속편인 장편소설 《영원한 별》(최봉무)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받드는 자세와 립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이의 사상과 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신 불굴의 혁명전사로서의 김철주동지의 빛나는 삶에 대하여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작품에서는 제기한 문제에 밀착된 두 분야의 생활화폭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형상과제를 해명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먼저 김철주동지의 혁명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반일부대공작과 관련한 투쟁화폭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1933년 8월에 들어서면서 안도를 포함한 동만지구의 정세는 매우 엄혹해졌다.

일제의 탄압이 가증되는 속에 놈들의 민족리간정책으로 하여 조선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지어는 무참히 학살하는 구국군부대들의 행동이 우심해졌으며 일제의 《토벌》공세에 겁을 먹은 적지 않은 부대들이 일제에게 투항귀순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반일련합전선형성문제는 단

순히 구국군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시고 이 사업의 진두에 서시여 온갖 시련을 한몸으로 헤쳐나 가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강의한 의지와 만인을 감탄케 하는 친화력으로 안도지구(연길, 화룡)의 반일련합전선형성에서 제일 걸린 고리였던 서규오의 평일군을 반일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시고 일제의 대병력앞에서 겁을 먹고 주전을 세우지 못하고있던 손령구와 구주, 구송의 구국군부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련합전선대오에 굳건히 세워주시였다.

반일련합전선형성의 성과적결속은 김철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또 하나의 업적이었다.

이와 함께 소설에서는 반《민생단》투쟁과 관련한 생활화폭을 의의있게 전개시키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받드는 김철주동지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더욱 부각하여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에서는 당시의 극좌적인 반《민생단》투쟁의 역사적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신 김철주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부각하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자신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라는 자각을 가지고 사업하시였으며 수령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구당비서 김정룡과 김철주동지에 대하여 양심을 품고있던 리억만은 극좌적인 반《민생단》바람을 몰아온 조아범에 편승하여 미친듯이 날뛰다.

극좌적인 반《민생단》투쟁,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연합전선로선이 철저히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그이의 절대적 권위와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권위를 보장하시는 김철주동지의 형상은 조아범과 그의 하수인들과의 정면대결에서 더욱 고조되고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진행된 다진강에로의 유격구이동은 일제의 《토벌》로부터 유격구를 보위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로선이라고 그 정당성에 대하여 립증하시는 김철주동지의 사리정연한 말솜에 말문이 막힌 조아범은 함부로 **김일성**동지의 이름을 람용하지 말라, 반일부대공작 부장이 **김일성**동지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아는가고 력설한다.

조폭하고 첩면피한 그자에게 내가 바로 조선 인민혁명군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친동생이라고 한마디만 하여도 그자들을 단번에 눌러놓을수 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훼손시킬수 없는 그이이시였기에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놈들과 견결히 맞서 싸우신다.

김철주동지께서는 그 누구의 권위를 대고 《죄행》을 모면해보려는것이 아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마땅히 **김일성**동지의 혁명로선과 의도를 따라야 하며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의문시하거나 방관시하는자들은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단호히 언명하신다.

이러한 순결무구한 절대불변의 충정을 지니신 김철주동지의 투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는 더욱 굳건해졌으며 수령님의 전사로서의 김철주동지의 삶도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자신의 삶을 철저히 수령의 전사로, 태양을 옹위하는 별로 간주하고 불같이 살다 불같은 생을 마친 신 항일의 청년영웅 김철주동지!

하기에 반일의 길에서 김철주동지와 뜻을 같이한 서규오는 그이의 최후에 접하여 절통하게 웨친다.

《아, 절통하오!...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에 따라서 흙이 될수도 있고 별이 될수도 있소. 진정... 그는 만주광야의 별이요! 영원히 빛나는 별이요!》라고 웨친다.

이 웨침은 서규오 한사람뿐아닌 두의순, 손령구를 비롯한 구국군두령들로부터 병사들, 유격대장 김일룡, 정치위원 김정룡과 유격구의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웨침인것으로 하여 김철주동지의 형상은 독자들에게 더 깊은 여운과 폭발같은 감흥을

안겨주고있으며 여기에 소설이 가지는 형상의 전인력이 있다.

장편소설은 반일연합전선을 실현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가장 충직하게 받드신 김철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극적전인력있는 재인 구성조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력사에 충실할 때 형상은 진실해지며 문학은 생명력을 가진다.

혁명소설문학인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실재한 력사적인 물들이며 그들의 생활의 흐름을 따라 펼쳐지는 이야기 역시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한것이다.

소설은 우선 실재한 력사적인물들을 설정하고 그들의 관계를 인생관의 관계로 깊이있게 파고들어 형상함으로써 형상의 진실성, 구성의 극적전인력을 보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구성의 깊이를 보장하는데서 인물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의 관계로 깊이 파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김철주동지를 중심으로 긍정인물집단과 부정인물집단을 설정하고 작품의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그들의 사상적대립, 인생관적대립으로 형상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은 김철주동지와 구국군두령 서규오, 극좌적인 반《민생단》투쟁의 주범인 리억만과의 관계이다.

소설은 반일연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정열을 다 바치신 김철주동지와 조선사람이라면 무력대고 질시하고 생활에서는 조폭하고 편협한 서규오의 인생관적대립으로 설정한 인물관계를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연합전선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뜻을 같이하는 숭고한 국제주의적동지애의 관계로 승화시켜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연합전선을 실현하는 길에 조종인민의 피땀한 원수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가져온다는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간직하신 김철주동지께서는 한몫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편협하고 변태적인 서규오를 참된 애국, 애족의 길로 이끌어주신다.

누구도 서규오에게 접근할 생각을 못하였지만

김철주동지께서는 그의 애국의 마음, 평일의 사상을 귀중히 여기시고 수백리길을 걸으시어 귀한 약재를 구해오시며 병구완도 해주시고 자체모순속에서 지난날의 자기를 찾지 못해 헤매이는 그를 반일련합전선의 대오에 세워주신다.

9.18사변후 평일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던 구국군두령 서규오.

그가 들었던 평일의 기치, 그것은 곧 애국이었으며 서규오의 인생관이였다. 하지만 그는 일제의 《토벌》공세에 겁을 먹고 신념이 허약해졌으며 방도예와 친탄장부대의 참모장의 끈질긴 회유속에서 순간이나마 방황하였다.

민족을 등지고 일제에게 투항귀순하느냐, 평일의 기치를 끝까지 들고 일제와 싸워 민족의 장한 아들로 되느냐 하는 생사를 가르는 부대병사모임에서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한 길, 반일의 길에 들어설 결심을 내릴수 있는것은 김철주동지의 사심없는 헌신과 그자신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소설에서는 김철주동지와 리억만과의 관계 역시 심각한 인생관적대립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투철한 신념이 없고 개인야심만이 골수에 배인 비렬한 인간추물 리억만, 일신의 리익을 위해서는 민족도 서슴없이 배반하는 역적이였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련합전선로선을 결사관철해나가는 김철주동지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앞에서 운명의 파멸을 면치 못한다.

소설은 일신의 향락과 리익, 개인야심을 인생관으로 삼는 민족반역자의 말로는 달리 될수 없으며 진정한 애국, 애족의 마음을 지닐 때만이 민족의 기억속에 력사에 길이 새겨진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소설의 극적구성에서 이채를 띠고 안겨오는것은 중국인상인 왕풀로인의 형상이다.

매개적인물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작품형상의 론리성과 진실성, 극적견인력이 담보된다.

소설의 왕풀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다.

실재한 력사적인물인 왕풀은 소설에서 매개적역할을 하면서 형상의 극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자기 조국에 대한 애착심, 민족을 위한 길에 자기의 소박한 량심을 사심없이 바치려는것이 그의 인생관이였다.

소설에서 왕풀은 서규오와의 련합전선실현을 위

한 김철주동지의 형상에 생활적바탕을 주고있다.

왕풀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서규오와 장사거태를 하는 파정에 친숙해진 인물로서 깨끗한 민족적량심을 가진 그를 통하여 김철주동지와 서규오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맺어줌으로써 소설의 형상은 추상성을 극복하고 진실감이 나게 전진할수 있었다.

이와 함께 서규오의 안해 러추란의 행방불명으로 하여 맺어지는 김철주동지와 서규오의 관계를 극적으로 맺어주는 인물도 왕풀이다.

반일련합전선실현을 위한 김철주동지와 서규오의 관계를 무리없이 생활적타당성을 가지고 형상되도록 하였다는데 왕풀의 형상적몫이 있다.

이렇게 소설은 실재한 력사적인물들을 설정하고 그들의 관계를 인생관의 관계로 파고들여 형상하여 구성의 깊이를 보장하였다.

소설은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도 극적이야기구성으로 특색을 나타내고있다.

소설에는 김철주동지와 서규오, 손령구, 두의순파의 관계속에 펼쳐지는 반일련합전선형성에 대한 이야기, 조아범, 리억만파의 관계속에서 펼쳐지는 극좌적인 반 《민생단》투쟁과 관련한 이야기, 유격구의 무기탄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펼쳐지는 마춘옥의 체포와 구출에 대한 이야기, 유격구출판물 《녀성해방의 종소리》발간배포와 관련한 이야기 등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며 호상교차, 병행하면서 형상의 밀도를 높이고 극적견인력을 보장하고있다.

작품에서 기본주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관철을 위한 김철주동지의 반일련합전선형성을 위한 투쟁이 어떻게 빛나게 결속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소설의 기본이야기—주선은 서규오를 비롯한 구국군부대들과의 관계속에서 반일련합전선형성과정으로 이어진다.

물론 소설의 전반형상에서 극좌적인 반 《민생단》투쟁과 관련한 이야기 역시 중요한 몫을 가지며 하나의 작품에 해당하는 주제를 내포하고있으나 이 이야기선은 소설의 주선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작품의 주제사상적문제를 해명하는데 이바지되고있다.

소설은 두 이야기선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관철을 위하여 투쟁하시는 김철주동지의 형상으로 일관시켜나감으로써 주선과 지선의 계선을 명

콩가을날에

리 찬 호

콩알같이 여문 콩알들이
웃음사태와 어울려 쏟아진다 쏟아진다
눈부신 맑은 하늘 한끝 향해
병사들의 기쁨 치솟는다

홍안의 얼굴엔 웃음이 철철
혈색좋은 근육들에 넘치는 힘
콩가마니 끼고 메고
콩창고로 나르는 발걸음엔 바람인다

풍작이룬 기쁨 코노래에 담으니
입가마다 빙그레 웃음을 물었다
래년엔 콩창고 두배로 늘구잔다
꿀짝들도 콩사태로 다 메꾸겠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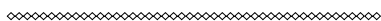
이런 때 웬일인가
령길에 차를 세우고 증대에 들어선 장령
병사들과 함께 《도리깨타령》에 맞춰
도리깨를 휘두르더니

그 모습 보고싶어서
그 기쁨에 함께 취하고싶어서
도리깨를 총대마냥 집고섰던 그
웬일이나 붙어지는 눈언저리

한줌 콩을
두손에 무겁게 받쳐들고서
장령은 그만 고개를 떨군다
끝내는 나직이 흐느끼고야만다

—이제… 이제 그리도 중하시여
아버이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까지도 마음쓰시었으니
이 콩가을의 기쁨 함께 나누시었으면!…

아, 풍요한 가을날의 그 흐느낌
산천이 들었는가 봐… 봐…
병사들의 위대한 아버이를 그리며
해도 콩창고지붕을 못 떠나는 가을날이어



백히 하면서도 긴밀히 밀착시키었다.

이러한 형상은 김철주동지의 생의 마지막시기의 실재한 역사적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작가의 창작적의도와 관련되며 이로 하여 소설에서는 작가의 창작적개성이 드러나고있다.

다른 이야기선들 역시 자기의 몫을 뚜렷이 살리면서 주선을 살리는데로 복잡되도록 형상하여 구성조직의 립체성을 보장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해당 력사와 사물에 정통하신 김철주동지의 리지적인 모습을 보여줄수 있는 일화들을 삽입하여 형상의 정서적굴곡을 보장하고있다.

김철주동지께서 등사기굴대를 만드는 오길문의 창조성에 대하여 평가해주시면서 들려주시는 무언박의 예지와 관련한 일화는 하나의 짙막한 이야기이지만 조형미가 나는 형상을 창조하는데 이바지하면서 김철주동지의 리지적인 모습과 창조적사업능력을 형상적으로 부각시키고있다.

소설은 이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범과 맞서

싸워이기신 일화를 능숙하게 삽입하여 호랑이도 무서워 달아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담대한 기상을 극적으로 심화시켜 형상하였으며 이로 하여 형상의 립체성을 보장하고있다.

순차식구성법으로 형상된 소설은 김철주동지를 중심으로 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는 생동한 언어, 중국의 력사와 문화, 지리, 세태풍속에 대하여 깊이 알게 하는 생동하고 참신한 성구, 속담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지성도를 높이었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 《영원한 별》은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서 불같이 사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빛나는 한생을 견인력있는 예술적화폭속에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영원한 별》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김철주동지의 혁명적인생관을 깊이 새겨주며 널리 애독되고있으며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할것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겨주고있다.



뒤돌아본 어제

홍 남 수
그림 김 광 석

선우일명아바이의 이야기

...

우리 연합기업소 책임비서동지가 아니었다면 난 10년전에 벌써 기계공장사람이 아니었을거우다. 그때 예순번째 생일을 쇠고나면 인차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책임비서동지가 날 공장의 고정재산으로 만들어놓았지요. 지금에 와서 난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인생의 말년까지 이렇게 공장에서 떠받들리우고있으니 말이우다.

참, 우리 탄광기계공장에서 만든 쇠물압연기에 대해서 물었지요?

10년전의 일을 되새겨보게 되는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아무리 충격적인 일도 망각속에 묻혀버리지만 난 쇠물압연기를 (쇠물련속주조에 의한 강판생산기지) 만들던 그때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어느날이었지요.

공장정문으로 들어선 웬 낯선 사람이 곧장 주강 직장쪽으로 걸어가 커다란 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이는 선살가량 나보이는데 총센 머리칼을 내놓고는 별로 특징적인데가 없어보이는 사람이었지요. 그래 그런지 공장사람들은 그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았습다. 시간이 펴 흘러 주강직장 철문이 다시 열리며 그가 나올 때 몸집이 통투무레한 지배인이 총총히 마주가 거북이 인사를 하는것을 보고서야 그를 주시해보게 되었습다.

그는 철문앞에 서서 손세를 써가며 뭔가 열정적

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배인이 무슨 말인가 대답하면 머리를 끄덕이기도 하고 습관인듯 손가락으로 총센 머리칼을 뒤로 쓸어넘기기도 했습다.

그날 퇴근무렵에 지배인이 날 찾아왔더군요. 그는 무심한 말투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문득 말머리를 돌려 내가 몇년전에 만들던 쇠물압연기도면을 진사하고있는가고 물더군요. 난 그제서야 그가 우연한 걸음을 하지 않았다는걸 알고 입을 꼭 다문채 말을 하지 않았습다.

《도면을 진사하지 않은 모양이군요. 하긴 실패한 도면을 아직까지 가지고있을수가 없지요. 선우아바이, 쇠물압연기를 다시 만들어볼 생각이 없습니까?》

난 뜻밖의 말에 눈을 치떴습다.

《아닌밤중에 흥두깨라더니 그건 무슨 말인가? 난 래일모래면 집에 들어갈 사람이네. 그리고 난 그 생각을 잊은지 오래오.》

내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하자 지배인은 무슨 의미에선지 머리를 끄덕끄덕했습다.

몇년전에 난 당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치부하던 쇠물압연기를 만들어볼 결심으로 이태나마 애쓰며 고생했지만 쇠물압연기는 좀처럼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놓지 않았습다. 그렇게 되자 해당 상급기관에서는 내가 지금껏 연구과정에 랑비한 자재와 로력, 자금자료를 종합하여 내놓고 되게 비판했습다. 가뜩이나 어려운 공장현형에서 그 수자는 작은것이 아니었지요.

며칠동안 많은 생각을 하던 끝에 난 결김에 쇠

물압언기를 건어치울 결심을 했다. 눈앞의 현실은 내가 침착하게 생각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더우거나 많은 의혹과 불신까지도 마음속에 앉혀 주었지요.

지배인은 그때 내가 겪은 일들과 심리적충격을 충분히 리해한다는듯 한 표정을 하고있더니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에도 난 한참동안 한자리에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온 공간을 짝 채우며 호합진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고있더군요. 그해의 첫눈이었습다. 고개를 젖히고 펄펄 내리는 눈을 쳐다보던 난 까닭모를 쓸쓸한 감정이 온몸을 휩싸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속에는 이밤의 어둠과 정적과도 같은 고독만이 차있는것 같은 감정이 말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고정불변하지만 인간생활은 얼마나 변화무쌍한것인가? 오늘에 와서 상서롭지 못했던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되새겨보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다음날 출근하니 석탄공업대학을 갓 졸업하고 온 기사장이 시험소에 나타나 지배인방으로 모두 가자고 합디다.

《아침부터 무슨 일지요?》

시험소장이 물었지만 그는 대답은 않고 《빨리 갑시다.》 하며 마치 끝난 사람처럼 돌아섰습다. 기사장이 왜 저렇가? 이상한데...

사람들은 은연중 긴장감에 사로잡혀 그를 뒤따라갔습다. 지배인방에 들어서니 어제 공장에 나타났던 그 낯선 사람도 와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책상에 한쪽팔굽을 얹고 지배인과 이야기를 하던 그가 재빨리 눈길을 돌려 기사장을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별하였는데 그의 눈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꼭 어떻게고 적어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사람의 마음에 찌르르— 하니 와닿는 그런 눈빛이라 할가....

방안이 이윽고 조용해지자 끄— 하고 몸을 일으킨 지배인이 무슨 개회사를 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을 이렇게 모이라고 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장을 활성화하여 탄광들에서 걸린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할 방도를 토론해보자는겁니다. 지금껏 동무들은 공장에서 중추적역할을 해온 기술자들인것만큼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그 낯선 사람은 수첩에 무슨 글을 재빨리 쓰고나서 눈길을 들었습니다. 이마에 가느다란 주름살을 잡으며 그는 석션한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지금 탄광에는 부족되는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탄부들은 다른것은 좀 부족되도 탄차와 조구만 있으면 탄을 캐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는지 토론해봅시다. 제 연합당위원회 책임비서입니다. 인사가 늦어 미안합니다.》

《책임비서가 새로 왔다더니 저 사람이구만. 이름이 윤경춘이라던지...》

《안주탄광에서 당일군을 한 사람인데 기술자들한테는 얻어졌다누만.》

난 수군수군 주고받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책임비서동지가 내놓은 문제의 답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탄차, 조구?... 문제의 답은 철판이었습다. 그렇다면 혹시 책임비서도 쇠물압언기를?... 그래서 어찌 지배인이 찾아와 그 말을 꺼냈던게 아닐가....

이때였습니다.

《선우일명동진 이 공장에서 오래동안 일했다지요? 쇠물압언기를 어째서 포기했습니까?》

책임비서는 곧바로 날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첫 물음이 나한테 날아오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던지라 난 당황했습니다. 눈을 어디다 건사할지 몰라 허둥거리던 난 잠자코 고개를 숙였지요.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다. 사람들은 선뜻 깨뜨릴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침묵속에 어쩔수없이 말려들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책임비서가 활기편 어조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서방문화를 정통하고도 늘 긴 머리태를 늘이고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외국청년 몇명이 그의 머리태를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는 태연한 표정을 짓고 영문으로 된 신문을 꺼꾸로 들고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외국청년들이 더욱 승이 나서 그의 무지를 비웃기 시작하자 그는 류창한 영어발음으로 <이 글자는 뜻이 단순하기짝이 없어 꺼꾸로 봐야 재미있거던.> 하고 또 박도박 말했습니다. 그의 기지있는 공격에 외국청년들은 즉석에서 뺄소니치고말았습다.》

그는 과묵한 성격임이 틀림없었으나 류다른 랑만을 소유하고있는듯싶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음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발전되었다고 자처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은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자 자기들의 경제발전수준을 뽐내며 우리를 시비질하고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오늘 탄광기계공장을 활성화하는 문제는 연합기업소의 전망과 연결된 관건적인 일입니다. 동무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없혀져있습니다. 작전을 면밀하게 하고 석탄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떤 기술적종자를 쥐는가에 따라 목표에 정확히 명중될수 있습니다.》

두무릎을 짝 붙잡고있던 난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책임비서동지는 나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싶다면서 주강직장앞에 꾸려놓은 공원으로 갔습다. 난 스적스적 그를 따라갔지요. 눈이 온 뒤여선지 날씨는 별스레 따스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더니 허리를 굽혀 어디선가 날려온 황든 은행나무잎을 집어들고 한참동안 들여다보더군요. 마치 그 나무잎에 어떤 의미가 씌여져있는듯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내던지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우아바인 자식이 몇입니까?》

《팔과 늦게 본 아들녀석이가 하나 있습니다.》

《나와 신통히 같군요. 자식들이란 참 별스럽습니다. 뭇다가도 굵고 굵다가도 뭇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던 난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책임비서동지, 뭘 에둘게 있습니까. 난 책임비서동지가 무슨 말을 하자고 그러는지 다 압니다. 나도 당의 배려로 김책공업대학(당시)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내가 가지고있던 기술이 쓸모가 있었지만 이젠 낡았습니다. 사람도 늙고. 이젠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 일을 젊은 사람들에 맡기십시오.》

그는 내 손을 잡아쥐며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바이, 어떤 일은 한생을 두고 새겨두어야 하지만 또 어떤것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는 일도 있지요. 아바이, 우리 함께 손잡고 쇠물압연기를 다시 시작합시다.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교훈만을 찾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겁내는것과 생명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것은 서로 다른 견해라고 난 생각합니다.》

난 그가 무엇을 녀두에 두고 이야기하는지 알았습니다. 슬며시 그의 손에서 내 손을 뺐습니다.

(다 늙은 내가 이제 와서 그것을 깨달은들 무슨 필요가 있는가? 더우기나 난 자신을 되돌려세울 힘이 없어. 책임비서동지도 나를 이해할 때가 있겠지. ...)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이웃탄광에 시집간 딸이 와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냐? 사돈집에서는 다 무고하냐?》

《당신두,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있으니... 매일이 당신 생일이 아니예요. 가족들끼리 당신 60돐생일상을 차려자고 그래요.》

로친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상을 받아야 맛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오.》

《아버지,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일인데...》

《됐다. 더 말하지 말아.》

난 이래저래 마음의 안정을 잃었던지라 통명스레 딸애의 말허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내려간 딸이 사이문을 닫고 이렇게 말하는것 같더군요.

《어머니, 아버지말대로 하자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는것 같아요. 생일상을 차려도 아버지한테 좋은 날이 될것 같지 않아요.》

《무슨 감투끈인지 모르겠대.》

난 팬한 소리를 하여 집안의 분위기를 흐려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 어째서 마음의 안정을 잃고 방황할까? 쇠물압연기때문인가? 과연 그것이 내 운명과 이렇게까지 뻗수없이 연결되어있단 말인가?...

불현듯 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리기적타산을 앞세우면 정신적빈곤이

뒤따르기마련이다. 쇠물압연기를 다시 시작하자고 할 때 분명히 난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위구심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로부터 겪어야 할 괴로움과 번민, (그것은 내가 이미전에 체험한 일이었지요.) 내 나이에 인생전환이 있을수 없다는 리기적타산을 앞세우지 않았단 말인가? 책임을 도피하는것이 도리어 자기를 해친다는것을 내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교훈만을 찾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쇠물압연기를 다시 시작해봅시다.》

책임비서가 하던 말이 귀전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러자 난 그가 나에게서 쇠물압연기만이 아닌 뭔가 크고 웅심깊은것을 바라고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공업시험소 소장의 이야기

...쇠물압연기의 구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쇠물 주입구, 쌍롤, 주철로 된 철판안내판. 크게는 구조가 이러합니다. 쇠물을 녹여 주입구에 투입하면 천천히 돌아가는 (1분에 2회전) 쌍롤밀로 통과하면서 그대로 철판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는 아주 간단하지만 세계적으로 쇠물압연기를 만든 나라는 몇개 나라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는 기사장방에 모여 쇠물압연기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리었습니다. 유독 선우아바이만이 논쟁에 끼여들지 않고 입에 빗장이라도 지른듯 졸곤 침묵을 지키고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스러워 나는 물었습니다.

《선우아바이는 왜 함구무언입니까?》

《소장동문 나더러 무슨 말을 하라는건가?》

선우아바이의 눈섭이 성난듯 꿈틀 움직이였습니다. 할말이 없더니? 논쟁의 중심에 서야 할 사람은 아바이가 아닌가? 그렇다면 아바이는 무엇때문에 낡은 도면을 들고나와 일을 벌려놓았는가.

바로 이틀전에 선우아바이는 종이색같이 누렇게 퇴색된 실패한 쇠물압연기도면을 들고 나왔던겁니다.

《아니, 이걸 ஏ래 가지고있었습니까?》

《버리고싶지 않더구만.》

(미련이란 참...)

나는 도면을 대충 들여다보고나서 실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우아바인 어떻게 할 결심입니까? 이젠 나이도 많은데... 짐승도 한번 빠졌던 구멍이는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차마퀴나 만드는 우리 공장에서 쇠물압연기를 만든다는게...》

그의 입귀에 주름살이 깊이 패이였습니다.

《난 소장도 책임비서동지처럼 말해줄줄 알았는데... 옳네. 피해가지. 하지만 소장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모르지? 난 그 실패를 수치로 여기고 죄책속에 살았네.》

선우아바이는 도면을 주섬주섬 거두며 이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공장의 기술자들이 모여앉았던 겁니다.

《립장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실패의 쓴맛을 또 보지 말고...》

그가 한쪽입귀를 쥔 그리며 이상하게 웃더군요. 그것은 경멸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그가 결상을 뒤로 밀어놓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각이한 표정이 비낀 눈길로 그한테로 쏘아붙였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지배인이 먼도자국이 푸릿한 등실한 턱을 쳐들며 아바이를 향해 말하자 그는 우그렁던 가슴을 짚고 찼습니다.

《난 이제껏 내가 이 공장에 필요한 존재인가를 생각해봐왔다. 몇년전에 내가 쇠물압연기를 실패한건 분명히 리기십이 깔려있었기때문이었수다. 이번엔 내 죽으나사나 쇠물압연기를 만들어내겠다.》

지배인은 투박한 손을 올려 약간 두드러진 이마를 썩썩 문지르고나서 한마디한마디 되새기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런 결심을 하면 쇠물압연기를 만들어낼수 있소. 공업시험소 소장동무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있는지 알아야겠소. 난 동무가 이 방에 손님으로 들어와있는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만.》

사실 난 쇠물압연기의 기술적문제와 공장의 기술능력을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나의 론리를 주장했었습니다. 난 그것이 무의미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란 참... 지배인한테서 그런 말을 듣게 되자 난 선우아바이에 대한 애증이 불만이 불꽃 치밀더군요.

《선우아바이, 뭘 제기할게 없습니까? 련합당위원회에서는 아바이가 요구하는것이라면 날아가는새도 잡아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술협의회를 끝내면서 지배인이 묻는 말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영일이를 (그의 아들도 시험소에서 일했습니다.) 조수로 쓰겠수다.》

《그렇게 하십시오. 영일동무, 어깨가 무겁소.》

이때였습니다.

《저... 지배인동지...》 하며 방안구석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더니 무슨 말인가 할듯 입술을 움직거리다가 지배인의 엄엄한 눈길과 마주치자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바로 선우아바이의 아들 영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과 아바이를 번갈아보며 리해할수 없다는듯 수군수군 하였습니다.

그후 쇠물압연기의 설계는 보름만에 완성되었고 드디어 설비가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책임비서동지는 자주 기계공장에 내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주었고 어떤 땐 필요한 자재를 자기 차

로 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가공된 설비는 차례로 조립되었습니다.

쇠물압연기의 첫 시험은 1월말경에 진행되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긴장속에 살고있던 사람들은 마음을 옥죄이며 첫 시험을 진행하는 쇠물압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시험은 실패였습니다.

주강직장은 샅시에 썰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누구도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좀 늦어 주강직장에 들어선 책임비서동지를 생면부지처럼 쳐다볼뿐이었습니다. 찬바람을 맞아서인지 얼굴에 선명한 빛을 띤 책임비서동지는 마치 눈길로 사람들을 밀어제끼듯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쌍롤밀을 기웃이 들여다보는 선우아바이한테로 다가갔습니다. 선우아바이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책임비서동지, 쌍롤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책임비서동지는 아바이의 말을 긍정하듯 숨을 크게 내쉬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능적인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단순히 쌍롤에만 국한시키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편쇄반응과 같이 일어나게 될, 아직 많은 기술적문제들이 미지수로 남아있음을 포착한것이었습니다. 또 그 미지수의 답을 찾자면 얼마만큼 높은 기술이 안받침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고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이란 참을성과 시간으로 이루어진 합성물이라고 했던지... 내 생각입니다.

쇠물압연기의 열한번째 시험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쇠물압연기에 대한, 더 정확히 말하면 선우아바이에 대한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우아바이가 이제 또 비판받게 되지 않을까?》

《아바인 그 나이에 고생을 사서 하는것 같애. 뭘 바라고 그러는지...》

《췌, 영일이가 듣겠네.》

두런두런 말하던 사람들은 영일이를 흘금흘금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웅기중기 앉아있는 사람들과 좀 떨어져있던 영일이는 분명히 그들의 말을 알아들은듯 움쭉 일어나 어데론가 가버렸습니다.

(만약 쇠물압연기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도 련대책책임을 질수 있지만 아바이는 더 큰 정신적 타격을 받을것이다. 아바이가 그것을 각오하고있을까?)

쇠물압연기를 시작하면서 선우아바이한테서 눈에 뜨이게 나타난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를 부정하듯 민첩해진 행동거지며 힘이 느껴지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아직은 그의 이 모든것이 반복되는 실패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성에서 내려온 일군이 주강직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수수한 편이었지만 윤기 흐르는 까만 구두를 신은 발은 공장바닥에 널려진

쇠조박들을 피하며 조심히 옮겨지더군요. 쇠물압연기를 한참동안 들여다보던 그는 아바이한테로 돌아왔습니다.

《18세기 기계제산업시대의 유물같은. 아바인 쇠물압연기가 어떤건지 알고있습니까? 최첨단을 요하는...》

그는 더 말을 하고싶지 않았던지 군입을 껌 다시고는 훌쩍 가버렸습니다.

선우아바이는 자존심이 상한 거센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듯 입술을 쉬임없이 실룩거렸습니다.

《뭘 그러니까? 우린 누가 뭐래도 할말이 없지요.》

내놓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쇠물압연기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립장으로 나와 아바이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엉켜있던지라 난 성일군을 두둔하게 되더군요. 선우아바이의 얼굴에 특징인 한쪽입귀에 주름살이 깊이 패이는 모양이 지어지더니 의외라는 듯 눈을 흘렸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지. 그럼 소장은 어째서 압연기에 붙어있나? 자신없으면 손털고 나갔을 же지...》

《아니게아니라 사람들도 이젠 지쳤습니다. 책임비서동지도 발길이 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뒤소리도 있습니다. 오자마자 행정사업에 너무 나선다고...》

나는 책임비서동지가 한달강습에 올라간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정이 내키는대로 말했습니다.

《소장도 그렇게 생각하나? 책임비서동지가 기술자들을 각성시키며 일하는것이 행정실무에 대한 참견인가? 일하는 사람을 놓고 뒤에서 시비질하는것들은 불필요한 존재들이네. 난 책임비서동지를 존경하네. 그가 책임비서여서가 아닐세. 우린 그한테서 배울것이 많네.》

아바이가 이런 사람이였는가? 언제 봐야 기술문제를 내놓고는 주위세계에 관심을 돌리지 않던, 더우기 사람의 평가를 좀해 이러구저러구 입밖에 내여본적이 없는 사람이... 그는 시공간적으로는 오래지 않았지만 책임비서동지에 대한 남모르는 정신적 공감을 가지고있었던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 한달강습을 끝내고 돌아온 책임비서동지가 공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녁무렵이였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와 방에 들어서니 책임비서동지가 웃주머니에 손을 찌른채 창박을 내다보고있었습니다. 그가 불쑥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소장동무, 지금까지 몇번이나 실패했소?》

《15번입니다.》

난 기억하고있던 수자를 제껴 대답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그가 생각을 달리할수 있다는 미련을 가지였습니다. 헌데 그의 두눈은 놀라우리만큼 생기를 띠었습니다. 난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달리한단 말인가?

불쑥 그는 다른 말을 물었습니다.

《성에서 내려왔던 사람이 설레발을 쳤다면 서?...》

문득 표정이 달라진 그의 눈길은 내 시선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하긴 온 연합기업소가 쇠물압연기에 촉각을 세우고있는데야...

《좀 모욕적인 말을... 쇠물압연기를 보고 18세기 기계제산업시대의 유물을 보는것 같다면서...》

《음-》

그는 짝 틀어진 주먹을 입술에 꼭 눌러대며 입안 소리를 내더군요. 그 주먹이 입술에서 떨어지며 책상을 팡 때렸습니다.

《그래 동문 그 말을 듣기만 했소?》

평소에 낮고 약간 느린 편인 그의 목소리가 그때는 어찌나 흥분했던지 방안을 쩍- 울리였습니다.

《책임비서동지, 전 사실...》

무슨 변명을 하려고 했던지...

책임비서동지는 돌아서 얼어붙은 창문을 활 열어제끼었습니다. 한겨울의 찬바람이 방안으로 밀려들어와 지긋게 놀리웠던 더운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책임비서동지는 《소장동무, 이런 말이 생각나오?》 하고 물었습니다.

《〈과학에는 순란한 길이 없다.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학의 가파른 오솔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사람만이 과학의 빛나는 절정에 도달할수 있다.〉 새것의 탄생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거요. 형언 못할 고생도 할수 있고 사람들 호상간의 감정도 삼거웃처럼 엉킬수도 있소. 난 동무가 쇠물압연기에 대해 반신반의하는줄은 알고있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항변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인줄은 몰랐소.》

《예?》

비교적 굴곡없는 순란한 생활을 해온 난 사람들 호상간에도 감정의 마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그가 사람을 일면적으로 평가한다는 생각에 누를길 없는 막연한 반발심을 품게 되더군요. 창문가까이에 서있는 황철나무는 무거운 서리를 얹고 찬연한 별들이 밝게 타는 2월의 하늘을 떠이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잠시후 공장정문을 나서 어디론가 빠른 걸음을 옮겨놓던 (나는 그가 연합기업소로 올라가는줄 알고 바래워주려고 따라나섰습니다.) 책임비서동지는 선우아바이네 집쪽으로 꺾어들었습니다. 우리가 1동2세대로 된 아바이네 집마당에 들어섰을 때 문득 방 안에서 상서롭지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공장에선 온통 아버지 소리뿐이에요.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고생시킨다고...》

아들 영일이의 말이였습니다.

《난 그런 뉘뉘한 소리는 한마디도 귀에 안 들린다. 쇠물압연기를 성공 못하면 내가 로루밑에 들어가겠다.》

《아버지는 자기만 생각하고있어요. 아버지는 실

패를 해도 집에 들어오면 되지만 그 후과는 공장에 남아있는 저한테 온다는걸 생각 못하나요? 난 다른 공장으로 가고말겠어요.》

《뭐라구?》

《애, 아버지한테 그게 할말이냐? 못쓴다.》

녀인의 목소리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방안에서는 더이상 말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던 책임비서동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난 두손을 숨웃주머니에 찌르고 그의 뒤를 스택 스택 따라갔습니다. 탄광마을 웃쪽에서 차디찬 바람이 불어오며 얼굴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책임비서동지는 갈길에서 걸음을 멈추며 혼자 소리마냥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고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소. 누구나 깨끗한 량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경쟁속에 산다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소? 신성한 로동이 아니라 돈벌이만 생각하고 허영심만 생길거요. 소장동무, 우리가 왜 첩판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꾸리자고 하겠소? 첩판이 귀한데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정신을 심어주자는것이 아니겠소.》

이때 누구인가 전지불을 펴고거리며 이쪽으로 걸어오다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책임비서동지는 마주가며 말했습니다.

《선우아바이군요.》

《아니, 책임비서동지시군요.》

선우아바이가 무척 반가와하는것이 확연하게 알리더군요.

《공장에 나갑니까? 오늘은 집에서 쉬실게지...》

《공장에 나가야 마음이 안착되니 어찌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때 책임비서동지가 발이 미끄러지며 몸을 비칠하는 아바이의 팔을 일른 붙잡았습니다. 열댓걸음 묵묵히 걸음을 옮기던 책임비서동지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선우아바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생활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평가도 뒤따르고... 오늘은 그 평가가 잘못될수도 있지만 후날에는 모든것이 명백해질겁니다. 시대와 인민을 위해 사는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아무렴요, 요즘에 와서 난 사람이 일생에 공백을 남기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것을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지 새롭게 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벌써 반생이 지나갔다는 말도 있지요.》

그들사이에 오가는 말을 듣느라니 나에게는 아바이네 집에서 있었던 일이 머리속에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이겨내는 아바이가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사람은 어느때 강해지고 어느때 무력해지는가? 아바이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있는것일까?...

다음날 선우아바이는 갑자기 현장에서 쓰러진채도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선우일명아바이의 이야기

...

난 육체가 나를 배반할줄 몰랐습니다.

보름나마 병원침대 신세를 지고있자니 당장 일어나 공장에 가고싶은 생각밖에 없더구만요. 손발은 편안했지만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더구나 공장소식을 모르고있는것이 더 안타까웠지요.

그러던중에 하루는 아들녀석이 찾아왔더군요. 난 그녀석이 미처 대답할사이도 없이 궁금하던 일들을 연방 물어보는데 영일이는 건승건승 대답을 하고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쇠물압연기시험이 또 실패했어요. 아무래도 성공할것 같지 못해요. 아버지도 병원에 입원한바에는 손을 떼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나도 다른 공장에 수속을 하는중이에요.》

《넌 그 말을 하고싶어 왔냐? 아버지를 더 괴롭히지 말아.》

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들녀석은 그러건말건 계속 날 괴롭혔습니다.

《아버지, 쇠물압연기는 정말 가망이 없어요.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아버지는 발명권을 받는것으로 끝날겁니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받은 발명권이 한두개입니까? 그렇다고 아버지의 인생이 달라진건 됩니까?》

난 속이 후두둑 떨려났습니다. 혈관속으로 흐르던 피가 어딘가 목구멍밑에서 일시에 멎었다가 머리끝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아들녀석의 말이 내 한생에 종지부를 찍는것만 같은 억한 심정에 그만 짹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덜된 녀석같이니...》

난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결국 나의 한생에 남은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허무한 생각이 갈마들었습니다. 과연 공허뿐이란 말인가?...

사실 내가 아들녀석을 조수로 삼은것은 내판의 생각이 있어서였었다. 늦게 본 그녀석은 그만하면 머리가 좋은 편이었었다. 무슨 기계를 한두번 들여다보면 제격 파악하군 했지요. 그런데 그녀석은 자기의 재간을 써먹을 생각을 통 하지 않았었다. 뭐 우리 탄광기계와 같은 작은 공장에서는 크게 머리를 쓰며 할일이 없다는거였다. 그래 이번 일을 통해 그녀석의 머리도 바로잡아주고 기계속을 들여다보는 눈을 더 띄워주려고 했던건데...

난 그날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사회와 집단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깨우쳐주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뼈저리게 절감하

였수다. 삼시에 온몸을 휩싼 피로에 잠들었던 난 간호원이 주사를 놓자고 와서야 깨어났지요.

아들녀석은 언제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았수다. 대신에 보이지 않던 쪽국화화분이 창턱에 놓여있지 않았습니까. 흰색의 몽실몽실한 꽃에서 풍기는 독특한 향기는 입원실안을 가득 채웠수다.

《한겨울에 좋은 꽃을 구했구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아이참, 연합기업소 책임비서동지가 가져왔어요. 아바이 몸보신에 쓸 좋은 보약도 가져오고...》

나는 무춤 굳어졌수다.

《날 깨울것이지...》

《책임비서동지가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책임비서동지한테서 아바이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책임비서동진 화초에도 조예가 깊더군요. 이 쪽국화는 생활력이 다른 꽃보다 몇십배나 더 강하다고 해요.》

간호원처녀의 얇은 입술사이로 꽃에 대한 상식이 샘솟듯 흘러나왔지만 난 다른 상념에 잠겨들었수다. 사람의 생명의 한계점은 어디까지일까...

병원에 실려온 날 어렴풋이 정신을 차리며 들은 말들이 생각키웠수다.

《수술을 꽤 견디어낼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견디어낼겁니다. 아니, 견디어냅니다.》

(누굴까? 귀익은 목소리인데...)

누구인가 내 손을 짹 잡아쥐었수다. 난 그 어떠한 힘에 순간적으로 눈을 떴수다. 책임비서동지가 내 손을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고있더군요.

《병을 어찌서 숨기고있었습니까? 아바이가 잘못 되면 누가 대신해주겠습니까?》

난 목이 짹 잠겨올라 아무 말도 할수 없었수다.

...

공업시험소 소장의 이야기

선우아바이는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도 압연기에 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생각해내어 인편에 보내오곤 하였습니다.

어느날 우리는 안주탄광으로 떠났습니다.

쇠물압연기의 심장부는 쌍틀이었습니다. 우리는 초기에 톨을 평복도의 X공장에 주문했었지만 몇달 후에 와보라고 하기에 자체로 철판을 용접하여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접부위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물결면이 고르롭지 못하여 실패를 하곤 했습니다. 하여 방도를 찾은것이 주철로 된 권양기드람을 톨로 쓸수 있다는것이였습니다.

2월말이었지만 날씨는 살을 에일듯 맵습니다. 찬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치는가 하면 책 방향을 바꾸어 서쪽에서 불어치곤 하였습니다.

자동차적재함우에 탄 우리는 추위를 막아보려고 비닐박막을 썼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퐁퐁 얼어 제대로 놀려지지 않았습니다.

버럭산이 넓은 벌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폐갱시킨 어느 갱앞에 폐기해버린 권양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범상치 않은 흥분을 느끼며 손뼉으로 재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횡재였습니다. 우연인지 주철로 된 드람의 원형너비가 우리가 만들어 시험하는 쇠물압연기의 톨과 일치한것이였습니다.

권양기는 썩 오래전에 폐기해버린듯 녹이 쓸대로 쓸어 해체하기가 험치 않았습니다. 하루해가 다 저물었을 때에야 드람을 해체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람을 싣고 떠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대기시켜놓았던 기중기차로 드람을 싣었습니다. 그런데 드람을 끌어올리던 기중기의 고리가 툭 부러져 나가는게 아닙니까.

우리는 병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기중기팔에 대롱대롱 매달린 부러진 고리를 멍청히 올려다보기만 하였습니다.

개털모자를 눈두덩이까지 툭 내려쓴 기중기차 운전수는 (안주탄광에서 왔던 기중기차였습니다.) 골을 내며 가버렸습니다.

정말 난처하더군요. 그 큰 쇠덩어리를 손으로 들어올릴수도 없고. 함께 왔던 연합기업소발전과장이 형편을 알리려고 기업소에 돌아간 후 우리는 그 자리에 불을 피우고 빙 둘러앉았습니다. 눈이 오려는지 하늘이 흐려지며 날씨가 푸근해졌습니다. 머리에 낮게 드리운 저녁하늘에서는 무거운 중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연밥을 불에 녹여먹으며 기업소에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저물어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몸에 내리쬄이는 눈을 털념을 앓고 저마끔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불길의 얼른얼른 비치였습니다.

그때 언제 왔는지 책임비서동지가 우리한테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도에 회의를 올라왔다가 공장 우리한테로 온것이였습니다. 그는 드람을 한동안 살펴보고나서 《이 곰같은게 동무들을 고생시키는구만. 하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는것 같소.》 하며 사람들 틈에 끼워앉았습니다. 책임비서동지가 오니 좌중에 활기가 도는것이 알리더군요. 누구인가를 찾듯 사람들을 둘러보던 그는 아무말없이 나무가치를 집어 불속에 던져넣었습니다. 그는 선우아바이 아들을 찾고있었습니다.

《영일동문 다른데로 가려는것 같습니다.》

책임비서동지의 표정은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난 팬한 소리를 했구나 하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선우아바이때문에 생각이 많은 그가 아닌가?...

공장으로 돌아온 우리는 드람을 톨로 가공하여 시험을 하면서 압연기를 완비해나갔습니다. 압연기의 성공은 시간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영일이가 어느때없이 침울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더군요. 난 그를 직장밖으로 데리고나와 물었습니다.

《왜 그러오?》

그가 수그리고있던 고개를 들며 한장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장동지한테만 보이라고 했습니다.》

선우아바이는 쇠물압연기를 꼭 성공시켜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공장에 돌아올것 같지 못하다고 편지를 썼더군요.

《소장동지, 제가 아버지를 대신할수 없습니까? 전 오늘에야 모든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일이는 눈물이 글썽해지며 울먹울먹 말했습니다.

이때 주강직장으로 들어가던 책임비서동지가 이쪽을 언뜻 쳐다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일이는 그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영일이가 왜 그러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니요?》

《그가 오늘에야 아버지를 이해한것 같습니다. 선우아바이가 쓴 편지입니다.》

《그렇소?》

재빨리 편지를 받아 읽어내려가던 그는 힘있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죽을 사람이 아니요. 그가 어째서 생을 그렇게 포기하겠다는거요? 그를 데려와야겠소. 완성된 압연기를 보면 그는 일어설거요, 꼭.》

책임비서동지는 편지를 줌안에 움켜쥐었습니다.

...그해 2월말이었습니다.

주강직장안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주홍빛쇠물이 주입구에 투입되었습니다. 쇠물은 천천히 돌아가는 쌍롤밀으로 옛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일각이 천추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통기소리도 기계소리도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 정적...

사람들은 점점 압연기주위로 뻘뻘이 조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철판이 주철안내판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푸르스름한 철판은 불빛을 받아 번쩍 번쩍 빛났습니다. 성공이구나!

성공이었습니다.

헌데 의외로 공장안은 쥐죽은듯 조용했습니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순간 형언 못할 충격이 가슴에 쿵 마쳐왔습니다.

사람들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었습니다. 얼핏 보니 책임비서동지도 선우아바이의 한손을 꼭 잡아쥐었던군요.

《책임비서동지, 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선우아바이는 혼자소리마냥 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되구말구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조선말이 아니지요. 자, 한대 태우십시오.》

그는 아바이에게 담배를 권하고 불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담배연기가 아바이의 머리로 그물그물 솟아올랐습니다. 그가 살아온 한생의 길처럼...

책임비서동지가 전기석탄공업부문일군대회에서 토론을 하였지만 연합기업소의 힘으로 만들어낸 쇠물압연기는 전국적으로 여러차례나 보여주기가사업이 진행되었고 성산하 탄광들은 물론 많은 기계공장들에 도입일반화되었습니다. 쇠물압연기는 2.16과학기술상 수상자들을 여러명 배출시켰습니다.

중앙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병을 깨끗이 완치하고 돌아온 선우아바이는 공훈기술자의 명예칭호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책임비서동지는 아바이의 60돐생일상을 준비해가지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뜻밖에 책임비서동지가 생일상을 준비해가지고 나타나자 아바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실룩거렸습니다.

선우아바이는 평시에 술을 한두잔정도밖에 마시지 못했지만 그날은 집안식구들과 책임비서동지가 부어주는 술을 다 받아마시었습니다.

그러다가 난처한 일이 생기었습니다.

선우아바이가 글썽 취기가 오르는지 《책임비서동지, 제 좀 늙겠습니다.》 하며 책임비서동지의 무릎을 베고 누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황황히 아버지를 부르자 책임비서동지는 《와두오.》 하며 아바이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편안히 놓아주었습니다. 아바이는 뭐라고 중얼중얼하더니 이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숨결도 어린 아이처럼 고르로왔습니다.

후에 선우아바이는 꿈에서 펍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흔히 사람들은 흘러보낸 지난날을 잊곤 하지요. 허나 우리는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 기계공장에서는 기성공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착암기정대와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팡팡 생산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가지있기때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어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추억으로 될것입니다.



푸른 숲의 정서와 숭고한 조국애

리근세



푸른 숲!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을 안고사시며 푸른 산 푸른 들이라 노채처럼 외워보시던 내 나라의 푸른 숲.

조용히 따라부르면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가 가슴에 사무쳐와 절로 머리숙어지는 뜻깊은 부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현지도의 길에서 나무가 얼마 없는 산들을 보시면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조국의 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훌륭히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소설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념원대로 애국의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한 투쟁을 화폭에 반영하여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좋은 창조경험을 남겨놓았다.

장편소설 《숲으로 간 사람》(최성진 2010년), 단편소설 《숲에 들렀다 가시라》(김홍익 《조선문학》 1999년 4호), 《푸른 사랑》(양의선 《조선문학》 2000년 12호), 《너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정해경 《조선문학》 2001년 5호), 《왜가리떼 날아들 때》(김영희 《조선문학》 2007년 9호), 《숲속의 나무 한그루》(김홍익 《조선문학》 2009년 4호)와 같은 작품들을 들수 있을것이다.

숲에 깃든 사랑과 의의있는 생활철학

푸른 숲에 대하여 형상한 작품들은 모두 무한한 애국심을 가지고 숲을 가꾸고 빛내여야 한다는 사상을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푸른 숲은 나라의 재보이며 만민에게 생명의 요람으로 되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때문에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꾸준히 숲을 가꾸고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단편소설 《푸른 사랑》에서)

이러한 내용의 리치는 화폭이 아니라도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이다.

오늘날 숲을 가꾸고 지키는 문제는 이와 같은 어느때의 《꾸준》하고 《성실》한 사랑으로는 결코 해결할수 없다. 보다 새롭고 무게있는 생활철학이 필요하다.

오늘 숲을 가꾸는 문제는 《피로써 지킨 땅을 피보다 더한걸 쏟아부어 가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로(단편소설 《왜가리떼 날아들 때》에서) 나서며 숭고하고 원칙적인 사랑을 안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해결해야 할 심각하고도 자못 중요한 시대적 요구로 나선다. 피와 땀과 지어는 목숨까지 다 바쳐 숲을 지키고 가꾸어가는 숭고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울 때에만 울창한 수림과 들판, 규모있게 정리된 토지와 사방야계 등의 만년대계의 국토건설 현실을 반영할수 있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옮겨 그려낼수 있는것이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이 분야의 소설작품들은 자기의 화폭에서 주체적대를 확고하게 세우고 철저히 시대정신에 부합되게 의의있는 형상내용들을 다루어내고있다.

단편소설 《숲속의 나무 한그루》에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 숲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리치를 발견하고 여기서 숲의 진정한 주인이 갖추어야 할 품모를 보여주었다.

…어느 숲에 가든지 만나게 되는 산림감독원만이 그 숲의 주인이 아니다. 그 숲의 은혜를 입고사는 모든 사람들, 지어 길을 가다가 잠깐 나무그늘신세를 지는 길손까지도 그 숲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이기때문에 함부로 자기 숲에 손을 댈 권리를 가진다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꾸고 보살펴야 할 의무를 본분으로 짊어졌다는 말이다. …

하기에 우리의 주인공 윤강진은 일상적인 운행길이었지만 길가에 굴러내려 큰 위험을 줄수 있는 사고요소를 발견하고는 높은 자각을 발휘하여 스스로 그 위험을 제거하였으며 굴러내린 돌에 상한 한그루의 나무를 정성스레 돌보고 또 돌보는것이다.

무성한 숲과 나무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가 상한채로 있거나 혹 죽어버린다고 하여도 그 무성한 숲의 풍경은 결코 덜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바로 그 한그루의 나무

를 보살피 온갖 성의를 다하는 량심과 진정을 산림 감독원이나 그 숲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대상이 아닌 지나가던 보통운전사의 성격에 부여하고 의미심장하게 생활의 진리를 해명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소설의 문제성을 2중3중으로 음미해보며 의의있는 생활철학을 정리할수 있다.

지나가던 보통운전사도 이름모를 조국의 숲을 위해 정성을 바치는 주인이 되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숲의 주인-애국자로 된것이다.

얼마나 훌륭한가. 오늘날 우리 당이 바라는 조국애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바로 이속에 있지 않은가.

단편소설 《숲속의 나무 한그루》는 평범한 대상에 특별한것을 체현시키고 격이 높게 일반화를 실현함으로써 숲에 깃든 사랑의 철학을 단수있게 해명하였다.

장편소설 《숲으로 간 사람》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을 삶의 신조로 안고사는 참된 인간들의 량심과 지향이 조국의 숲을 위해 《한생의 땀을 짱그리 쏟아》 붓게 하는 헌신과 기적을 낳았다는 사랑의 철학을 해명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리명산의 은인인 큰리의 옛 산림 감독원 최학세로인이며 김세명후보원사 그리고 최학세로인의 손자이며 리명산의 둘도 없는 친구인 최영우와 오랜 당일군인 전쟁로병 류성림...

화폭에 등장하는 숲의 주인들은 모두 백두산위인들의 숲에 대한 사랑에 깊이 감복하며 절세의 위인들을 따라배워 열렬한 사랑을 안고 조국의 숲을 가꾸고 지켜간다.

《사람의 한생이 백년이나 2백년쯤 되어 나라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다하고 생을 마쳤으면》 하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산림학자 김세명이 쉽지 않은 결심을 안고 숲으로 가는 주인공에게 굳게 심어준 신조는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해방전부터 오래동안 큰리의 숲을 지켜 산신령처럼 살아왔고 땅에 묻혀서도 한줌 거름이 되어 조국의 푸른 재부에 보탬을 주려 한 최학세로인은 리명산에게 또 어떤 비상한 각오를 새겨주었던가.

그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조국의 림상도에는 푸른 공간만이 차넘쳐야 한다는 고결한 애국적사명감이였다.

하기에 소설의 주인공은 불구나 다름없는 불편한 몸이지만 자진하여 산림감독원이 되었으며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충정으로 온몸을 불태워 마침내 기적을 창조하였다. 너무도 척박하고 황량하여 전설까지 생겨난 명덕산을 비롯하여 큰리의 2 000정보나 되는 산야에 무성한 이깔숲을 마련하는 위훈을 세운것이다.

《만민에게 생명의 요람으로 되며 인류공동의 재부》라는 숲에 대한 범박한 인식으로는 결코 이러한 위훈을 창조할수 없다. 한없이 고결하고 성실한 사랑으로써만, 그러되 우리의 숲을 찾아주고 빛내시는 위대한 수령들의 념원을 꽃피우려는 성스러운 자각과 결부된 사랑일 때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루어 낼수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푸른 사랑》에서도 숲에 대한 사랑의 철학을 성스러운 자각과 결부하여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반백의 그 나이에 이르도록 오래동안 《숲의 요정》으로 불려오는 안해에 대한 사랑때문에 멀리 수도에서 숲으로 《홀리워》와 한생 숲에서 산다는 작품의 주인공 박용팔! 숲의 영웅인 그의 위훈을 취재하러 온 나 어린 처녀기자에게 그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였다.

정녕 그랬던가. 그가 한생토록 사랑해온 안해의 숲이어서 것처럼 진실하고 근면하게 숲을 가꾸어낸 것인가. 또 고난의 시기에도 변함없이 그 숲을 지켜 영웅이 된 것인가.

물론 무엇이든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에 헌신할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주인공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을 훨씬 통가한것이였다.

하다면?...

소설의 주인공 박용팔이 한생 묵묵히 숲을 가꾸며 진정으로 숲에 인생의 뜻을 깊이 내리게 된대는 백두산위인들이 지닌 숭고한 조국애와 절세의 위인들로부터 그들일가가 받아안은 뜨거운 믿음에 원인이 있었다.

몸소 멀고 험한 숲에까지 찾아오시여 불타버린 숲처럼 재가 돼버린 두 청춘의 사랑을 푸르게 해주셨을뿐아니라 푸른 숲의 주인으로 살도록 그들의 가슴속에 숭고한 조국애를 심어주신 빨치산장군 김정숙어머님의 사려깊은 관심과 사랑, 더우기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주인공 박용팔은 숲에 대한 사랑을 안고 한생을 줄달음쳐 살게 된다.

사실 주인공 박용팔은 백두산장군으로부터 직접 사랑을 받아안은 대상도 아니며 역시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만나뵈온 인물도 아니다.

수림을 따라 한번 걸음한 그의 집에서 빨치산장군의 념원과 희망이 깃든 그림의 화폭을 통해 어머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았고 다음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온 수림을 통해 그의 사랑의 세계를 목격하였다.

비록 직접 만나뵈지는 못했지만 백두산위인들의 《푸른 사랑》이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안겨졌기에 박용팔은 그것을 자기의 자식들과 이 땅

의 모든 후대들에게 영원히 대를 물려 전해갈 고귀한 정신적유산으로 간주하고 고향도 아닌 양덕의 막바지골숲에 인생의 귀중한것을 모두 바치였다. 하여 스스로 숲의 주인으로, 마침내 수백만그루의 나무들을 심고 자래워 숲의 바다—조국의 푸른 재보를 마련한 영웅으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혁명적수령관이 확립된 숭고한 사랑은 필연코 커다란 위훈을 낳았고 소설에서는 귀중한 삶의 철리를 푸르려 설레이는 무성한 숲의 웅용한 메아리로 울려주고있다.

인류의 태양이 뿌려주는 은혜로운 해발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조국의 숲을 푸르게 한다는 깊이있는 생활의 메아리! 이는 소설이 끝난 후에도 계속 울려나오는 진리의 여운이다.

그렇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조국산천을 푸른 산 푸른 들로 만드시려 무척 마음 쓰시며 어버이장군님께서 바쳐오신 눈물겨운 로고는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희세의 애국헌신으로 깊이 새겨져있다. 그리고 우리 작가들을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한 푸른 숲에 대한 작품창작으로 힘있게 불러주고있다.

살아있는 얼굴들, 잊지 말아야 할 위훈

숲을 사랑하고 숲에서 위훈을 창조한 인물들은 보다 꾸준하고 진중하며 또 과묵하거나 강의한 성격으로 그려진다. 한것은 이 땅에 푸른 재부를 안아올리는 그들의 투쟁이 한두해에 끝나는 일이 아니며 애초에 한생을 숲에 바칠 쉽지 않은 결심을 하고 달라붙어야 하는 원대한 사업이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거창한 자연개조사업이며 창조적투쟁이기에 그 어떤 고정된 격식을 절대화할수 없다.

대단히 자유롭고 새롭게, 그러나 높은 정신도덕적품모를 지니고 그 길에 들어서는 성격형상일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

푸른 숲의 주인들을 형상한 지난 시기의 소설작품들에서 일련의 경험을 찾아보기로 한다.

장편소설 《숲으로 간 사람》의 주인공 리명산의 성격은 조국의 산을 푸른 숲으로 가꾸아가는 길에 한생을 다 바쳐 로력영웅으로까지 자라난 한 산림감독원을 원형으로 하여 창조된 전형적성격이다.

어버이장군님으로부터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라는 값높은 칭호를 받아안은 원형인물의 높은 정신도덕적품모를 공감이가게 그리기 위하여 소설에서는 그가 세운 위훈의 생활적바탕을 옹계 제시하

고 개성적으로 형상하였다.

제명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그는 처음부터 숲과 인연이 있는 산골내기가 아니였고 원래 택한 직업도 산림감독원이 아니였다. 그런데 어떤 연고로 그가 《숲으로 간 사람》이 되어 마침내는 《산신령》이 된것인가.

원형에게서 실지 많이 알고싶은 이러한 내용들을 작품에서는 해방전부터 큰리의 숲을 지켜 《산신령》으로 불리웠던 최학세로인파 조국의 숲이 수난당한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고 백두산위인들의 사랑과 관심속에 성장한 김세명후보원사와의 생활련계속에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방랑아시절의 리명산에게 명덕산과 관련한 전설을 들려주며 어린 꿈을 심어준 로인, 숲을 그로록 사랑하시는 위인들을 만나 나라의 숲이 개명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도 인생말년의 자신을 한탄하며 한줌 거름이 되어서라도 토양이 없는 명덕산을 살찌우려 한 최학세로인에게서 리명산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았을뿐아니라 로인의 꿈을 자기가 실현하려는 각오까지 가지게 되었다.

산림학자 김세명도 역시 주인공에게 높은 자각을 심어준 고결한 인간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에 똑똑한 립상도가 없어 무척 심려하실 때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조국의 립상도를 완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축적도가 떨어진 숲을 두고 심각한 고충을 느끼며 조국의 지도에 푸른색을 더하려고 한생을 불태워온 참된 인간이 바로 그였다.

리명산은 바로 이처럼 고결한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여 참다운 애국의 인생을 살게 된것이다.

이미 힘든 일을 할수 없는 의학적감정을 받고도 돌밖에 없는 명덕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 등짐으로 부식도와 흙을 저나르며 산판에 쓰러지기를 몇번, 지어는 막달에 이른 안해가 산속에서 아이를 낳을번 했던 일도 있었다. 그뿐이었던가, 큰리의 립상개조를 위해 온 산판을 누비던 날들에 마치도 숲속에 그 어떤 자석이라도 있는듯 가족과 함께 쇠려던 생일도 명절도 가뭇없이 있고 산속에서 해를 지운적은 또 몇번이였고 그 나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친구의 오해도 받으며 무척 힘겨운 애국의 삶을 꿋꿋이 산 《숲으로 간 사람》! 그러되 기질적 측면에서 그의 성격은 진중하고 침착(보통 생각되는)하면서도 숲을 침해하는 불의앞에서 격하기 잘하고 아무 일이나 민첩한 점들로 개성화되었다.

이렇게 다채롭게 탐구된 생활화폭속에서 주인공의 값높은 위훈은 타당성을 가지고 공감이가게 안겨온다. 그리고 감절 의의있는 형상속에 오래도

록 살아있는 개성으로 부각되어 독자들을 감동시킨다.

장편소설 《숲으로 간 사람》은 원형에 기초한 성격을 창조하면서 생활적편계를 깊이 탐구하여 개성을 살림으로써 성격형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큰 공적을 세운 숲의 주인공들일수록 생활속에서 살아숨쉬는 감동적인 위훈의 창조자로서의 얼굴을 찾아내야 한다고 본다.

많은 품을 들이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숲을 가꾸는 일이라고 하여 형상대상이 사람과 숲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숲을 대하는 인간들의 생활에 더욱 접근해야 한다.

단편소설 《너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의 주인공의 성격도 푸른 숲과 어울리는 인물형상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를 시사해주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김순금은 이제 금방 애기를 낳아야 할 몸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숲을 가꾸어 헌신적으로 일하는 특이한 성격이다.

그의 성격의 특이성은 여러 측면에서 표현된다.

그는 도에 올라갔다오는 남편을 집에서 기다릴 대신 립산작업소에 급히 부과된 1천립방미터의 철길침목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고품질이갈림지에 《부등부등 분수없이》(응당한 일감도 아니지만) 올라갔으며 숲에 각별한 인연을 맺은것도 아닌 《도시내기》였지만 산길에 펄펄나는 산양들도 발톱을 세우고다닌다는 잣골막치기로 나무심으러 떠나는 강의한 성격, 그러나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립산작업소가내리용반에서 일하는 그로서 벌목이나 식수사업에 그가 직접 참가해야 할 리유도 없었고 더우기 그는 숲속의 험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약골체질이었다. 하지만 무엇때문에 그는 그토록 열성스럽게 숲을 가꾸는 일에 발벗고나서는 것인가.

소설에서는 이 물음에 놀라운 해답을 내리고 있다.

태어나는 자식에게 조국으로 느껴지는 어머니는 응당 조국의 한부분으로 되게 살아야 한다. 때문에 조국의 숲을 자기 삶의 한부분으로 간주하는 그런 모성만이 진정한 어머니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선 인물성격인가, 그리고 얼마나 새롭게 탐구된 성격인가.

작품에서는 너성이라면 응당하게 간주하고 수행하여온 자격과 권리를 숭고한 조국애의 견지에 올려세웠으며 숲을 가꾸는 화폭의 성격형상에서 남성 위주의 일면성도 극복하였다.

너성들에게도 숲을 가꾸는 문제가 진정한 어머니로 사는 참된 인생관과 결부되고 남자들 못지 않게

많은 너성들이 숲의 주인으로 된다면 우리 현실에서 숲을 가꾸는 사업은 더 많은 위훈과 기적을 창조하게 될것이다.

물론 형상의 논리를 추구하는 면에서와 묘사수준에서 미숙한 점이 없지 않지만 단편소설 《너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소유한 새로운 개성을 창조함으로써 좋은 창조경험을 남겨놓았다.

나라의 푸른 재부를 늘이는 감동적인 성격을 창조하는데서는 단편소설 《왜가리때 날아들 때》도 이바지한 성과가 크다고 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김익준의 성격을 향토애와 결부된 숲의 위훈자로 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감흥을 자아내고있다.

이름보다 《왜가리령감》으로 많이 불리우는 그는 이미 년로보장나이가 지나 농장원도 아니지만 온종일 동리 이곳저곳에서 《별난》 일을 벌려놓고 《말썽》을 일으키곤 한다. 그런데 어디서나 가볍게 별명으로 불리우는것 같으면서도 실지 따져보면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간주되는 그런 인물이다. 또 그는 일생을 두고 분조장이라도 《장》자리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지만 누구에게라없이 욕을 해대는 남다른 자격을 가진 동리에서 제일 《센》 《왜가리령감》이었다.

전쟁때 미국놈들의 폭격에 마을을 떠난 왜가리들을 기다려 수십년세월 고향마을을 알뜰히 가꾸고 숲을 자래워온 《왜가리령감》에게서 왜가리는 고향의 님이였고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재부였다.

누구보다도 고향의 왜가리를 사랑했기에 그는 이처럼 결곡하게 한생을 살았고 자기의 진정에 넘친 그 모습을 고향의 푸른 숲과 살기 좋게 꾸려진 아름다운 향촌에 남기여놓았다. 대대손손 정답게 불리워질 《왜가리령감》이라는 피이한 별명으로 아니, 향토애, 조국애를 전하는 살아있는 위훈으로!

이 작품에서 《왜가리령감》 김익준의 성격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으면서도 조국의 향토와 푸른 숲을 아름답게 가꾸어낸 수많은 영웅들, 애국적인 위훈자들의 숭고한 모습의 진실한 예술적 반영이다.

《피이하》지만 시대와 혁명의 새로운 면모를 체현한 《왜가리령감》의 성격을 창조하면서 작가가 특별히 주목한것은 현시기 우리의 숲과 향토를 가꾸는데서 견지해야 할 높은 정신력이다.

그것은 피로써 지킨 땅을 피보다 더한걸 쏟아부어 가꿔야 한다는 작중인물 《왜가리령감》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지극히 고결한 애국심, 실로 범상히 대할수 없는 심오한 애국의 철리이다.

사실이 그렇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조국을 찾고 위대한 전승위업을 이룩한 혁명선열들의 그 값비싼 피보다 더한것을 바쳐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고 그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속에 언제나 정답게 자리잡고있던 《푸른 산 푸른 들》로 조국 산천을 가꾸어가야 할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이것은 그토록 투철한 각오와 의지를 지니지 않고서는 우리 제도와 소중한 국토를 지키고 빛내일 수 없는 준엄한 시대의 현실이며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귀한 모범이다.

앞으로 푸른 숲을 형상한 소설들에서 성격형상의 목표는 바로 이처럼 숭고한 높이에 이르도록 고결한 인생관을 탐구하고 보다 다채롭고 새로운 면모가 부여된 개성으로 창조하는데 있다고 본다.

지난 시기의 성과작들에 그려진 푸른 숲의 주인공들의 얼굴이 오래도록 눈에 밝혀온다.

분조장이라도 《장》 자리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지만 동리에서 체일 《센》 피이한 별명쟁이로 인과 조국의 지도를 푸른색으로 단장하러 숲으로 간 사람, 일요일의 휴식터—풍성한 숲의 산림감독원과 숭고한 자각을 안고 숲을 알뜰히 가꾸는 《도시내기》녀인...

푸른 숲의 유정한 향기와 매력

우리 문단에 유난히 이채로운 푸른 정채를 발산하는 《푸른 숲》주제의 화원에서 유정한 향기가 뿜어져나온다.

그 향기는 매우 강한 자화력을 가지고있는듯 독자들을 어느새 숲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

언제 벌써 《왜가리령감》의 지청구를 달게 듣는 동자동마을사람으로도 만들고 일요일의 휴식터—그 숲으로 얼른 데리고가 휴식을 마치고 모두 감동된 마음으로 자기의 《숲》을 가지고오는 다정한 일행속에 끼여들게도 하며 그 류다르고 감동깊은 사랑—《푸른 사랑》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만들기도 한다.

참으로 감미롭고 생동하며 진실한 예술적형상이 낳은 감명이 아닐수 없다.

숲에 대하여 형상한 소설작품들의 예술형상에서의 성과는 우선 작은 용적속에 시공간적으로 거창한 구성의 틀을 세운것이다.

강산을 변화시키고 후대들에게 세세년년 무궁할 아름다운 자연환경, 풍부하고 충실한 국토환경을 마련해주는 사업은 사실 한편의 작품용적에 다 담아낼수 있는 보통의 형상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천되는 시대의 현실은 이 문제를 시급히 형상할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러되 그에 맞는 새로운 형상의 틀을 탐구하게 하였다.

우리의 소설들은 이를 위해 기본인물관계를 동시대인들로서가 아니라 선대와 후대사이 대를 이어가는 인물들사이에 설정하였으며 이야기줄거리의 폭과 길이를 대폭으로 확대연장시키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두사람이 창조한 거창한 숲의 넓은 영역을 보여주는 그자체에 머무른것이 아니라 숲을 가꾸기까지 바쳐온 인간들의 그 오래인 한생과 한생, 그 세월에 묻힌 가지가지의 고충과 진심, 사랑과 헌신의 끝간데없이 크나큰 공간에 모를 두고 형상화 폭을 펼치었다.

선자리에서 한눈아름에 다 볼수 없는 무연한 세계, 그것은 결코 물리적인 량으로는 재일수 없고 펼쳐보일수도 없는 가장 참된 인간들의 고결한 정신에 대한 거창한 형상세계이다.

단편소설 《푸른 사랑》에 펼쳐진 형상세계가 바로 그렇다.

작품은 3대를 물려오는 《거대한 유산》인 양덕막바지골숲에 깃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따뜻하고 세심한 사랑과 대를 이어 그 숲에 한생을 바쳐가는 광용팔부부의 진정 그리고 그들모두에게 가장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방대한 생활영역의 공간속에서 펼쳐지고있다.

푸르러 설레이는 조국의 숲, 바로 그 사랑의 숲에서 숲의 새 세대 광용팔과 수림의 류다른 인연도 맺아지게 되었고 기슭이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품에 안겨 이들도 대를 이어 애국의 숲을 계속 푸르게 가꾸어갈수 있었던것이다.

작품은 바로 이러한 거창하고 방대한 시공간속의 형상세계를 펼침에 있어서 등장인물수는 매우 적지만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는 폭넓은 인물관계를 설정하고 그속에서 방대한 형상내용을 전개시키었다.

이와 같은 형상수법은 단편소설 《숲에 들렀다 가시라》와 《왜가리떼 날아들 때》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단편소설 《왜가리떼 날아들 때》에서 《왜가리령감》은 물론 기본형상과제를 말아수행하는 주인공이지만 진정한 향토애를 넘두에 둔 작품의 주제는 《왜가리령감》김익준이 한생을 바쳐 가꾸고 빛내인 고향 동자동마을의 새로운 주인들인 《나》(해동이)와 봄순이네와도 인물관계의 축이 연장될 때 옹게 해명될수 있다.

이 작품에도 역시 해방직후 깊은 생각이 없이 고향을 뜨러다가 뜻밖에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고 인

생의 새 출발을 하는 《왜가리령감》의 결국한 향토애와 그가 일생 가슴에 안고산 그 념원대로 오늘은 후대들이 동자동마을을 푸른 숲이 우거지고 행복의 노래소리 울려나오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산천으로 가꾸어가는 오랜 역사를 포괄하는 형상화폭이 감동깊게 펼쳐지고있다.

여기서 《왜가리령감》과 《나》사이 관계는 연령적으로는 흔히 《두벌자식》으로 불리우는 할아버지와 손자벌관계이지만 피로써 지킨것을 피보다 더한것을 쏟아부어 가꾸어야 한다는 높은 정신세계가 무리없이 (한대를 건너뛰어) 《나》세대에 물려지게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있는 인물관계이다.

작품은 해방된 고향의 첫 세대를 대표하는 《왜가리령감》과 《나》사이에 《아버지들》의 축을 설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왜가리령감》이 지니고있는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형상선을 확고하게 주선으로 내세우면서 《왜가리령감》과 《나》사이의 기본인물관계의 주축우에서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를 해명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작품의 구성기교는 동자동마을의 오랜 전변의 역사를 다 보여줄수 있게 형상내용을 집약화한것이며 작가가 단편용적의 한계를 잘 리용하여 좁은 공간속에서도 넓고 큰 내용을 반영할수 있게 생활화폭을 집중화한것이다.

푸른 숲을 형상한 소설작품들의 예술형상성과는 또한 숲과 이어지는 방불한 생활묘사를 펼친것이다.

숲을 형상한 작품들의 생활무대는 숲이다.

후덕후덕 늘어붙는 송진이 금방 어깨에 툭툭 떨어지고 싱긋한 솔잎냄새가 진짜로 폐부에 스며드는 것 같이 숲의 정취가 생동하게 안겨와 쉽게 글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것이 바로 이 작품들의 세련된 묘사기교가 빛어내고있는 생활력이다.

작품들은 모두 자기의 묘사대상인 푸른 숲에 대해 재간껏 묘사하고 이모저모 새롭게 그 특징들을 밝힌다. 그러나 단순히 자연풍경에 대한 묘사로만 그친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기울여 보다 새롭게 그 미를 창조하였고 정히 그 모양을 비다듬어 반듯이 우리들의 눈앞에 내세워주었다.

바로 이속에서 독자들은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조국의 자연을 가꾸는 또 다른 《원예사》들을 보게 되며 그들의 손에서 기쁘고 정답게 다듬어지고 빛내여진 숲의 류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원예사》들의 《기능급수》는 누구나를 물론하고 고급하며 단수있다. 때문에 우리의 소설들의 묘사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단계에 올라있다.

푸른 숲을 형상한 소설들에서 자연묘사는 모두 세부화되어있으며 그런 경우에 철저히 중점화되어

필요한 감각대상들을 정확히 간명하게 지적하군 한다.

《차가 고개길을 멀리 앞두었을 때부터 갑작스레 퍼붓기 시작한 소낙비가 고개길중턱에 올라서자 시작할 때처럼 툭 몇더니 뭉게뭉게 엉켰던 구름더미가 별안간 짙 갈라지면서 금시 내린 소낙비에 씻기 운듯 밝고 눈부신 해빛이 함뿍 비쳐내리고 물냄새를 실은 싱그러운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잎새며 가지우에 쌓였던 먼지(그보다는 더위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것이다.)를 말끔히 씻어버린 숲이 구름잠이 터지게 쏟아져내리는 해빛을 잎새마다 넘치게 받아안고서 좌— 하고 불어오는 바람결에 즐거운듯 가볍게 춤을 춘다.

…질은 대조, 선명한 색조, 넘치도록 강렬하게 뿜겨져오는 생명의 힘, 뽕뽕 쪼르르… 뽕뽕 쪼르르… 딱따그르르… 딱따그르르… 귀엩 귀엩— 킁! 빠드득— 멀게 혹은 가깝게 들려오는 못새들의 소리마저도 더욱 뚜렷해져서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서도 그것들의 서로 다른 생김생김이 방불하게 그려진다. 그리고 차가 움직이는데 따라 물썩물썩 풍겨오는 쓸쓸하면서도 달크무레한 숲의 냄새마저 이 건 무슨 풀냄새, 이 건 무슨 꽃냄새… 하고 분명히 갈라낼수 있으리만큼 선명해졌다.》(단편소설 《숲속의 나무 한그루》에서)

우의 레문은 나무의 잎새와 가지에서 더위의 질감까지 감득할 정도로 매우 섬세하게 자연풍경을 살펴보고있으며 인체의 감각기능의 정상적인 흐름에 따라 특징적인 대상현상의 징표를 간명하게 지적하고있다.

작가는 우의 자연을 그리면서 보는것, 듣는것, 냄새맡는것 등의 감각기관의 기능을 차례로 념두에 두면서 극히 필요한 한도내에서 선택적으로 묘사하였다.

또 다른 실례를 보자.

《…숲이 너무도 울창하고 험악했다. 아름답리 나무가 뻗뻗이 들어찬 수림속은 벌써 땅거미가 깃들었다. 소나무, 이깔나무, 잣나무들은 한창 푸르싱싱하던 수려한 자태들을 움썩거리는 바늘무지모양의 엄엄한 모습으로 바꾸었고 그앞에 선 백양과 단풍의 희고 빨간 잎새들이 부나비무리처럼 해뜰거렸다. 푸른 이끼를 펼친 벼랑밧을 감돌아흐르는 개울줄기만이 아직 하늘빛을 담고 반짝거릴뿐 숲은 수억의 엄록소흡반으로 마지막노을빛을 짙그리 빨아들이고있었다.

그 장엄하고도 절엄스러운 수림의 내장속으로 빨려들어가는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사지가 오싹하니 가드라드는데 한 공포감을 느꼈다.》(단편소설 《푸른 사랑》에서)

우의 레문에서는 주위가 환해지는 때의 풍경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밤풍경을 묘사하면서 그를 대하는 심리에 맞게 소리, 냄새까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빛과 어둠, 시각에 미쳐오는 느낌으로만 숲의 풍경을 중점적으로 그리고있다.

푸른 숲을 형상한 소설가—《원예사》들의 재능은 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은 섬세하고 방불하게 자연을 그릴뿐 아니라 새로운 미의 세계, 생활화폭을 그리면서 자기의 재능을 더욱 시위하고있다.

새로운 생활화폭을 훌륭히 그리는것은 독자들을 자기들의 꽃밭에 끌어들이기 위한 훌륭한 방도의 하나이다.

《해맞이산 양지에는 해마다 제일먼저 풀이 돌아나고 봄꽃이 피어난다. 냉이, 달래는 더 말할것도 없고 먹기 좋은 참나물, 기름진 싸리나물, 씹쌀한 삼주씩, 맛좋은 두릅나물 등 갖가지 산나물이 날 좀 뜰어주 하고 자라난다.

하루공부가 끝나면 나는 염소를 먹이러, 봄순이는 나물을 캐러 여기로 오곤 하였다. 봄순이는 저네 염소를 초피나무밑중에 매어놓고 저만 아는 곳에 있는 두릅나물을 뜯으러 골짜기쪽으로 달려갔다. 그 애를 쫓아다니기는 몇적은 일이어서 나는 염소들이 풀을 뜯는 언덕에 벌렁 나가누웠다.

간밤에 내린 봄비에 파랗게 씻기운 하늘은 맑기도 하였다. 풀밭에 다문다문 피어난 노란 민들레며 보라빛제비꽃에서 알싸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단편소설 《왜가리떼 날아들 때》에서)

이 소설의 《원예사》는 것처럼 흔하지만 흔치 않은(독자들에게) 산나물들을 털거하면서 그 갖가지 《먹기 좋고》 《알싸한》 맛과 냄새를 다 체험해보고 이처럼 생신하게 규정했으리라. 바로 그로하여 우리 독자들의 뇌리에 《씹쌀한 삼주씩》의 새로운 맛을 심어주고있다.

작가의 이러한 묘사자세는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린 토색질은 생활세부들을 감미로운 어휘표현과 함께 적극 창조해내고있다.

《터밭이 없으니 온 마을에 풋강냉이 삶는 내가 구수무레 퍼질 때 봄순이는 침만 꿀꺽꿀꺽 삼켜야 하였다.》

《어깨가 딱 바라진 봄순이 할아버지가 파수막앞에 떡 버티고서있었다. 흰장미에 덮인 크지 않은 눈이 달군 쇠조각처럼 어둠속에서 활활 타고있었다.》

《구수한 내를 풍기는 감자장사귀를 들고 들어오던 어머니가 부쩍 호기심이 동해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

아버지는 통명스레 한마디하고는 마른 명태를 찢어넣고 끓인 감자장을 푹푹 떠서 맛스럽게 잡숫기

만 하였다.》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린 정갱이에서 고기비늘같이 러슬러슬한 살이 푸들거렸다. 그앞에는 식료공장 자동차가 두눈을 똑 부릅뜨고 당장 골반이를 할듯 부릉부릉 다가들고있었다.》(단편소설 《왜가리떼 날아들 때》에서)

《이마뺨에 로송 몇가지를 드리운 절벽을 등지고 귀를집 한채가 자리잡고있었다. 내물이 경계를 이룬 틀안에는 차곡차곡 쌓아놓은 드털기더미가 있고 길쭉한 개구유엔 어미개와 강아지 세마리가 대가리를 조아리며 〈공동식사〉를 하고있었다. 내가엔 쓴물을 우리느라 담가놓은 새하얀 도라지질그릇과 울망줄망한 오지단지 몇개가 하반신을 물에 잠고있었다.》(단편소설 《푸른 사랑》에서)

얼마나 방불하고 생동한가.

생활의 바닥깊이에서만 느낄수 있고 맛볼수 있는 진미가 우리나라오는 토색질은 어휘들, 자연풍경이 아닐수 없다.

푸른 숲을 형상한 작품들의 이 훌륭한 매력으로 하여 아직도 그 숲가에서 떠날수 없다.

작가—《원예사》들의 묘사는 바로 이러해야 한다.

누구나 겪어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한 사실, 무수한 《생활의 맛》들을 번마다 새롭게 많이 창조하고 다듬어내는것, 바로 여기에도 이 소설들의 중요한 형상의 향기와 매력이 있다고 본다.

이런 구수하고 방불하며 푸른 숲의 아름다운 자태를 마음속에 꼭 안아보게 하는 이러한 형상성파가 보여주는 결론은 명백하다.

실지 숲의 주인으로 생활체험을 실속있게 하는것, 바로 이것이다.

체험이 진실하면 할수록 형상화폭도 진실해지는 법이다.

푸른 숲!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을 안고사시며 푸른 산 푸른 들이라 노래처럼 외워보시던 내 나라의 푸른 숲.

조용히 따라부르면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가 가슴에 사무쳐와 절로 머리숙어지는 뜻깊은 부름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이며 제자인 우리 작가들은 장군님의 절절한 념원이 깃든 이 부름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애국의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한 투쟁을 반영한 창작사업에서의 성과로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조국의 숲이며, 끝없이 푸르러 설레이라!

김정일애국주의로 불타는 심장들과 더불어 영원히 푸르러 설레이라!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다

류 명 호

해빛도 눈부신 아침
또 하루 새날이 웃고있는
룡남산언덕길을 오르며 하는 생각
나는 누구이기에 세상이 우러르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것인가

오늘도 스스로없이
궁궐같은 전자도서관과 수영관을
제집처럼 들어서며 하는 생각
나는 누구이기에 온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이런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데있인가

내 만일
돈과 권력이 없이는 못사는 사회
자본주의사회에서 태어났다면
침침한 거리를 방랑하며
없는자의 설움을 뼈저리게 감수하며
청춘을 길가에 휴지장처럼 굴리고있으리

아, 어데 가나
기쁨과 행복이 문을 열고
어서 오라 나를 부르는 조국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라면
나의 청춘은 봄날에 락엽이 되었으려니

저 멀리 부전령기슭의 산골소년을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에 불러주신
우리 장군님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리라
자나깨나 불타는 심장

그 열정이다
지금껏 인류가 쌓아올린
광대한 지성의 세계를 주름잡으며

최첨단과학의 링마루에 치달아오르는것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어제보다 오늘에 더 많은 탐구를 하는것은

그 불덩이다
열기면 학파토론
그 연타를 두드리며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앞에
힘이 없는 정의는 무색하다고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길에
이 한몸 바치리라 격조높이 울리던 그 웨침은

나는 룡남산에서
단순히 학문만을 배우지 않았거니
대원수님들과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것
사랑이라면 불같은 사랑
신념이라면 강철같은 신념
마음이라면 옥같은 마음
증오라면 칼날같은 증오!...

그렇다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충정의 별무리로 삶을 빛내인 룡남산의 아들딸들
처럼
나도 영원히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으로 살려니

아, 조선을 빛내일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맹세
룡남산의 맹세를 꽃피우는 길에
그 누구보다 앞장에 서야 할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다

위대한 사랑의 언덕우에서

차 명 철

10월 1일
대학창립절 이 아침
한계단 또 한계단
걸음걸음 승엄한 생각안고 오르는
룡남산언덕이여

그리움 안고 올라서니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

어서 오라 나를 반기시는듯
우리 아이들이라 정깊게 불러주시듯
아버이 그 음성 금시 들려오는듯

이제는 룡남산대학생들이
참으로 많이 자랐다고
홀려온 그 나날들을 더듬으시는가
숙연하신 그 안광에 어리는 추억의 빛

내 어이 한가슴에 다 안아볼수 있으랴

둘러보면

수령님 몸소 세워주신

유서깊은 본관교사가 이야기한다

웅장한 1호교사

세상을 굽어쫓은 2호교사

저 사연깊은 추녀가 이야기한다

아버이수령님과 함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사랑

돌기돌기 년륜마다 새겨안고

대학의 자랑찬 성장의 나날을

조국청사에 빛내온 통남산

지식과 인재는 나라의 힘이라고

건국의 초행길에

전화의 불비속에

친아버이정으로 보살피신 그 은혜

이 언덕 드넓은 대학지구에

차고 또 차고넘치건만

아, 우리 수령님

이 시각도 못다 주신 그 사랑

다시 또다시 부어주시는가

우러러 숭엄한 그이의 시선아래

쏟아져내리는 눈부신 해발이여

세계를 향해 열린 교정의 창문들이여

위대한 그 사랑 그대로 이어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대학에서

원대한 탐구의 뜻 펼치신 장군님

《조선아 너를 빛내리》 그 맹세

뜨거운 가슴에 조선을 안으신

그이의 열화의 사랑 굽이쳐

세계를 보는 이 아들의 심장 커졌거니

사랑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하늘높이 솟은 교사여!

희한한 수영관의 물풍경이여!

최첨단 전자도서관의 눈부신 불빛이여!

체육관의 높은 처마여!

아, 기나긴 세월의 성스런 역사를 안고

세세년년 만대로 이어질

주체교육의 휘황한 앞날을 축복하시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

통남산언덕우에 태양으로 빛난다

영원한 사랑의 빛발 누리에 펼친다

우리 사는 집

최 주 원

기숙사여

너의 따뜻한 집에

우리는 입사증 없이도 들어섰지

이런 새집들이는

아마 세상에 없을거라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가슴 울려

첫날밤 우리는 잠 못들었지

시원히 열린 밝은 창가엔

나란히 놓여있는 폭신한 침대

자고깨면 통남산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우리의 하루는 시작되거니

아침이면 호실을 함께 나서도

밤깊어 돌아오는 시간은 서로 달라

창박에선 못별들이 먼저 잠들었더라

여기서 사랑의 고기접빵이야기도

은정어린 수영복 입고찍은 사진도

우리는 교향에 회답으로 보냈지

세상에 대학은 많아 기숙사생들도 많건만

우리같은 행운아들 어데 있으랴

나라가 것처럼 어렵던 나날에도

멋쟁이 새 기숙사를 지어주시고

대학에 찾아오신 장군님을 못 잊어

누군가가 지은 그리움의 시

오늘은 기숙사의 누구나 읊는 시로 되었어라

우리의 주소는 통남산

우리의 이름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그렇거니! 우리 어찌

입사증없이 들어섰다 말할수 있으랴

지금은 층마다 호실마다

학과명이며 번호는 다룰지라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존함을

마음속에 모시고사는

아, 여기가 우리 사는 집이여라



나는 탄부의 안해이다

김 성 희

1

그날도 나는 아래단위에 사업지도내려가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려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을 쏘아보니 벌써 여드레였다. 나는 출근길에 탄광연합기업소에 찾아들어가 남편의 행처를 알아보았다.

《남덕탄광 10갱에 나갔습니다. 거기 조건이 나쁩니다.》

생산과 부원의 말이였다.

나는 허겁지겁 남덕탄광 10갱으로 떠났다.

탄을 실어나르는 큰 차가 태워주어 수월하게 10갱 입구까지 갔는데 때마침 남편이 갱에서 나오고있었다. 작업복은 온통 탄죽과 석수로 푹 젖어있었다.

눈에 뜨이게 꺼진 불이며 눈확이 들어가게 수척해진 얼굴은 나의 가슴을 아릿하게 했다.

하지만 나를 알아보는 눈빛만은 사뭇 정답게 번쩍거렸다.

그 눈빛을 대하는 순간 기다림의 여드레가 한순간처럼 여겨졌고 무척 반가웠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다... 이거 내가 꿈을 꾸는지 모르겠소. 박해심동무가 맞지?》

평소에 웬만한 일은 익살과 유모아로 대치시키는 남편이 술많은 눈섭을 찡긋대며 우습강스럽게 나를 건네보았다.

《지원왔소?》

만나기만 하면 건강을 돌보며 일하라고 한바탕의 훈시를 들이대려던 나는 남편의 이 한마디에 그만 입이 다물어졌다. 나는 될수록 마음을 도사리고 맵싸게 쏘아붙였다.

《우리가죽명단에서 삭제당할려구 그래요? 한마디 연락도 없이 벌써 며칠째요?》

《우리 아이들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요?》

너무도 조용하고 넋지시 건네는 물음에 나는 남

편이 룡담을 걸어온다는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토라져서 또 한번 쏘아붙였다.

《그럼요. 그 애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잊은지가 오랜걸요.》

《허, 이거 큰일인걸... 애들까지 거수가결할줄 몰랐는데. 이거 어떡한다. 영양제식당에다 아예 옮기구말아?》

남편은 랑패라는듯 난색을 짓고 떠보는 눈길로 나를 보았다.

나는 더 참아내지 못하고 남편의 널직한 가슴을 떠박지르며 와락 안겨들고말았다. 남편은 기겁해서 나를 떠밀쳐낼듯 하다가 으스스리게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다.

《옷이 말이 아니요. 물주머니가 터졌됐으니까. 이거 당신옷까지 다 뒹쨌는걸...》

《일없어요. 당신만 건강하면 돼요. 그까짓 옷이야 백번인들 못 빨겠어요. 자, 어서 식사를 해요.》

나는 남편의 품안에서 황황히 빠져나와 손을 잡아끌었다. 나의 손길을 따라 몇걸음 따라섰던 남편의 입에서 부지중 나직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원, 당신답지 않소. 그래, 여기까지 오면서 남편밥만 멍그렇게 싸온단 말이요?》

남편의 실망해하는 얼굴을 대하는 순간 나는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했다. 단방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석탄생산때문에 마음쓰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대하기가 죄송스러웠다.

정말이지 어쩌면 이렇게 남편의 밥만 싸들고 여기까지 달싹달싹 왔단 말인가. 나는 입술만 감뻘며 오도카니 선채 험해진 남편의 행색만 얼없이 더듬었다.

나는 탄가루와 석수로 범벅이 된 남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우리가 부부인연을 맺게 된것

도 바로 저렇게 뒹어진 작업복때문이었다는 생각에 나의 눈길은 자연 탄죽이 영겨붙은 옷에만 머물러있었다.

...

90년대초에 안주탄전에는 많은 제대군인들이 왔다.

인민경제발전에서 안주탄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헤아려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단련되고 준비된 핵심청년들을 뽑아 탄광들에 보내주시었다.

우리 사로청(당시)조직에서는 제대군인탄부들을 돕기 위한 좋은일하기운동이 벌어졌다. 나는 선반을 돌리는 째째에 갱작업복을 걸어다 빨기도 하고 옷도 다려주는 등 처녀들이면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을 해나갔다.

하루는 어느때처럼 작업복들을 걸어 내물에 잠그고 행구는데 뻗뻗한 수첩의 느낌에 얼른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물이 툭툭 떨어지는 수첩을 끄집어내며 소대장이나 중대장의 사업수첩으로 생각한 나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일을 돕는다는것이 도리어 이 모양을 만들었으니 어쩌면 좋아? 난 왜 그렇게 덤벼쳤담, 주머니검사를 하지도 않고 이게 뭐야. 나는 울상이 되어 수첩의 물기를 털어내느라 어쩔바를 모르다가 무심결에 책갈피를 뒤져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하였다. 전투실적이 적혀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수첩에는 뜻밖에도 시구절들이 빼곡이 씌여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젖은 수첩의 글씨는 더 활달하고 진하게 안겨왔다.

...

탄부는 저 거목의 뿌리처럼
한생을 땅속에서 살아도 행복하다
이 땅의 천만재부 이 손으로 마련해가기에

동발이 막장을 받든다면
탄부는 조국을 받드는 동발이 되어
탄이여 너를 위해 한생을 바치고싶다

나는 한자리에 굳어진듯 서있었다. 나는 한참이나 마음이 정해나서 《리효복》이라고 쓴 수첩장만 명하니 내려다보았다. 리효복이 누구냐? 수첩의 주인공을 짚어내느라 곰곰히 한사람, 한사람을 더듬어보았으나 선뜻 짚여지지 않았다. 탄부는 이 땅의 천만재부를 마련해가기에 거목의 뿌리처럼 한생을 땅속에서 살아도 행복하다고, 수천척지하막장 한끝에 있어도 탄부는 조국의 재부를 늘여간다는 긍지를 안고산다고 시를 쓸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처벌처벌... 몹시 바쁘게 울리는 발자국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수첩에 눈길을 박은

채 움직일줄 몰랐다.

《아, 무사했군요. 난 그만 종이떡이 됐을가봐 조마조마해서 달려왔는걸요. 정말 다행입니다.》

종이떡?!... 다행?!... 나는 문득 눈을 들어 앞을 보았다. 탄부옷을 입은 키 큰 청년이 내 손에 들려있는 수첩에 눈길을 준채 숨을 헐떡이고있었다. 분명 저 사람이 이 수첩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에 숨이 다 막혔다. 한찰나의 부주의로 수첩을 못쓰게 만들었다는 죄의식에선지 아니면 시세계에 잠기게 한 그의 높은 정신에 위압되어선지 나는 졸지에 내 몸이 한줌만 하게 줄어드는것 같은감을 느끼며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다행이 다 뭐예요? 글썽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땀뽀이지 글썽...》

《하하하...》

뜻밖에도 청년은 호탕하게 웃어댔다. 그 호걸스런 웃음소리가 이상하게도 내 가슴의 불안감을 일시에 털어버렸다.

《뭐, 어떻게랄게 있습니까. 제책 말리우면 되지요. 인주십시오.》

나는 어망결에 손을 내밀다가 주춤했다.

《안돼요. 제가 적신거니 제가 말려드리겠어요.》

솔직히 나는 그때 그 청년과 그렇게 헤어지고싶지 않았다.

《박해심동무지요?》

청년은 갑자기 진중해져서 나를 여겨보았다. 나는 속으로는 깜짝 놀랐으나 겉으로는 혼연해지려고 애쓰며 절 어떻게 아세요? 하고 묻는 눈길로 그의 준수한 얼굴을 마주보았다.

《동무는 날 모르겠지만 난 동무를 잘 압니다. 난 동무를 볼 때마다 꼭 우리 어머니를 대하는듯 해서 마음이 파스해지곤 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동무처럼 몸집은 작지만 얼마나 이악하고 짹짹지 모릅니다. 알뜰하긴 또 얼마나 알뜰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처녀를 사귄 때...》

《어마?!》

나는 그만 외마디를 내며 고개를 틀었다. 나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한다는건... 가슴이 확 달아올랐다. 나의 소행을 어머니에 빗대고 높이 사주는 그가 고마웠다. 높이 사줄뿐아니라 은근한 어조속에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는것이다. 그는 내자신이 결점으로 생각하는 나의 체소한 몸집을 오히려 큰 장점으로 보는것이 아닌가.

나는 대번에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와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처럼 느껴졌다. 이상한 일이였다. 방금전까지도 리효복이 누구냐 하고 속으로 점쳐보던 내가 처음 마주보게 된 청년이 구면지기처럼 여겨지다니...

《저어, 시인이 되렵니까?》

나는 빨래감을 당겨 무릎을 꿇어앉으며 수집게 물었다.

《시를 보셨군요. 시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청년은 말끝에 싱긋 웃어보였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나같은게 무슨 시인이겠습니까. 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여기 탄전에 왔습니다. 석탄을 많이 캐는게 제 의무지요.》

《그러니 한평생 석탄을 캐는 탄부로 살겠다는 말씀이세요?》

《한평생 탄부로 살겠습니다. 이 땅의 재부를 늘이는 탄부로 말입니다.》

청년은 마치도 노래를 부르듯 명쾌하면서도 거침없이 대답하며 나를 슬쩍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는 눈길을 들다가 황황히 불타는듯 한 청년의 눈길과 마주치고말았다. 그 순간 내 한몸을 송두리채 불태워버릴듯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그 눈길앞에서 나는 작은 몸을 웅크렸다.

《생각해보십시오. 석탄에서 안 나오는것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보물방망이애길 들어보셨지요. 석탄이 바로 그 보물방망이란 말입니다. 전기가 나오라! 똑딱하면 자, 전기도, 쌀이 나오라! 똑딱하면 쌀이요, 옷이 나오라! 똑딱하면 옷이 나오는데...》

나는 눈을 내려간채 한마디 끼어들었다.

《어마, 쌀이나 옷도 다 석탄에서 나오는가요?》

《그럼요. 지어는 동무가 매일 아침 쓰는 화장품도 다...》

《어마...》

나는 버릇처럼 또 한번 외마디를 내면서도 그의 말을 긍정하였다. 중학교시절 재미나게 화학실험을 하던 생각이 났다. 그때 석탄에서 달디단 사탕까지 만들수 있다는것을 알고 얼마나 신비해했던가. 그러면서 석탄을 두고 왜 검은금이라고 하는지를 단번에 이해하고 그때부터 무심하게 대하지 않았던 생각이 났다.

오랜 시간 빨래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청년의 넓었던 작업복과 황황히 불타오르던 눈빛을 생각하였다.

나는 빌려가지고 들어온 수첩의 갈피를 번지며 단다리미를 살짝살짝 눌러주었다.

《웬 수첩이냐? 적셨더니?》

차려놓은 밥상에도 다가볼지 않는다고 지청구하던 어머니가 비로소 관심이 되어 묻는 말이었다. 나는 문득 생각키우는것이 있어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정색해서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벌리는 사위취재 취소시켜요!》

《왜? 너한텐 과남한 총각이던데. 나도 봤다. 키가 큰데다 눈이 어글어글한게 속통도 쓰겠더라.》

《나한텐 과남한 총각 맞지 않아. 난 탄부한테 갈래요.》

《뭐, 뭘?!》

뒤로 나가넘어질듯 깜짝 놀래는 어머니를 나는 물끄러미 보기만 했다.

무슨 말로 설명하랴.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한가. 나는 잠자코서 하던 일만 다그쳤다. 나의 말없이 담담한 행동이 어머니를 더 아연케 한것 같았다.

《너 그게 진정으로 하는 말이나? 별스레 막장지원을 열성껏 한다 했더니...》

한참후에야 맥플린 어머니의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래도 안된다. 이젠 다 정해놓은 사람이 다.》

《내 심장은 이미 이 사람을 정했어요.》

나는 원상태로 반듯해진 수첩을 정히 내보였다....

나는 탄죽과 석수로 범벅이 된 남편의 작업복에서 지나간 일들을 삼삼히 돌이키며 생각에 잠기었다. 언약을 맺던 그 시절에 벌써 나는 그이의 마음의 든든한 뿌리로 살자고 마음다치지 않았던가. 그런데 자기 남편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범속한 안해로서의 궁냥만 하다니... 갱에까지 오면서 남편의 밥만 땀그렇게 싸가지고오는 이 소갈머리... 탄부들의 안해로, 어머니로, 누이로 살자, 이 시각부터! 내 지금껏 직장에 나가 한몫 하는것을 크게 생각하고 탄부의 안해답게 떼떽하게 내놓을 일은 없지 않는가. 탄부들처럼 막장에 들어가 탄은 캐지 못하지만 갱지원은 얼마든지 해낼수 있을것이다. 오늘은 비록 생각이 모자라 밥 한그릇 싸가지고 왔지만 탄부의 안해로 살고싶은 마음은 막장을 버티고선 동발마냥 굳게 치솟아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뜻밖에도 돼지새끼를 담은 상자를 자전거짐틀에 싣고 달리는 웬 아바이를 보게 되었다. 어마?! 저 주둥일 봐! 류달리 뭉툭한 주둥이를 상자틈새기로 내민채 꿀꿀대는것을 보니 그러지 않아도 오밀거리던 마음이 확 쏠려였다. 나는 다급히 아바이를 불러세웠다.

《아바이, 새끼돼지들이 정말 멋있군요.》

《왜, 물건친찬하는걸 보면 가질 사람은 아닌데... 가질려우?》

《그럼요. 새끼돼지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몇 마리예요?》

《네마리우다. 한배속형젠데 성격두 좋구 먹성두 다 좋수다. 암, 좋다마다요.》

나는 아바이를 우리 집쪽으로 돌려세웠다.

《네마릴 다 주세요.》

2

하루하루가 무척 바빴다.

어제일만 봐도 그랬다.

새벽에 남새상점에다 부탁해놓은 부산물을 가지러 집을 비운 사이에 새끼돼지들이 밖으로 뛰쳐나

와 사방 싸다녔다고 한다. 몽푹한 주둥이로 여기저기를 두치며 돌아가더니 우리의 널장까지 헤집고 나온것이였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 진주가 땀을 쏟으며 쫓아다니다가 기권하고 상점까지 나를 찾아왔다.

《엄마, 고놈들 다리 짹 붙질러놔요. 옆집 아저씨까지 나섰지만 끝내 붙잡지 못했어요. 난 학교에 늦었는데 어떡하든 좋아?》

딸은 얼마나 안타깝고 분했던지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였다.

《땀은 먹었니?》

《땀이 다 뭐야? 이게 다 엄마때문이야. 그따위 돼진 뿔하러 끌어들여가지고…》

진주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남새부산물물을 실은 손달구지채를 랑허리에 꼭 붙인채 일렀다.

《이제 곧 학교에 가거라. 땀은 내가 가져다줄 테니…》

《돼진요?》

울면서도 돼지채근을 하는것을 보니 웃음이 나고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진주를 학교에 보내고 집에 오니 새끼돼지는 옆집 할머니 손에 붙잡혀있었다.

《요놈이 얼마나 날랜지 온 동네가 나서서 겨우 붙들었다네. 이제 구유에다 가루석탄에 소금을 조금 넣고 쌀뜨물로 반죽해서 놓아주게. 그렇게 몇번 먹이면 주둥이로 여기저기 두치는 놀음을 안할거네. 이젠 내 오랜 생활경험들에 터득한거지.》

《어마? 석탄에다요?》

나는 신비한 생각이 들어 온통 주름살이 가득한 할머니를 이윽히 보았다.

《그건 돼지들이 미량원소를 섭취하자고 그러는 걸세.》

할머니가 동안을 두었다가 《돼지우린 우리 국범애비가 고쳐놔네.》 하고 각근히 알려주었다.

《정말 미안해요.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게 해서…》

《별소릴. 이웃끼리 그만도 못할가. 빨리 밥부터 먹게. 배는 얼마나 고프겠나? 진평인 내가 차비시켜 국범이랑 같이 유치원에 보냈네.》

나는 할머니가 자리를 떴을 때 우선 석탄 한삽을 소랭이에다 담아 소금을 넣고 쌀뜨물로 반죽해서 구유에 놓아주었다.

네마리의 새끼돼지들이 서로 먹겠다고 덤벼치며 대가리를 맞비비며 찹찹거렸다.

그 모양을 신기하게 내려다보는 나의 입에서는 부지중 돼지도 석탄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석탄에 철, 망간, 크롬 같은 미량원소들이 포함되어있으니까.… 나는 검은금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며 서둘러댔다.

나는 부뚜막에 앉은채로 물에 만 밥을 몇술 뜨고 탄불에 돼지물가마를 올려놓은채 부리나케 출

근길에 올랐다.

학교에 들러 진주의 땀을 넘겨주고 땀을 훔치며 직장에 들어서는데 소장이 나를 찬찬히 훑어보는 것이였다.

《박동무한테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요?》

최근 나의 생활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이렇게 에둘러하는 바람에 나는 얼굴을 활짝 붉혔다. 방금전에 새끼돼지를 우리에 넣어주며 옆집 할머니가 하던 말이 귀가에 쟁쟁했다.

《그렇게 맨날 땀이처럼 돌아가서야 조교만 몸이 건디겠나. 내가 결에서 보기에든 숨이 차네. 돼지든지 직장이든지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가지는 힘들어.》

두가지는 힘들다?! 그러니 둘중에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라는것이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좋은 일을 계획하면서 이미 하고있는 일을 버려야 한다면 애써 좋은 일을 벌여놓을 필요가 무엇인가. 아직 내가 새로운 일에 미련이 트지 못해 그렇지 요령과 묘리를 터득해낸다면 이쯤한건 얼마든지 극복할것이다.

나는 할머니앞에서처럼 머리를 저어보았다.

《아니, 난 두가지를 다 밀고나가겠어요.》

《뭐라구요? 박동무, 이자 뭐라구 했습니까?》

소장은 동에 닿지 않는 내 말에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 떼뚫한 눈으로 나를 찬찬히 여겨보았다. 나는 그만 소장을 할머니로 착각한것이였다. 나는 소장에게 어쭙게 웃어보이면서 나의 결심을 보고하고 토론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소장은 잠시 아무 말 없더니 심하게 자책하는 것이였다.

《난 아무래도 한개 단위책임자로는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몇사람 안되는 밑의 사람들의 신상에 일어나는 일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게 무슨 소장이겠습니까? 박동무, 이렇게 말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소. 앞으로 힘을 합쳐 돼지를 잘 길러봅시다. 이제 돼지들이 좀 크면 점점 힘들겁니다.》

아닌게아니라 새끼돼지들은 나날이 커갔고 새끼돼지들이 커갈수록 나날이 힘들어졌다.

나의 손에는 드물바께쓰가 떨어질줄 몰랐고 남새상점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모아들이느라 어느 한시도 편히 앉아있을새가 없었다. 돼지죽에 더 관심이 크다보니 식구들의 때식이 늦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남편은 《허, 이거 확실히 집주인이 바뀌었군.》 하고 한마디 하고는 내가 벌린일이 대견해서 두루 주위를 둘러보고는 딸을 시켜 식당의 찬밥을 상에 놓게 했다.

일이 바쁘고 힘들 때마다 어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옆집 할머니의 말이 문득문득 생각키웠다. 정말이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옆집 할머니 말대로 돼지들에게 석탄떡을 빚어 구유에 놓아주며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하

었다.

돼지들이 주둥이는 물론이고 온몸에 검댕이를 잔뜩 칠해가지고 석탄떡을 먹느라 첩첩대는데 그새 며칠동안 집을 비웠던 남편이 돼지우리를 들여다보며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그놈들 꽤 컸는걸. 당신 손이 정말 건모양이요. 며칠새에 몰라보겠다니까.》

《내 손이 건게 아니라 국범이 할머니의 비방이 기본이예요. 글썄 돼지들이 석탄에서 미량원소를 섭취한대요. 미량원소를 충분히 섭취해선지 돼지들이 얼마나 양전해지고 순해졌는지 몰라요. 그저 먹는대로 크는것 같애요.》

남편은 신명이 나서 설명하는 나를 대견한 눈길로 보다가 돼지기르기에 필요한 책과 첨가제를 구해다주었다.

그 별창은 한마디와 후원이 나에겐 큰 표창처럼 여겨져 나는 힘든줄을 모르고 뛰어다녔다. 학기말 시험준비를 하는 진주도 돼지우리에 뿌르르 달려가 고개를 내밀곤 했다.

《엄마, 저놈들 봐요. 애를 먹일 땐 언젠데 이젠 제법 땀시를 부리는걸. 꼭 뽕죽구두를 신은것 같지 않아요. 발모양은 정말 매력있다니까. 탄광에 갈땐 나도 같이 가요.》

소장은 직장사람들을 어떻게 발동시켰는지 아침마다 우리 집에 뜨물과 부산물을 날라오게 했다.

그리고 식사조리에 신경을 쓸세라 고정찬과 따끈한 국도 끓여다주도록 했다. 나는 지성이 깃든 크고작은 통들을 받을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매번 새롭게 인식하곤 했다.

새삼스레 손끝에 힘이 갔고 팽이처럼 돌아가는 자신이 떼떈했다.

하루일의 짤시간에는 먹음직한 풀을 뜯어 마대에 가득 팡팡 눌러담아오곤 했다.

무슨 일이나 하자고 접어드는 사람한테는 인차요령이 생기고 해결책이 나지는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더듬으며 직장으로 향하는데 앞에서 웬 해병군인이 나를 유심히 살피며 말을 걸어올듯이 다가오고있었다. 요즈음 탄광부문에 많은 제대군인들이 왔다는것을 생각하며 나는 주춤 멈춰섰다.

《저어, 말씀 좀 묻겠습니다.》

서너발자국앞에 이른 그 군인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레절있게 말을 걸어왔다.

《로보공급소에서 일하는 박혜심동지가 아십니까?》

나는 해병군인의 입에서 내 이름이 튀어나오는것이 너무도 놀라와 대답도 못한채 그저 고개만 끄덕여보였다. 아무리 생각을 더듬었으나 전혀 짚이지 않아 갑자른채 난색을 지어보였다.

해병청년은 물론 그럴줄 알았다는듯 싱긋 웃어보이더니 웃웃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 꺼내려고 서

둘렀다.

그가 꺼낸 껍 오래되어 낡아보이는 신문을 보면서도 나는 아리송한 상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탄부아저씨한테 구원된 김성남입니다. 송남청년탄광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만에야 나는 탄성을 울리며 해병군인을 얼없이 더듬어보았다.

불시에 떠오르는 15년전의 그 겨울날 아침... 출근했다가 폭 젖은 옷으로 다시 들어온 남편...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별일 아닌듯 심상하게 말하던 남편의 혼연스런 모습... 두 남학생 어머니들이 가지고온 신문을 통해 비로소 남편의 소행을 알고 놀래던 일이 돌이켜지며 바로 내앞에 서있는 이 해병청년이 사정에 처했던 그날의 남학생이란것을 알아보았다.

《난 군사복무를 하는 전기간 생각했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준 고마운 탄부아저씨를 꼭 찾아가보겠다구요. 그리고 훌륭한 탄부가 되겠다구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될 때 탄광에 배치되는 대렬명단에 제 이름이 오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김성남은 말끝에 싱긋 웃어보였는데 아마도 자기 일을 구구히 설명한것이 어색한 모양이었다.

나는 송남청년탄광이라는 바람에 숨이 막히는듯한 기쁨을 누르며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참 잘했어요. 성남동무! 거기 김진청년돌격대가 있는데 기세가 대단해요. 여기 북창땅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김진돌격대에 대한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있어요. 나도 언제부터 가보자고 하는데... 성남동무, 우리 석탄전선에서 함께 일하자요.》

내 말을 듣고 기뻐할줄 알았던 김성남은 크게 놀라더니 상심한 어조로 중얼대는 것이었다.

《석탄캐는 일이야 우리 남자들의 일이지 무슨 녀자들까지 나서겠습니까? 그만두십시오. 피가 펴 펴 끓는 우리 제대군인들이 이렇게 또 오지 않겠습니까.》

《고마와요. 하지만 자연과의 투쟁이 편속인 석탄생산은 남자들만으로는 힘들어요. 우리 녀인들의 힘이 보태질 때 더 막강한걸요.》

나는 몇걸음앞의 큰 가로수를 가리키며 그 거목을 받든 뿌리와 자양분에 대한 생동한 설명으로 탄부와 안해들에 대하여 잇대려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저녁에 집에 와요. 지금의 성남동물 보면 우리 진평이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와하겠어요. 제대된 동무들과 같이 꼭 와요!》

종일 마음이 흥겨워났다.

좀 일찍 퇴근하여 순두부를 앗는다, 속빵을 한다 부산을 피워 상처레가 거의 끝났는데 남편이 들어섰다.

《허, 오늘 탄광지원은 별스럽게 집안에서 하려는가?》

어느때처럼 뚱조로 시까스르는 남편을 나는 아무런 타냄이 없이 의기양양해서 맞았다.

《여보, 진평이 아버지! 내가 오늘 누굴 만났겠는지 아세요?》

나는 오전에 있었던 일을 숨차게 말했다. 그리고 인생좌표를 탄광에 정한 기특한 청년에 대하여 다 이야기했다.

남편은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소. 사람은 이런 멋에 산다니까. 글썄 그 애가 벌써 그렇게 성장했던 말이지.》 하고 환희에 넘쳐 말하더니 제대군인들이 오후 첫시간에 배치된 탄광들에 다 내려갔다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어마, 그럼 이걸 어떡해요?》

나는 폴짝 주저앉으며 상우에 가득 올라있는 음식들을 상심한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걱정할게 있소? 그동안 우리 집을 도와준 이웃들과 직장사람들을 초대합시다그러.》

남편의 선선한 말에 나는 활기를 되찾고 명랑하게 화답했다.

《그러자요, 우리때문에 얼마나들 수고가 많았대구요.》

3

그무렵, 송남청년탄광에는 김진청년돌격대가 조직되어 연합기업소는 물론이고 온 나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었다.

며칠동안 송남청년탄광에 나갔던 남편이 별스레 다심한 얼굴로 나를 가까이 불러앉혔다.

남편은 나의 거칠어진 손을 자꾸 어루쓸며 위안을 주듯 중얼거렸다.

《날 만나 별일을 다하면서 고생이 많소. 당신은 여태 내 말에 한마디 의견없이 잘 따랐지.》

나는 오늘따라 별로 살뜰해진 남편을 새삼스레 여겨보며 바짝 다가앉았다.

《진평이 아버지,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갑자기지만 말고요.》

남편은 내 말에 용기를 얻은듯 인차 속을 터놓았다.

《당신도 김진돌격대에 대한 말을 들었을테지? 그들은 침수되어 10년간 내버려두었던 2천차량의 죽탄과 죽버럭을 질통과 맞들이로 말끔히 견어내어 탄광의 생산토대를 확고하게 닦아놓았소. 그러면서도 기세를 늦추지 않고 150일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소. 한데 말이요.》

남편은 여기서 말을 끊고 열심히 이야기를 듣는 나를 슬쩍 여겨보는 것이었다.

나는 남편의 입에서 비상한 이야기가 나오리란 것을 예감하였다.

나는 부쩍 긴장해서 귀를 강구었다.

《그들의 병실에 들어가보니 생활은 영 엉망이더라 말이요. 일단 알고 생활은 되는데로라니까. 내

그래서 대장에게 따끔히 귀뜸은 했지만 녀석이 꿈쩍도 안하는 기색이더군. 뭘다 돌진하는것밖에 몰라. 어쩔소, 당신이 기강을 세워보지 않겠소? 당신이야 처녀때부터 숨씨가 있지 않소.》

나는 그만에야 아연한 눈으로 남편을 흘기었다.

《거진 성남이와 같은 제대군인도 있지 않아요. 참, 성남이를 만나봤어요?》

《그 앤 년간굴진계획을 끝내기 전엔 내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끝내 나서지 않더군.》

나는 두눈을 깜빡이며 말없이 남편을 지켜보았다.

남편의 진지한 눈길이 나를 다시 더듬었다.

《그들한테 바로 당신같은 녀성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오. 일요일마다 돌격대에 좀 가주었으면 하오.》

나는 순간 발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지금 남들보다 두배의 노력으로 살고있다. 그런데 돌격대일까지?

《그러니 내가 돌격대에 가서 그들의 생활을 돌보라는거예요?》

마디마디에 힘을 주며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는 내 말소리는 은연중에 떨려나왔다.

남편은 입을 꼭 다문채 고개만 끄덕여보일뿐이었다.

나는 입술을 감빔며 초연히 눈길을 돌렸다.

나는 한참만에야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말을 골랐다.

《당신은 너무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지내는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벌려놓은 이 일이 누구나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한번 일요일이라고 방바닥에 편히 앉아있은적이 있는줄 아세요. 돼지를 한두마리도 아니고 네마리를 단번에 키워내자니 어쩔수없이 한직장사람들의 힘을 빌어요. 그들이 뭇때문에 나를 돕겠어요. 탄광지원하려는 나의 소행에 감동된거예요. 그런데도 당신은...》

남편은 한동안 나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움쭉 몸을 일으켰다.

《내가 박혜심동무를 잘못 봤구만.》

남편은 무겁게 한마디 뇌이며 방안을 나쳤다.

나는 혼자가 된 방안에서 귀가 멍멍하도록 고요한 정적을 느끼며 앉아있었다.

...나의 머리에는 류달리 애트한 정으로 가득찼던 언약의 그날이 삼삼히 돌이켜졌다.

《동문... 무엇에 반해 이 탄부를 섰 뜻 따랐소? 동무한테 부모님들이 정한 대상이 있었다던데...》

나는 인차 대답을 앓고 청년탄부의 널직한 어깨만을 더듬었다. 청년탄부는 나의 대답을 기다려 지긋은 눈길을 줄곧 나에게 보내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시첩을 본 시각부터 나의 가슴에 새겨진 내 마음의 울림을 한자한자 읊어나갔다.

《…동발이 막장을 받든다면
탄부는 조국을 받드는 동발

막장의 동발에는 뿌리가 없지만
나는 조국의 동발을 받들고선 뿌리가 되리》

그리고 시끝에 조용히 주해를 달았다.

《먼 후날에 동지가 시인이 되든 일군이 되든 전
영원히 탄부안해로 살겠어요.》

청년탄부는 덩덤한채 나의 얼굴을 이윽히 지켜보
더니 나를 와락 그러안았다. 나는 꼭 그러안은 청
년탄부의 억센 팔힘에서 나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
로 받아들였는지를 가슴뿌듯하도록 느끼었다. …

그러던 내가, 탄부의 안해는 쉬임없이 영양소를
보내는 뿌리와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내
가…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 순간에야 나는 더 말
을 앓고 집을 나간 남편의 심정에 이해가 갔다.

한생 탄부안해로 살겠다고 하던 내가 은연중에,
본의아니게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토달거리며 재세를 하다못해 푸념을 늘어놓다니,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데 어느덧 습관이 되
고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우위에
놓으려 하다니…

누가 모르게 땅속밑으로만 뻗어가는것이 뿌리인
데 난 우애로 솟구치려 했으니 내가 무슨 탄부안
해란 말인가?

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했다.

일요일 아침, 나는 김진청년돌격대로 향하였다.
내 눈으로 돌아보고싶었다. 김진청년돌격대에 배
치된 김성남의 모습도 보고싶어 나의 걸음은 가
벼웠다.

탄부제복을 입은 김성남의 모습을 그려보며 먼
저 큰 돼지 두마리를 싣고가니 돌격대병실은 텅 비
여있었다.

식당근무만이 남아 식사준비를 서두르는 병실을
돌아보며 나는 너자손이 비였다는것을 대뜸 알아
보았다.

알뜰하고 섬세한 녀인의 손길이라고는 도무지 느
껴지지 않는 돌격대병실은 말이 아니었다.

나는 무엇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용단이
서지 않아 우두커니 서있는데 김성남이 뛰어들어
왔다.

동발목을 끌러 립지로 올라갔다가 내가 왔다는것
을 알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것이였다.

《성남이, 이게 뭐예요. 생활을 이렇게 되는데
로 해서야 어떻게 전투실적이 오르겠어요. 이걸 좀
보라요.》

나는 병실구석에 무저있는 빨지 않은 작업복들과
석탄가루가 뭉개돌아가는 병실바닥을 가리켰다.

기쁨에 웃던 김성남의 얼굴이 몹시 당황해하
다 가 굳어져버렸다. 당황망조한 그의 얼굴을 일별하

는 순간 나는 혀를 깨물었다. 일밖에 모르고 석탄
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만나자바람으로 내가 어쩌면
이런 말로 혼시할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들에게 뭘 한게 있다고 큰소리란 말
인가.

나는 서둘러 김성남의 땀젖은 어깨에 손을 얹
었다.

《미안해요. 내가 미리 와보지 못한걸 용서해
요.》

《아니, 아닙니다. 진평이 어머니, 제가 제대군
인으로서 돌격대생활을 잘 조직하지 못한때문입니
다. 전 진평이 아버지앞에 떳떳하게 나서고싶은 한
가지 생각으로 실적을 올리는데만 급급했지 갱밖
의 생활에는 너무도 무관심했습니다. 절 비판해주
십시오.》

김성남이 잔잔한 어조로 너무나 심중하게 자책
하는 바람에 나는 그만에야 내전에서 당황해지고
말았다.

이때 돌격대대장의 어머니가 묶어온 돼지를 구경
왔다가 나를 발견하고 목멘 소리를 했다.

《읍에서 여기까지 올내기 얼마나 힘들었겠나.
집안살림도 돌보기 힘들텐데… 내 나이 일흔에
저렇게 실한 돼진 참 보네. 임자손이 정말 걸구
만.》

《내 손이 건게 아니고 새끼때부터 석탄떡을 먹
었기때문이에요.》

《석탄떡?》

나는 석탄에 들어있는 미량원소의 섭취에 대하
여 설명해주며 이제는 늙고 쇠잔한 나이임에도 막
내아들의 일로 시종 웃음이 떠나지 않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온 나
라가 다 아는 김진청년돌격대 대장이 됐으니 말이
예요.》

《아무렴, 기쁘구말구. 아들녀석 일이 중해서 매
일 이렇게 올라와보네만 마음뿐이지 일을 치우지
못한다네. 나이가 원썩지. 이제 마음뿐이지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우리 탄부가족들이 한번씩 도와나서
긴 하지만 워낙 일판이 험해서 손질한 뒤끝도 없는
데다 녀석들이 좀체로 결을 주지 않네그러. 일체
다른 손들을 바라지 않는다네. 이제 더는 다른 사
람들에게 부담을 끼치고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면서
병실엔 절대 들어놓지도 않는걸.》

나는 어머니의 변명을 들으며 고개를 수그리고
선 김성남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마음의 활개를
한껏 펼친 이들에게 넓은 작업복이나 병실정돈때문
에 마음쓰게 해선 안된다.

나는 팔을 걷어붙인채 병실안을 닦아냈다.

벽모서리의 거미줄과 먼지를 털어내고 소랭이의
물을 몇번 갈아대며 탄면지를 닦아냈다.

그리고 병실구석을 뒤져내어 넓은 작업복들을 꺼
내놓고 닦지 않은 장화와 신발들을 찾아내었다.

겉앞에 흐르는 개천가의 널찍한 돌판에다 쏘아 놓고 와락와락 행귀넬라니 아득한 처녀시절 숫저은 마음으로 탄부웃을 빨던 그 시절이 어제일처럼 돌이켜졌다.

어제일을 돌이키며 깨끗이 뺀 작업복들을 돌판우에 널려고 일어서는데 뜻밖에도 남편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있었다. 어마? 저이가 어찌자고 여기까지? 나는 얼결에 주위를 일별하였다.

해별이 재글거리는 주위엔 다행히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있었다.

나는 눈을 내리간채, 남편을 무시한채 내 일만 서둘렀다.

《종이떡을 만들진 않았소?》 뜻밖에도 가까이 다가온 남편은 능청스레 통을 걸어왔다. 나는 그만에야 움츠렸던 자존심이 꿈틀하는것을 느꼈다.

《종이떡은 무슨 종이떡!》

나는 불시에 서러움이 솟구쳐올라 알알해오는 목구멍을 간신히 누르며 남편에게 대들었다.

《당신은 뭐예요? 박혜심동물 잘못 봤다구요? 왜 나한테 강하게 요구하지 못해요? 〈탄부안해 박혜심! 돌격대원들을 책임지고 성심껏 돌볼것!〉 왜 이렇게 요구하지 못하는가 말이에요.》

《이걸 먹소. 아까 갯에서 전차운전공이 넣어준 건데... 박하사랑이요.》

남편은 주머니에서 사랑봉지를 꺼내 내 손에 쥐여주려 했다.

나는 그것을 뿌리치며 설분을 터뜨렸다.

《당신은 날 진정으로... 혁명동지로 여기지 않았지요? 날 탄부안해로 여기지 않았지요? 날 어린애처럼 사랑으로 얼리는걸 봐도...》

나는 그만에야 잔뜩 불어난 속에서도 킁 웃음을 웃고말았다.

터진 물주머니앞에서도 주저할줄 모르던 남편이 날 얼리려고 찢찢매는 모습은 불시에 천진한 웃음을 자아낸것이였다.

정말이지 그 순간 날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남편이 패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이거 다행이군. 당신을 어떻게 얼릴가 하고 은근히 걱정이었는데...》

나는 이렇게라도 내 심정을 표현해놓으니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남편의 손안에 든 사랑봉지에서 두알을 뽑아내어 먼저 남편의 입안에 넣어주고 내 입에도 넣었다.

박하향의 특이한 향내와 달짝지근한 사랑물이 얼어붙었던 내 가슴의 랭기를 다 밀어내었다.

《보름간 휴가를 받겠어요, 휴가기간 돌격대에 와있겠어요. 찬성하시겠어요?》

남편은 사근사근해진 나에게 더없이 미더운 눈길을 보내며 입을 열었다.

《그래주오. 집안일은 걱정마오, 내가 잘 돌볼테니... 지금 돌격대원들은 가장 어려운 고비에 놓여있소.

150일전투성과로 탄광의 돌격로를 열어놓았지만 형편은 여전히 어렵소. 새 탄밭을 마련하는 굴진로 상엔 여러가지 난관들이 덮쳐들었소. 그래서 김진청년돌격대는 압축기와 선풍기, 온갖 기계설비들의 도움으로 한치한치 극복해가고있소. 여보,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마오.》

《걱정마세요. 저야 탄부의 안해가 아닌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남편의 뜨거운 입김이 나의 열정을 더욱 복돋아 주었다.

나는 그길로 김진청년돌격대 대장을 만났다.

대장은 사내답게 결쾌있어보이는 키 큰 청년이였다.

질은 눈섭아래 센 빛을 내는 어글어글한 눈망울, 류달리 총이 센 머리카락으로 해서 고집스럽고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인상이 강하게 안겨왔다.

《박혜심동지! 난 다른 사람들처럼 진평이 어머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전호에 선 혁명선배, 동지라는 의미에서 박혜심동지라 부르겠습니다.》

그의 이런 부름이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나는 그 시절에 나를 감동시켰던 어제날 탄부청년의 시를 읊어주었다.

《시가 좋군요. 읊겨베끼고 외우고싶은 시입니다.》

돌격대대장은 어느새 걸주머니에서 원주필과 수첩을 꺼내들고 속필했다. 그리고 목청을 가다듬고 천천히 읊어나갔다.

...

동발이 막장을 받든다면

탄부는 조국을 받드는 동발이 되여

탄이여 너를 위해 한생을 바치고싶다

시를 읊는 대장의 목소리는 갈려있었고 눈시울은 축축해보였다.

《박혜심동지! 난 돌격대가 조직된 첫날부터 마음속깊이에 〈조국이 너를 알게 하라!〉는 글을 새기고 내판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막장을 받드는 동발, 조국을 받드는 동발이 되겠다는 탄부의 억센 결심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갯속에서 지긋하게 막장을 버려내는 억센 동발처럼 한생 변함없이 굳건하게 살겠다는것을 오늘 혜심동지앞에 맹세합니다.》

그는 정색해서 거수경례를 붙인채 나를 내려다 보았다.

나를 보는 눈빛은 진지하고도 열렬했다.

《아니, 왜 그래요? 대장동무야 지금 그렇게 살고있지 않나요.》

나는 막 당황해나서 어쩔바를 모르고 괜히 옷자락만 비틀고섰다.

《진평이 엄마, 뭘 그래요? 대장동무의 인사를

받으라고요.》

뒤를 보니 송남청년탄광 당비서의 아주머니가 갱지원을 한 차림으로 다가오고있었다.

돌격대원들속에서 정향이 어머니로 통하는 윤순실은 집안에 무엇이 생기면 돌격대에 이고나오지 못해 몸살을 하는 녀인이었다.

《고맙습니다. 탄부안해들의 지원은 우리 돌격대에 대한 힘있는 고무로 됩니다. 우린 김진영웅의 이름을 더욱 빛내여가겠습니다. 우릴 믿어주시시오.》

대장은 다시 한번 거수경례를 불인채 우리들을 둘러보았는데 정향이 엄마가 《대장동무의 성과를 바람!》 하고 제격 답례하는 바람에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4

비소리, 물소리... 온 시내가 통채로 물속에 잠겼다. 어제부터 급작스레 내린 비에 들리는것은 물소리로, 보이는것도 창대마냥 꽃히는 비였다.

방송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필요한 대책을 취하라고 알려주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간단없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갔던 진주가 온몸이 그대로 물주머니가 되어 돌아왔다.

딸은 내가 집에 있는것을 보고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엄마, 오늘 안 가지? 안 간다고 대답해줘.》

《어떻게 갈수 있겠니? 이 형편에...》

나는 부지중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순간 나는 한순간의 동요가 부끄러웠다.

나는 자꾸만 일어나는 마음속 동요를 누르며 딸을 보았다.

《오늘은 김진청년돌격대의 첫 생일이어서 그쳐보낼수는 없구나. 차가 없으면 걸어서라도...》

《돌격대도 사람처럼 생일이 있나? 그래서 엄마가 떡이랑 많이 했구나.》

어린 진평이가 그제야 리해가 된다는듯 아는체를 했다.

《안 가면 안된다. 모두들 기다릴게다.》

《비가 이렇게 세게 오는데 어뎔 간다구 그래요?》

나는 어떻게나 진주나 진평이를 위로해서 《엄마 갔다오세요.》 하고 제 입으로 말하도록 애써보았으나 자식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자꾸 돌격대로만 향해졌다.

나는 바늘방석에라도 앉은것 같아 어쩔줄을 모르고 방안과 부엌을 오르내렸다. 부엌에는 생일음식들이 담긴 크고작은 그릇들이 웅기중기 놓여있었다.

《엄마, 전화왔어요. 소장큰아버지예요!》

나는 진주가 넘겨주는 송수화기를 덮치듯 받

았다.

《박동무, 오늘 꼭 가야겠소?》

송수화기에서는 소장의 석싹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오늘 탄광지원품을 신고 김진돌격대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날씨가 궂으니 내편의 의향을 다시 물어온것이였다.

나는 한순간 마른침을 삼킬뿐이였다.

《이 날씨에 나섰다면 무슨 일이 날것 같구만. 맑은 날에 다시 계획하면 어떻겠소?》

《소장동지, 떠납시다!》 나는 될수록 단호하게 말하였다. 나 자신과 자식들앞에서 단호해지고싶었다.

《알겠소. 곧 차를 대겠소!》

나의 결심을 안 소장이 인차 차를 몰아왔다. 진주는 이제 더 말려야 소용없다는것을 알았는지 토라져서 종알거렸다.

《엄만 왕이악쟁이야. 우리 동무들이 날 보구 이악쟁이란 별명을 붙였는데 엄만 더해. 왕이악쟁이!》

《왜, 넌 그 별명이 싫니?》

《딸이 엄마를 닮았는데 뭐...》

소장은 운전칸에 부엌의 음식들을 나르며 눈이 쾅해서 나를 보았다.

《밤을 새웠겠구만. 이걸 다 혼자서 만들었던 말이요? 이거 해심동무덕분에 난 탄광지원을 잘하는 일꾼으로 뽑히게 됐소!》

소장은 자기 뒤편으로 따로 준비한 약품지함을 나에게 넘겨주었다.

차가 떠나려는데 달려나온 진주가 아무말없이 운전칸으로 작은 손을 쑥 들이밀더니 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서 딸의 말큰한 손을 꼭 맞잡았을뿐이였다. 이제는 기쁜아니라 마음도 자랐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다.

탄광마을에 도착했을 때 정향이 엄마를 비롯한 탄부안해들은 환성을 울리며 나를 맞았다.

《이것 봐요, 내 말이 맞았지요? 진평이 엄만 하늘이 무너져도 온다구요.》 정향이 엄마는 떠들썩하며 탄광앞 개천이 불어나 당장 건너가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젠 비도 그쳤으니 한껏쯤 지나면 물이 썰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지 뭐예요.》

나는 여기까지 와서 주춤거리는것이 꼭 고향집 대문앞에서 문을 열지 못하는것만 같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방도를 생각해보자요. 물이 썰 때까지 기다릴수만 없지 않아요?》

내가 조바심을 치자 정향이 엄마는 자세한 형편을 알려주었다.

개천이 불어나는 바람에 갱과 사무실과는 런계가 끊어졌는데 비상대책으로 갱쪽의 철탑과 탄광사무실쪽의 큰 나무에 바줄을 매놓아 정 바쁜 사람들은

바줄을 불안고 물을 건느다는것이였다.

《그러니 지금 바줄이 매여있다는 소리군요. 됐어요.》

나는 그만에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니, 지금 진평이 엄만 그 바줄을 리용해서 건느겠단 말이예요? 안돼요, 남자들도 힘들게 건느던데요.》

《남자들이 건느는데 우리도 건너보자요. 여기서 한것을 기다리기보다 도하를 해보잔 말이예요.》

한참의 심갱이끝에 다들 동의해나섰다.

결국 떡버치를 갈라 이고 돌격대에 들어가게 락착이 지어졌다. 나는 차를 돌려보내고 배낭들을 준비시켰다.

무작정 나와보니 실개울처럼 흐르던 개천이 범람해서 어데가 어덴지 방향이 구분되지 않았다. 언젠가 병실안을 뒤져내고 돌판에다 빨래를 널던 그쪽으로 가늠이 되지 않았다.

드넓은 강이 되어버린 물판에는 뽕얀 운무까지 서려있어 더 막막해보였다. 애초에 각오를 한터였지만 막상 허허물판을 보니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처녀때 장애물극복에선 문제가 없었는데... 박동문 자신있어요?》

정향이 엄마가 나를 보며 묻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여보이며 주위에서 부지런히 돌들을 날라왔다.

《그건 뭘하자구요?》

《이걸 배낭에 넣어진면 무거워져서 물살에 떠밀리지 않을거예요.》

《정말 그럴것군요.》

돌배낭을 둘러지고 백설기떡이 담긴 버치를 이던 정향이 엄마가 환성을 올렸다.

《에그, 백설기떡 먹음직도 해라. 현대 무슨 떡을 이리도 많이 했담?》

《아이들 돌생일때 백설기떡을 많이 해야 백살까지 잘산다고 하던 우리 시어머니말씀이 생각나서요.》

나의 대답에 녀인들이 이구동성 떠들었다.

《하긴 우리 돌격대두 오늘이 뽕생일이나 같지 뭐.》

《우리 돌격대가 백살까지 번창하겠네.》

《이거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남강마을 녀성들 같지 않아요?》

누군가가 맨먼저 물에 들어서며 말했는데 자신이 영웅의 모습으로 상상되는 모양이였다. 나는 얼마나 긴장했던지 두다리가 마비된것처럼 뻣뻣해왔다.

나는 떠밀려가는 바줄을 겨드랑이에 낀채 한발자국, 한발자국 안간힘을 써서 옮겨디었다. 그래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강북판까지 이르렀는데 짧은 비명이 아츠럽게 울리는것과 동시에 정향이 엄마가 새된 소리를 내질렀다.

《어야, 떡버치!》

사품치는 물속으로 툭 떨어지는 떡버치를 그가 붙어안는데 사람도 떡버치도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경황없이 바줄을 놓고 그가 섰던 자리로 뛰어 들며 손을 뻗었다. 한순간의 물살이 지난 뒤 떡버치를 불안은 그가 물속에서 솟구치자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 너도나도 소리질렀다.

《떡버치는 놓으라요!》

《놓으라는데...》

허나 정향이 엄마는 떡버치를 불안은채 군상마냥 서있었다.

《떡버치를 버리다니? 그럼 돌격대엔 왜 가요?》

실성한 사람처럼 외우는 그의 손에서 나는 떡버치를 받아이고 물을 건너서도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는 물밖을 나와서도 강 한복판에 눈길을 박은채 못박힌듯 서있었다.

《글쎄... 백설기떡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떡해요?》

《일없어요. 돌격대원들은 우리 얼굴만 봐도 기뻐할거예요.》

나는 주눅이 한껏 든 그를 위로하며 돌격대병실에 이르렀다.

우리를 맞이한 돌격대병실은 기쁨으로 뚫어넘쳤다. 부엌에선 돼지고기 끓이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나왔다.

《어때, 내 말이 맞았지요? 우리 탄부안해들이 꼭 울거라고 말하니 모두 날 보구 제 맘나는 소릴 한다는거지요 뭐.》

사관장이 자못 억울한 표정을 짓고 두덜거렸다.

《이거 마른 옷이 없어 야단이군요. 우린 탄부안해들을 기쁘게 하려구 이렇게 병실을 정돈해놓고 생활을 질서정연하게 하고있지만 옷들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물속을 뚫고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1소대장이 격독한 키를 짓속인채 중얼거렸다.

《일없어요. 우리 걱정은 마세요. 대장동무는 어디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3소대와 함께 갯을 지킵니다. 갯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고있습니다.》

1소대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돌격대원 한명이 뛰어 들어와 바쁜소리를 내질렀다.

《소대장동무! 비상소집하라는 대장동무의 명령입니다. 뽕프가 멎었습니다.》

《뽕프가 멎다니?》

《대장동문 인력으로라도 퍼내야 한다면서 바게뜨면 바게뜨, 소랭이면 소랭이 다 동원시키랍니다.》

《압축기는 어떻소?》

《지금속도로 물이 차오르면... 20분후면 압축기

가 위험합니다. 뿔프가 가동할 때까지 인력으로라도 퍼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누는 짧은 대화속에서 쟁안의 사태를 어렵지 않게 짐작하였다.

나는 용수철 튀기듯 한발자욱 나섰다.

《빨리 가세요!》

나의 귀전에는 재깍거리는 시계의 초침소리가 공명되어 울렸다. 20분후면 침수될수 있다!

굴진에서 심장부와 같은 압축기가! 압축기의 죽음은 곧 우리 돌격대의 사명을 끝장내는 무서운 선고와도 같다!

《아, 안됩니다. 아주머니들은 절대로 안됩니다!》

누군가 내앞을 바위처럼 막아서며 소리쳤다.

나는 내앞을 막아서는 그 사람을 똑바로 주시하였다.

《왜 안돼요? 비켜요! 갱이 죽어가요!》

《그래도 안됩니다. 아주머니들은 비켜서십시오!》

고집스레 자기 주장을 거듭하는 돌격대원의 벽력같은 웨침을 듣는 순간 편똥 스치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갱의 지붕과도 같은 지표면을 잘 손질한다면? 지붕의 기와를 잘 잇대놓으면 비를 막을수 있는 원리나 같지 않은가. 나의 머리속에는 갱속으로 스며드는 지표수를 제거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동무들, 날 따라와요!》

나는 한열의 삽자루를 움켜잡으며 짧게 소리쳤다. 그리고 앞뒤를 돌아볼새없이 갱이 위치한 산등성이를 향해 달렸다. 아직도 흙물이 도랑을 이루고 팔팔 흘러내리는것을 보면서 한시바삐 지표수를 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삽을 든 탄부안해들이 내뒤를 따랐다.

물도랑을 파고 물길을 돌려 지표면에 스며드는 량을 적게만 해도 20분이라는 긴박한 시간을 늦출수가 있으며 더 잘되는 경우 갱안으로 쓸어드는 물량을 줄일수도 있는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부리나케 삽질을 해대는 나의 몸이 차츰 나른해왔다.

힘이 어데로 다 빠져나갔는지. 목구멍에 쇠비린내가 역해지며 갑자기 구토감이 치밀었다. 손과 다리는 마비된듯 가드라들기 시작했다. 아,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나는 몽롱한 의식속에서 나를 찾고부르는 소리

에 눈을 떴다. 안개발같은 희뿌연것이 벗겨지자 나를 내려다보는 돌격대원들의 정은 얼굴이 선명하게 안겨왔다.

겹겹이 둘러선 돌격대원들의 걱정어린 얼굴을 보는 순간 방금전 갱밖에서 물길을 켜느라 역사질을 벌리던 일이 생각키웠다.

《압, 압축기는 어떻게 됐어요? 무, 무사해요?》

《압축기는 무사합니다, 뿔프도 고쳤구요. 압축기가 돌아가고 뿔프도 돌아갑니다.》

대장이 목이 멘 소리를 냈다.

《정말... 수고들이 많았어요. 동무들, 저를... 우리모두를 김진청년돌격대명예대원으로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움쭉거렸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수가 없었다.

《헤심동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동무들! 우리의 녀성명예대원들에게 경례!》

순간 나를 빙 둘러섰던 돌격대원들의 툼툼한 체구들이 움직이더니 일제히 손을 들어올려 귀가에 가져갔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진실해서 나는 그만 눈물이 솟구쳤다.

일밖에 모르고 석탄밖에 몰라 마음을 쓰게 하던 저들의 가슴에 저렇듯 뜨거운 진심이 있었던말인가.

나는 눈물이 글썽한채로 한사람한사람을 더듬었다.

바로 이들이 10년간 침수되어있던 갱을 90일동안에 살려냈고 1갱과 2갱을 연결하는 굴진전투를 벌려가고있는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이었다.

1년새 얼마나 몰라보게 성장했는가!...

나는 그 순간 내자신이 탄부안해인것을 큰 궁지로 생각하였다. 탄부안해라는 말은 명예칭호나 표창은 아니다. 탄부들결에 나란히 서있는 우리 녀인들이면 웅당 불리워지는 너무나 범상한 부름이다.

그런데도 이 가슴을 범상치 않게 울리는것은 이 땅의 천만재부가 우리 탄부들의 손에 있으며 우리 탄부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궁지높은 생각에서였다. 바로 우리 탄부안해들은 이런 남편들의 뒤바라지뿐이 아니라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한전호에서 싸우는 전우이고 동지인것이다.

나는 미더운 그들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축하해요. 동무들, 돌격대생일 한뼘을 축하해요!》



어머니조국앞에 땀땀하라

한 동 선

보느냐
저 넓은 비행장 한복판에
아들아 널 기다려
은빛날개 펼치고 서있는
고려항공기를...

너에게 천만금이 있어
이 길에 나섰느냐
나라지경을 넘는 너에게
조국이 아낌없는 려장을 차려준
조국이 이제 너를 바래올거란다

이 어머니도 너도 다 품안은 조국
조국은 어머니여서 쉼한적 없었구나
너를 키우는데 몇만공수 들었는지
조국은 어머니여서 힘들다 한적 없었구나
너를 위해 허리띠를 더 조일지언정

밀물처럼 차오르는 감사의 정이
가슴뚫을 넘어 눈곱에 솟구친다
저 활주로같은 배움의 큰길이
장참 너를 위해 뻗어오지 않았더냐
이 나라에 높이 솟은 배움의 대문들이
언제나 너를 향해 열려있지 않았더냐

이제 너를 품고 날아오를 비행기의 기창
문이라도 그 문은
대원수님들 열어주신 사랑의 창문이다
네가 날아갈 구만리 하늘길
길이라도 그 길은
창공의 한끝에 잇닿은 길
원수님 열어주신 배움의 길이다

기창에 이마를 대고
너 다시 또다시 찾아보겠지
대원수님들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꽃다발 드리며 충정의 맹세를 아뢰이던
만수대언덕...

어찌 수월히 떠날수 있겠느냐
세계의 언덕에 거연히 서시어
누구보다 제일 멀리까지 배웅해주시고
돌아올 때도 제일먼저 반겨주실
대원수님들 계시는 이 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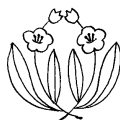
인사를 보내거라
너에게 학문의 눈을 띄워준 선생님들께
성실한 로동으로 너의 행복 꽃피운
이 나라의 로동자들과 농민들에게
피땀은 청춘을 조국위해 바치는
네 또래 병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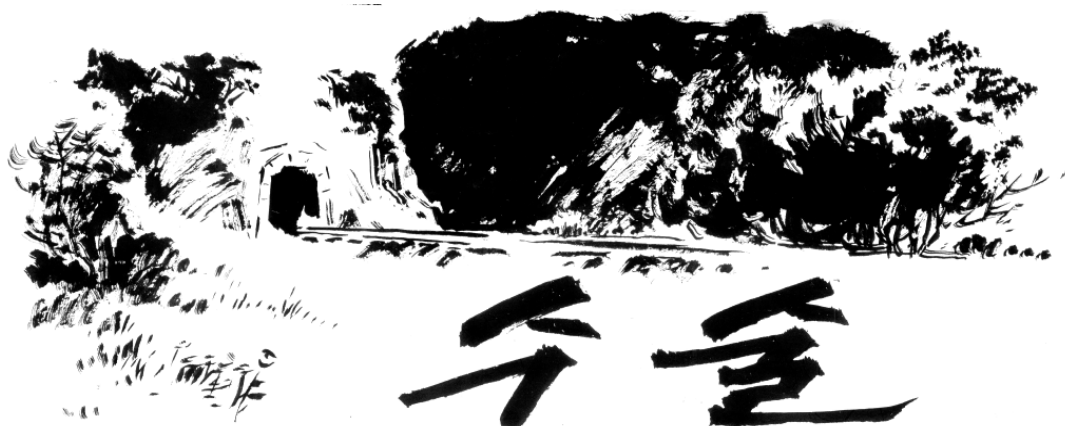
안고가거라 이 땅의 소중한 모든것
고난과 시련앞에 굴한적 없는
조국의 강직한 인민들의 모습을
담차고 활기찬 진군의 동음을
깊은 밤 탁상등아래 잠들 때도
《마식령속도》의 열풍은
너를 깨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려니

미더웁다 아들이
너 묵묵하구나
먼길의 려장은 가벼워도
간직한 사명감은 등이 휘게 무거워
못난 아들 되지 않으리 마음다지기에!...

작별의 이 순간
려객기보다 먼저 급상승한
너와 나의 격양된 이 세계에서
잘 가거라 안녕하시라 그 말은 너무 범박해

내 그냥 말없이 말없이 손을 흔드나니
너 부디 조국앞에 땀땀하거라
위대한 어머니조국의 귀한 한 자식아
너 돌아올 땐 너 돌아올 땐
조국이 얼싸안아줄 장한 아들이 되거라





수술

리 경 명

사경에 치했던 사람들은 흔히 수술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첫순간에 가장 하고싶었던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었다.

위절제수술을 마치고 입원실침대에 옮겨놓힌 수동탄광 지배인 김무진한테서는 마취가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튀어나온 첫 소리가 《그래두…》였으니 말이다.

《그래두 이 지배인이 뉘 덕에…》

고난의 행군때부터 말머리에 제시부처럼 붙여오는데 버릇된 《그래두》였다.

웃일군들로부터는 《그래두 내밀성있는 지배인을 뽑자면야…》 하고 싫지 않게 평가해주는 맛에, 아래사람들로부터는 《그래두 우리 지배인이 있기에…》 하고 주어주는 맛에 정이 들어 그 말이 일종의 자부와 고집으로 굳어지며 무슨 애칭이나 되는 것처럼 제스스로도 곧잘 말머리에 붙여외우며 살다보니 어느새 그 《그래두》가 별명처럼 되었던 것이다.

꼭두룩한 점적대에 거꾸로 매달린 약병에서 가는 관을 따라 툭… 툭 규칙적으로 방울져내리는 약물과 무진의 숨소리를 가슴을 조이며 번갈아 지켜보고있던 무진의 안해 정례가 울먹진 설분을 토설했다.

《수술실에까지 들어갔다와두 그 〈그래두…〉 소리만은 썩둑! 잘라버리질 못했구려. 내 그만큼 아무리 바빠두 때식만은 건느질 말구 꼭꼭 지키라구 일렀건만… 그때마다 〈그래두…〉, 〈그래두…〉… 끝내 위까지 잘라버렸으니 좋겠수다, 으흠!…》

정례는 말끝을 흐느낌으로 버무리며 조용히 어깨를 들먹였다.

그 흐느낌소리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 정례의 눈물겨운 푸념소리를 대수술을 하고 나온지 얼마 안되는 무진이 알아들었으니 말이다.

무진은 눈을 감은채 더듬더듬 말을 뉘었다.

《그… 그래두… 병든 위 한귀통이쥼… 잘라버려야 무슨 상관이겠소.… 탄광에… 병이 들면야 그게 제일 야단이지.…》

이러며 무진은 힘겹게 팔을 움직여 안해의 손을 더듬어잡더니 웃어보이려 애를 쓴다.

생살을 베여낸 제 아픔은 생각 않고 오히려 자기가 측은해보여 위로하려드는 그 정상에 울컥! 정례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목을 외로 꼬았다.

(오죽이나 탄광일이 걱정되었으면 저이가 이런 때까지 저런 말을 할가…)

정례는 눈을 습벅이며 아직도 온기가 채 안 돌아싸늘한 무진의 손을 두손으로 덧싸감아쥐었다.

60을 넘어선 이날 이때까지 인생의 회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정분이 그 손길에서 전류같이 흘러와 가슴이 저릿해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두…》 하면서 온 탄광일을 견어안고 얼마나 분주히 뛰어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하도 딱해 언제인가 정례가 무진에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었다.

《머리를 못쓰면 손발이 고생을 한댔어요. 당신 두 혈금씨금 뛰어다니지만 말구 뭘 좀 생각해보시구려…》

무진은 그때에도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였다.

《생각을 하라? 허허… 발바닥에 털돋을 소리군. 석탄생산이란 그자체가 자연과의 투쟁인데…》

《그렇다구 최첨단을 팔짱끼구 기다리겠소?》

《뭘? 이 로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여보, 거 정— 웃기지 마오. 탄이란 발견 그자체가 우연이었소.

옛날에는 목욕물을 덥히자고 큰 돌을 움푹하게 파낸 후 거기에 물을 길어다 붓고 불을 댔는데 한번은 물이 채 덥기 전에 그 돌에 불이 당겼다는거요. 싸리로 엮은 바구니에 흙을 발라 질그릇을 만들자고 불에 구웠는데 거기도 불이 당기구… 불붙는

돌, 불붙는 흙, 그게 곧 석탄의 발견이었지...》

정례는 구구한 무진의 말을 세월없이 듣고만 있기 뿔해 중도에서 짜증을 내며 가로챘다.

《됐수다! 시대에 맞지 않는 옛말같은 소리 늘어 놓으시네. 무엇보다 당신 머리에 불이 당겨야 최첨단에 오를것 같구려...》

《필? 내 머리에?... 못하는 소리가 없군... 그래 두 이 무진이 뛰어다녀서 계획을 했지...》

(언제 보나 저 고집...) 정례는 그때도 혀를 차고 돌아섰었다...

요새 들어와 무진은 갱내에 차오르는 물적정에 몸과 마음이 다 함께 휘말려들고있었다.

부쩍 늘어나는 석탄생산량과 함께 막장의 수준은 점점 깊어가고 게다가 올해에 들어 레년에 드문 장마까지 겹치다보니 걸잡을새없이 차오르는 물이 무진의 《그래두...》도 맥을 못 추게 만들었다.

그래서 쓰러지기 전까지도 무진은 뒤틀리는 위를 부둥켜안고 물문제를 토론해보자고 새로 임명된 기사장을 찾아 3층으로 올라갔던것이였다.

애써 층계를 밟아오른 무진은 기사장실 문고리를 잡다말고 그 자리에 굳어졌었다. 방 안에서 별스러운 말소리가 흘러나왔기때문이었다.

아마 기사장이 손전화기에 대고 하는 말인듯 했다.

《수련동무! 우리 좀 만납시다. 시간은 한시간 후! 자, 시간을 맞추지요. 지금 시간은 14시 32분 58초요, 맞췄소?》

기사장의 말소리에 이어 사랑에 겨운 처녀의 목소리가 손전화기에서 울려나오는듯 했다.

《맞췄어요!》

또다시 기사장의 목소리.

《만날 장소는 문옥봉너머 손골, 동경 126° 13' 52", 북위 39° 31' 25" 지점이에요!》

또랑또랑한 처녀의 목소리가 웃음소리와 함께 까르르 쏟아지듯 했다.

《어마나, 호호... 무슨 포사격 좌표같은요. 또 누굴 까무라칠 정도로 놀래워보고싶은게지요. 음— 장난군...》

주고받는 말들이 더 분주히 오갔다.

《우쭈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우리도 뭘 하나 정복해보자는거요. 잊지 마오! 문옥봉너머 손골 맨 밑바닥이요.》

《여기 와서 함께 가지 않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소. 동문 거기서, 난 여기서 곧장... 거기서 만납시다.》

무진은 눈이 왕사발만 해졌다.

《필? 까무라칠 정도로 정복을 한다구?》

저 수련이란 처녀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채굴공학연구소의 연구원이다.

새로 온 기사장은 지금 연구원처녀를 제 사람이다 된듯 제 뜻대로 막 다블러대고있었다.

《헛참! 젊은 사람들은련애도 저런 식으로 하는가? 영화의 한 장면같은...》

무진에게는 새로 온 기사장이 도대체 물이 부글 부글 피어올라 경각에 달한 탄광을 맡아안은 사람 같아보이지 않았다.

(안되겠군! 아무리 위가 말썽을 부려두 그래두 이 지배인이 뛰어야지...)

발길을 돌리려던 무진은 균형을 잃고 비칠했다. 새 기사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무너지며 허탈감이 온몸을 휩쓸것이었다.

무진은 더 견디어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었다.

《여보, 내가... 이 모양이 된걸... 새로 온 기사장이 알고있소?》

무진이 애써 눈길을 돌리며 여전히 애처롭게 자기만을 지켜보고있는 안해에게 물었다.

《알고있는게 다 뭘유. 기사장실 문앞에 쓰러진 당신을 들춰업구 예까지 달려온게 누군데... 당비서동지랑 기사장이랑 모두들 지금껏 당신만을 지켜보다가 수술이 잘됐다는 의사선생님말을 듣고서야 방금 돌아들갔는데... 당신, 그렇게도 생각이 안나요?》

무진은 기억을 되살리려 애를 썼으나 기사장실 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비칠거리던것밖엔 더 생각이 안난다.

내가 예까지 어떻게 왔다는건가? 삶의 한토막을 뭉청 잃어버린듯 했다.

《여보, 지금이 몇시요?》

《밤 11시예요.》

《영?》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가? 가만, 한시간에 물이 몇립방씩 불어나더랴? 지금까지의 시간을 곱하면... 이거 안되겠군... 이대로 누워있다면...)

《그래두...》

저도 모르게 그 소리가 또 입밖으로 튀어나갔다.

정례가 눈을 흘킨다.

《됐수다! 그 〈그래두...〉는 마취도 안되는 모양이구려...》

그에는 아랑곳없이 무진은 한술 더 뜬다.

《여보! 거... 기사장 좀 찾아주—》

담요깃을 여며주던 정례가 무진을 저지시켰다.

《그렇지 않아두 당비서아주버니랑 기사장이랑 두번째번 당부합디다. 일체 전화두 못하게 하구 못사람들 출입두 금하라구! 폭— 안정만 시키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맹랑하게도 정례의 들가방속에 든 손전화기가 즐거운 음악으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였다.

범도 제소릴 하면 온다더니 기사장이 정례에게 지금의 지배인상태를 물어오는 전화였다.

무진이 눈짓으로 전화기를 제앞에 가져다대달라고 이르고나서 전화기를 향해 말했다.

《여보, 기사장동무! 마침이군...》

기사장은 지배인의 속마음을 벌써 다 알고나 있

는듯 맞받아 말을 한다.

《지배인동지! 좀 진정이 되었습니까? 낮에 물문제를 토론하러 오셨었지요? 지금 또 그 문제를 말씀하시려는거구요...》

《응? 저 사람이...》

무진은 자기의 속마음을 그리도 속속들이 꿰뚫고있는 기사장이 놀라와 정례가 내들고있는 전화기를 멍하니 올려다봤다. 그리고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두... 물뿔프를 다문 몇대라두 더 늘어야 할텐데...》

기사장이 무진의 말을 막았다.

《안됩니다, 지배인동지! 그건 세면대야로 바다물을 퍼내는 격이지요. 지금의 〈마식령속도〉엔 그런 식이 통하질 않습니다.》

그래도 무진은 《그래두...》 하고 또 고집을 하려든다.

기사장이 무엇인가 더 말을 할듯 하다가 잠간 동안을 두더니 결심을 굳힌듯 말을 이었다.

《됐습니다! 탄광일은 제게 맡기구 지배인동진 건강회복에만 전념하십시오. 자, 전화를 끊겠습니다.》

무진에게는 이 어려운 때에 탄광의 모든 걱정거리를 자기가 다 견어안으려는 젊은 기사장의 마음이 무등 고마왔다.

×

며칠후 무진은 퇴원했다.

퇴원하는 길로 그는 막장부터 찾아들어갔다. 갥으로 들어가던 그는 종합지령실앞에 이르러 우뚝 멈춰섰다.

기사장실을 갥내지령실로 옮긴 모양 전투를 지휘하는 기사장의 목소리가 공중전화기에 증폭되어 왕— 왕— 울려나왔기때문이었다.

《각 중대들에서 물뿔프해체정형을 보고하라!》

《어—영?》

더 설치해도 시원치 않을 물뿔프를 해체하다니? 그러니 차오르는 물에 자리를 내준다는것 아닌가.

무진은 몸이 얼어드는듯 했다. 오지 말아야 할 그 불미스러운 일이 기어이 눈앞에 다가온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두 마지막까지 이 지배인이 버티여냈어야 했었는데...)

하지만 무진의 불안한 생각쯤 상관도 없다는듯 기사장은 물뿔프장들을 계속 호출했다.

《1중단!》

《1중단 대답한다. 지금 한창 해체중이다.》

기사장이 다그어댔다.

《2중단!》

《2중단 대답한다. 물뿔프 해체하여 대차에 실어 놓고 권양기모차 내려오기 기다린다.》

침수, 온 갥이 똥똥 물에 잠기는 판이로구나.

그런데 갑자기 격에도 안 맞게 누군가의 노래소

리가 들려온다.

《진군이다 진군이다 앞으로 진군 또 진군...》

기사장의 웃음기어린 편잔.

《여보 3중단, 건 또 뭐요? 노랜 그만하구 어서 보고부터 하오, 하하...》

3중단 뿔프공의 랑만에 넘친 목소리.

《기사장동지! 노래가 절로 슬슬 흘러나오는걸 어찌합니까. 우린 벌써 물뿔프를 해체하여 갥밖으로 싸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코소리로 다시금 《진군이다》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감투끈인가?

차오르는 물에 자리를 내주고 수치스러운 후퇴를 하면서 《진군이다》라?...

무진은 통 무슨 영문인지 알수가 없어 머리를 기웃거리며 눈을 습벅였다.

또다시 며칠전 기사장실앞에서처럼 현훈증이 일기 시작하려는데 기사장의 기백넘친 목소리가 쓰러지려는 무진을 그루박듯 바로세워주었다.

《손골, 손골! 발과준비정형 보고하라!》

(저건 또 무슨 소린가?)

무진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장난기어린 귀익은 처녀의 목소리가 기사장의 말을 받았다.

《어마나, 호... 정말 포사격발사구령같은요, 호호...》

기사장의 당황한 목소리...

《수련동무! 무슨 통담이요, 온 갥안이 듣고있소!》

그때에야 자기앞에 놓인것이 공중전화기라는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 외마디소리를 지르는 수련...

《하하하...》

《호호호...》

온 갥안에 웃음회오리가 일었다.

수련은 제격 자신을 수습하고 쇠소리는 목소리로 그 모든 웃음소리를 제압했다.

《기사장동지! 손골 발과준비 끝내고 배수갱건설 돌격대전원 대피호에 은폐했습니다. 발파단추 누르십니까?》

기사장 역시 웃음기를 떼어버린 딱딱한 목소리로 받았다.

《종소!...》 하던 기사장은 웬일인지 《아니, 좀 기다리오.》 하고 한박자 늦춘다.

(?...)

온 갥이 의아함을 품고 기사장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이윽고 한껏 랑만에 넘친 기사장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 력사적인 순간을 절대로 맹송맹송 맞이할 순 없소!》

그리고는 억양을 좀 부드럽게 낮추어가지고 누군가 마주선 사람에게 하듯이 말했다.

《안 그렇습니까?》

기다렸던듯 어디선가 대답을 해야 할 사람의 말 소리가 또 역시 한껏 랑만에 넘쳐 울렸다.

《암, 그렇구말구요. 온 탄광을 한번 들었다놓으시다.》

깜짝 놀란 수련의 목소리...

《어마나! 당비서동지... 그럼 지금껏 당비서동지 두 여기 손골 돌격대원들속에서 제가 탕- 탕- 떨구는 명령을 받으며 일하셨습니까?》

《그게 어째서... 이런 기술문제에 들어서서야 이 당비서두 수련동무의 한개 전투대원뿐순걸...》

수련의 즐거운 목소리가 손벽소리와 함께 튀겨났다.

《호, 재미있네... 호호, 정말...》

더더욱 높아지는 기사장의 목소리.

《현장방송실.》

현장방송원의 류창한 목소리가 받았다.

《방송원입니다!》

숨돌릴새없이 다그어대는 기사장이다.

《지금 이 시각부터 현장방송을 여기 지령실 공중전화기에 편걸시켜 한껏 증폭시키시오! 온 탄전이 들썩하게 실행중계를 하자는겁니다.》

《알았습니다.》

방송원도 성수가 났다.

기사장이 재차 웨쳤다.

《갱안의 전체 공중전화기들은 출력을 한껏 높이시오!》

《알았습니다!》

열다섯명의 갱내지령원들이 합창으로 대답했다.

《절작이요! 암, 절작이구말구...》

어느 수리공인가가 제가 지금 공중전화기 송화기를 커들고있다는것을 까맣게 잊고 웨쳐댔다.

숨돌릴새없이 기사장의 담찬 웨침소리가 갱안을 쩍- 울렸다.

《발파!-》

잠시후 온 탄광을 들었다놓으며 발파소리가 울렸다.

《팡!- 파르릉...》

잠시후 숨가쁜 정적이 모든것을 감쌌다.

뒤이어 손골로부터 전해지는 걱정의 웨침소리...

《만세!-》

《만-세-에!》

기사장의 목소리는 한옥타브 더 올라갔다.

《각 편도들에서 물빠짐상태를 보고하라. 1중단!》

바이올린의 활긋는 소리와도 같이 들리는 경쾌하고도 창창한 처녀운전공의 목소리가 울렸다.

《1중단 보고한다... 물이 손골을 향해 춤을 추며 흘러간다.》

《2중단!》

커다란 대북의 울림과도 같은 한 남자수리공의 목소리가 제격 받았다.

《2중단 보고한다... 물이 밀빠진 항아리에서처럼

쭉- 쭉- 빠져내린다.》

런이어 들려오는 랑만넘친 보고들에 방송원의 정신이 번쩍 드는 선동연설이 끼어들었다.

《탄광안의 탄부들과 탄광마을 주민여러분! 저 만세소리를 들습니까!》

저 웨침소리는 우리의 미더운 손골 배수갱건설 돌격대원들이 밤낮으로 이어진 전투끝에 탄광 맨 밑바닥에 통구멍을 뚫고 터치는 격정의 만세소리입니다.

탄광의 기술집단과 돌격대원들은 탄광 밑바닥과 손골의 해발고차가 2메터라는것을 밝혀내고 탄광이 생긴이래 수십대의 뿔프로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물문제를 단 10여일간의 전투로 해결해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정녕 이것은 우리 탄광이 쌓아올린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말할만 합니다.

배수갱건설에 참가한 기술집단과 돌격대원동무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말을 끝내는것과 함께 방송원은 노래소리음향을 부쩍 높여놓았다. 온 탄광이 도가니처럼 끓어번졌다.

지령실앞에 굳어졌던 무진의 얼굴에도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젊은 기사장은 지금 온 탄광을 자신있게 손아귀에 걸어쥐고 전투지휘를 빈틈없이 다그어대고있는 것이었다.

무진의 마음속에 팡- 오는것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퍼주신 《마식령속도》의 불길높이 창조한 우리 탄광전투지휘에서의 혁신이고 비약이 아니겠는가!

무진은 《그래두...》를 고집스럽게 외우며 뛰어다닌 자신을 새삼스럽게 돌이켜보게 되었다.

그랬다!

제판에는 아픔을 무릅쓰고 위를 싸쥐고 뛰고 또 뛰다고 하였지만 지식과 사색이 결여된 일군의 투신과 근면은 오늘의 전진에서 어쩔수 없는 맨 뒤자리였던것이다.

탐구와 창조의 희열로 끓어번지는 이 전투장의 복판에 서서 무진은 자그마한 소령이로 바다물을 퍼내려들던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자신을 되돌아봤다.

새삼스레 떠오르는 안해가 하던 말...

《그렇다구 최첨단을 팔짱끼구 기다리겠소?》

...

《에그, 당신 머리에 불이 당겨야 최첨단에 오를것 같구려...》

...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 모든 부문에서 우주과학자들의 정신으로 최첨단을 앞당겨오는 시대에 한개 기업소일군인 나만이, 나만이 뒤떨어진 사고, 뒤떨어진 걸음을 해왔구나.

룡남산의 불빛

정 두 국

밤은 깊어
룡남산기슭 나무가지들도
고요를 실어 무거웁고
저 멀리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는
새날을 알리며 울리는데
보라 우리 대학 전자도서관의 불빛을
창가마다 불타는 룡남산의 열정을

저 하늘의 별들이
여기에 다 내려앉았는데
층층 불덩어리 쌓아올린듯
불빛젖은 정원수도 키를 솟구며
눈부신 창문들을 들여다보누나

밤은 깊어 깊어가도
아는지 모르는지
피아노건반을 두드리듯
컴퓨터건반에 미끄러져가는 손들
예지와 슬기가 번뜩이는 눈빛들

김일성조선을 세계에 빛내라신
장군님의 말씀 삶의 숨결로 높뛰어
이밤 탐구의 신들메 조여맨 대학생들
마주한 화면들에도 높뛰는 가슴에도
때없이 젖어드는것은...

어이 알라 장군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밤 우리를 찾아오실지

교정의 그 어데인가 차를 세우시고
룡남산의 불빛을 기쁘게 바라보시는지

그리움에 젖는 가슴마다에
눈물겹게 어려와라
꺼질줄 모르던 장군님의 야전차불빛
그 불빛에서 시작되어
룡남산의 불빛은 이리도 눈부시고
이리도 숭엄한것 아니나

우리 이밤
뜨거운 마음안고 바라보노라
저 무변광대한 우주대공에 뻗치는
룡남산의 광휘로운 불빛을
우러러보노라 마음도 경건히
그 불빛에 숭엄하게 어려오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아, 룡남산의 불빛이여
성스러운 이 산정에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
이 위대한 맹세의 빛발이 되어
너는 온 우주를 비치거니

그 불빛아래
나 또한 최첨단의 세계를 알았거니
전자도서관의 문을 열고 밖에 나서니
크나큰 기쁨을 싣고 나를 향해 마주와라
승리와 영광의 광활한 세계가

마식령 시간

리 경 체

태고의 산발을 흔들어깨우며
불같은 마식령시간이 흐른다
351고지로 돌격하던 화선용사들
그들의 한초한초가 여기에 흐른다

다룰수 없어라
장령도
병사도
소속과 직무는 서로 달라도
한시간속에 사는 사람들

우뢰우는 발걸음
번개같은 숨씨로 시간을 주름잡는다

몰라보게 일떠서는 건물들은
《마식령속도》의 기념비!

불달린 화약처럼
일당백공격속도로 내달리는
병사들의 위훈의 한초에
수천수만년 흘러온 마식령도 머리속이다

아,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선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는 병사들
위훈의 한초한초 마식령시간에
온 나라가 초침을 맞춘다

시뭍음

마 식 경 바 람

심 복 실

시대가 부른다 《마식령속도》창조으로
온 나라에 일어번진다 뜨거운 열풍
그 열풍에 쇠물은 사품쳐끓고
그 열풍에 곡식들은 이삭을 여물린다

처녀들 가슴엔 사랑이
파원의 열매처럼 무르익거니
그 뜨거운 열풍에 붓을 달구어
폭풍쳐달리는 조국에 나의 노래 드리여라

고 지 우 에 마 식 경

마식령 마식령의 이름으로
용해장쇠물남비를 기울이듯
제철소도표우에 령이름이 있다
마식령 마식령에
쇠물로 주로를 닦아야 하는듯
끓여낸 쇠물에 만족할줄 모른다

마식령 마식령이
포전머리에 새로 생긴 령이런듯
그 이름 새겨진 기발이 펄럭인다
마식령 마식령이
조국앞에 결의한 알곡고지런듯
그 이름 쌀과 함께 때없이 불리운다

《마식령속도》의 불바람이
탄광에도 발전소에도 일어번진다
시대의 격문에 열렬히 화답하는
천만심장의 피가 뛰는 웨침이 메아리친다
위대한 창조의 숨결이 가슴벽을 친다

달리아 어찌 살라
일을 해도 꿈을 꾸어도 마식령을 오르고
제품을 쌓고 발명품을 내놓아도
우리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에 비추어보나니
조국이 열어준 오직 한길만이
내가 가고 그대가 가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마식령 마식령은
주체의 붉은 쇠물 쏟아지는 제철소에 솟았다
금나락이 설레이는 옥야천리에 솟았다
이 나라 공장과 산골마을 어촌들에
원수님 따르는 한마음에 솟았다

오, 세계가 지켜보는
마식령 마식령은
불같은 애국의 심장들이 지켜선
고지와 고지들에 받들리웠으니
온 나라가 다 보는 마식령에
만복의 봉우리들이 키를 솟구리라

야 권 편 지 이 야 기

강재 실은 화물차는 떠나지 못하고
성미 급한 운전사 독촉이 불같은데
편지 한장 아들에게 부치겠다며
차를 막은 압연공 아직도 궁싯댄다

소대나 중대가 모여앉아 볼텐데
아버지의 문화수준 낮다 하면 어찌나
화선식으로 몇마디 써보내자던노릇이
길어지는 생각탓에 글줄을 멈추었네

압연공답지 않다 통까지 맞고
팔부자 운전사를 나무람하며
세번째 독촉엔 화까지 냈네
—내 편지를 편대에서 독보한단 말이요!

그쯤 올리놓고나니 배심이 생겼는가
화물차적재함에 뛰어오른 압연공
흐뭇하게 철판통구리를 바라본다
—압연공답게 쓰란 말이지!

쇠물내 확확 뚱겨오는
아직도 뜨끈한 철판통구리에서
제가 새긴 수자와 부호들을 보는 순간
—종이가 따로 필요한가 여기다 쓰지!

무슨 긴말이 필요하랴
마식령의 병사들이 강재를 기다린다고
원수님께선 뜨겁게 불러주셨거늘
아들의 절절한 부탁이 귀전을 친다
—건설은 넘려말라 강재만 보내달라

땀젖은 작업복의 주머니를 더듬었다

온 마음을 작은 백묵꽂다리에 담아
휘갈겨쓴다 압연공 아버지는
—마식령병사들 강재는 넘려말라!

오, 강재
그것이 병사들에게 보내는 압연공의 인사말
그것이 아들에게 전하는 고향의 소식
떠나는 화물차를 뜨겁게 바래우며
압연공은 자기의 글씨를 만족해한다

—잘 신고가주게
마식령에 부치는 내 편지를!

마식령미남자들

소곤소곤
호호깔깔
첫물파일 따는 파수원처녀들
마식령미남자 이야기도 무르익었네
그런 대장부들이라면
그런 번개같은 일숨씨에야...

소곤소곤...
말들도 쉬여넘었다는 마식령을
병사들은 단숨에 타고앉았대
그들이 진짜 사나이지 뭐
미남자도 《단숨에》 병사가 제일이지
그렇지 정말 그래 호호 하하!

소곤소곤...
그들은 제 허리에 바줄을 감고
아름드리나무뿌리들을 언땅에서 뽑아내줬대
그들은 허리가 무쇠기둥일거야
그 허리에 칭칭 가는 세월 감아놓고
아득한 앞날도 썩썩 끌어다놓으니
반했어 정말정말 호호하하!

소곤소곤...

하루에도 그 몇번 령을 오르내리며
십여만메터 주로를 뒹아냈으니
그들의 마음은 불이 달린 화약이라지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달려나가면
분렬의 장벽 무너지고 통일이 오겠지
호호 하하

소곤소곤...
침략의 압덩어리를 지구에서 뽑아내여
허공중천에 뿌려버리겠다고
병사들은 마식령에서도 원수를 버든대
우리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들인
원수님의 병사들은 제일 멋진 사나이!

소곤소곤
호호깔깔
건설은 넘려말라 웨친 병사들에게
탄약은 넘려말라 화답했다며
화선공연 가자는 파원처녀들 마음
그 마음속에 가꿔온 사랑이었네
아무렴 시대가 맺어준 인연인데야!

행복이 오는 길 마중가는 길

땡벌 내리찍는 여름철이건만
내 마음은 눈내리는 스키장에 있다
장설을 떠이고선 마식령의 은빛주로를
내 마음은 벌써 달리고있다

하나와 같은 생각
휴가들을 미룬다
조국앞에 땀땀이 년간계획 넘쳐하고
오는 겨울엔 본때나계
마식령스키장을 달려보자누나

제철소용해공들
방직공장 처녀들
10톤농장 젊은이들
혁신자편대를 무어가지고
사랑의 주로우에 올라서잔다

얼마나 활기로운 계절이
우리앞에 있는가
얼마나 가슴벅찬 생활이
마주오고있는가
원수님 펼쳐주신 은빛주로우에
복받은 삶을 마음껏 맡겨버리려니

안아볼수록 눈곱 뜨거워라
그날을 더 빨리 당겨오시려
원수님 걸으시는 로고의 천만리길
해별 뜨거운 파수원과 송도원
창성과 강계 굽이굽이 오성산
초소에서 바다로 험한 길 이어가실 때
더 가깝게 안겨진 인민의 행복이여

불철주야 이어가시는 초강도강행군길
그 길에 이어진 스키주로를
그 사랑에 당겨지는 행복의 계절을
어찌 누리기만 할수 있으랴

아, 내 운명에 끝없이 마주오는 복
내 생활의 창문가에 찾아들면서
기쁨의 손저어주는 행복의 계절
원수님 계시여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이
사계절 이어지고 당겨지고 또 이어져

그 품에서만 살리라 내 한생
그이 그어주신 길로만 가리라
마식령주로를 내 삶의 주로로 정하고
우리 다만 행복의 꽃수만 놓지 않으리
천년만년 태일의 복을 모두 당겨오고
영광스런 **김정은**원수님시대를
우리 힘 다해 받들리 길이길이 빛내리

마식령바람

버들 늘어진 강변의 봄바람이 아니다
뼈죽새 노래하는 등산길의 꽃바람이 아니다
달리는 룡마에 박차를 가하며
시대가 일으키는 불바람이다

그 바람에 심장들은 더 커지고
그 바람에 리상들은 더 높아지려니
원수님의 절절한 부르심앞에
더운 심장들을 내댄 사람들아

허리치는 눈속에서 언땅을 까해치고
아름드리나무뿌리에 바줄을 걸어
제 한몸의 허리에 감아 당겨내치던
불의 격전장 병사들을 생각하자

10년을 한해안에 불같이 당겨온
그들이 흘린 땀을 헤아려보았던가
십여만메터의 스키주로를 닦으며

그들이 지어나른 흙과 돌을 계산해보았던가

두배 세배는 낡은 기준
열배의 목표는 우리의 기준
행복과 번영의 불바람속도에
이 세상 원수들은 전률하리니

《마식령속도》!
백두산악이 터친 불바람속도
행복을 안아오는 원수님 호소에
세월을 주름잡아 천만심장이 일으키는
폭풍이다! 번개치고 우뢰가 우는!

오, 바람 마식령바람
쇠물을 끊이고 오탁을 자래우는
일손에 불길 지피고 가슴을 끓여주며
아이들의 미래를 촉촉해주는
오, 바람 애국의 바람이 온 나라에 분다



쓰팔린그라드방위자들의 열렬한 쏘베트애국주의를 보여준 중편소설 《낮과 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른 나라의 문학에서 이룩된 진보적인것 가운데서 우리의 문학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것은 주체적인 립장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중편소설 《낮과 밤》은 이전 쏘련의 작가였던 폰스판젠 미하일로비츠 씨모노브(1915—1979)가 1944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씨모노브는 베드로그라드의 로동자가정에서 태어나 1938년에 고리끼문학대학을 졸업하였다. 1934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그는 창작초기에는 주로 시와 희곡작품들을 썼다. 서사시 《승리자》(1937), 《쑤보로브》(1939), 희곡 《우리 도시에서 온 청년》(1940, 국가상) 등이 이 시기의 대표작들이다.

씨모노브의 창작은 쏘도전쟁시기에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였다. 그는 1942년에 쏘련공산당에 입당하고 신문 《크라스나야 즈베즈다(붉은별)》 종군기자로 활동하였으며 희곡 《로씨야사람들》(1942, 국가상), 중편소설 《낮과 밤》(1943—1944, 국가상), 시집 《그대와 함께, 그대없이》(1942), 《전쟁》(1944) 등을 발표하였다.

전후시기에 작가는 희곡 《로씨야문제》(1946, 국가상), 《남의 그림자》(1949, 국가상), 시집 《친우들과 원수들》(1947, 국가상), 3부작 장편소설 《산사람과 죽은 사람》(1954—1971) 등을 창작하였다.

씨모노브는 쏘련공산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검열위원회 위원,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등으로 활동하면서 생의 말년까지 쏘베트작가로서의 의무에 충실하였다.

중편소설 《낮과 밤》은 쓰팔린그라드격전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에 작가에 의해 구상되고 집필되기 시작하여 1943년부터 1944년까지 쓰는 족족 신문에 련재되였다.

소설은 쓰팔린그라드격전의 대서사시적화폭을 담고있다. 쏘베트군대와 인민은 이 격전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견결성, 완강한 의지를 발휘하여 승리함으로써 전쟁전환의 국면을 열어놓고 도이쉴란드침략자들을 파멸의 내리막길로 몰아넣었다.

소설은 쓰팔린그라드격전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대위 싸부로브가 대대장으로 임명되어 격전장으로 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있다.

도이쉴란드공군이 수시로 폭격을 감행하고있는 살벌한 도하장 수송선에서 주인공은 18살의 간호원 아나를 만나게 되며 이 두 인물이 소설의 이야기줄거리에서 중요한 인간관계를 이룬다.

붉은군대는 길이 65키로메터, 너비 5키로메터, 배후에는 넓은 강이라는 불리한 지점에 압축된 형편에서 도시를 지켜낼뿐아니라 적들을 격퇴해야 하였다. 전쟁의 전반적정세로 해서 쓰팔린그라드에 더 줄 예비부대는 없었다. 그런 속에서 도이쉴란드놈들은 아침 7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폭격과 포격을 계속하여 도시에 성한 집 한채 남겨놓지 않았다. 적아간의 계선도 명백치 않았는데 차지한 건물이 곧 전선이며 어떤 곳에서는 한 건물안에서 서로 다른 층을 차지하고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 싸부로브의 대대는 건물 3개를 탈환할 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작품에서 극적인 장면은 적이 일부 지점들에서는 불가장기숱까지 나와서 아군련대들사이의 련계를 끊어놓는것인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대장 싸부로브는 하루밤에 세번씩이나 적의 계선을 돌파하여 아군련대와의 협동작전을 벌리는것이다.

쓰팔린그라드에서 반격전이 시작될 때 싸부로브대대에서 남은 성원전부인 30명, 린접련대에서 20명, 사단에서 30명이 보충되어 80명으로 돌격대가 구성되였다. 이 돌격대는 밤 1시 25분에 공격을 개시하여 마침내 적이 점령하고있던 건물을 탈환함으로써 반격전의 돌파구를 열었다. 이 최후의 돌격전에서 이처럼 열정적이고 용감하고 꿈많은 대대상급참모 마쉴렌니코브가 전사하고 아나는 중상을 당했다.

그러나 싸부로브의 대대는 온갖 희생을 이겨내며 용감히 싸워 반격전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고 차지한 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낸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는 쓰팔린그라드격전에서 쏘련인민과 군대가 승리할수 있었던 요인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밝히려고 하였다.

작품에서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전체 붉은군대와 쏘련인민들이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한결같이 지니고있었기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낼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작품에서는 그렇듯 열렬한 조국애

가 싸움터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낳았으며 이것을 힘으로 해서 소비트조국은 승리할 것이며 파쑈침략자들은 패망할 것이라는 혁명적략관을 가지고 파쑈침략자들을 마지막까지 격멸소탕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힘있게 강조하였다.

형상의 중심에는 주인공 싸부로브가 서있다.

《...이 세채의 집, 창문이 다 마사지고 파괴된 주택, 자기의 병사들, 전사한 사람들과 산 사람들, 지하실에서 세 아이를 데리고있는 녀인— 이 모든 것이 통털어 로씨야였으며 자기, 싸부로브는 그것을 수호하고있다는것이다. 만약에 그가 죽든가 혹은 항복한다면 이 한조각의 땅은 로씨야의것이 아니라 도이쉴란드놈의 땅이 될것이다. 그는 이것을 상상할수 없었다.》

이러한 엄숙한 마당에서 싸부로브는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조국에 바치며 자기의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한다.

싸부로브는 군관으로서 정치사상의식, 문화수준이 높고 사물현상에 대한 태도가 신중하며 임무수행에서는 원칙적이며 완강하다. 상관과의 관계에서 그는 규률있게 행동하면서도 동지적인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

《낮과 밤》에는 다른 전쟁소설들에서처럼 적진영의 내부생활, 인물 등에 대한것은 료략적으로만 서술되고 로씨야군대 내부생활이 위주로 묘사되어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병사, 군관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성, 무비의 영웅성에 대한 묘사이다.

우선 대대장 싸부로브, 대대정치지도원 빠르표로브, 대대상급참모 마쉴렌니코브, 늙은 병사 꼬뉴코브, 편락병 빼썸, 간호원 아냐 등은 사회주의조국의 고귀한 모든것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을뿐만아니라 슬기롭고 용감하며 가렬치절한 전투환경속에서도 비판을 모르는 락천가들이다. 바로 그 격전장의 한복판 적과 불과 수십메터 떨어져있는 파괴된 건물속에서 싸부로브는 아냐와 결혼한다. 사단장도, 늙은 병사도, 전우들도 충심으로 그들을 축하한다. 그뿐이 아니라 어느 한 건물의 지하실에는 시민인 한 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있는데 군인들은 그들을 한식구처럼 보호하면서 조국땅과 동포에 대한 절절한 애착감을 느낀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작품의 주인공들이 지닌 생활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락천적기질, 불굴의 의지를 잘 알수 있는것이다.

이와 함께 소설은 군인들의 생활을 박력있고 가식없는 문장으로 진실하게 그려보여주었다.

장편소설 《낮과 밤》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싸부로브와 같은 붉은군대병사들이 지켜싸우는 사회주의나라를 파쑈들은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소비트전쟁문학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 혜 원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10호 (루계 제792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10월 1일

발 행 주체102(2013)년 10월 5일

7-36628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37